11

2026
November
Vol. 47

월간 산란계

Monthly Laying Hens

특별기고
농가 협력이 만드는 힘, 계란의무자조금 가치란?

산업 및 연구정보
특별방역기간 산란계 농장의 소독과 차단방역 관리

이슈 프리즘
농림축산식품부,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첫 검출... 전국 위기경보 '심각' 상향



(사)대한산란계협회
Korea Egg producer association

(사)스마트산란계산업협회
Korea Laying Hens Industry Association

농가 협력이 만드는 힘, 계란의무자조금 가치란?

박현준 | 계란의무자조금 미수금특별거출위원장

존경하는 전국의 산란계 농가 여러분!

우리 계란산업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반복적인 발생과 생산비 상승, 수입 계란과의 소비시장 경쟁, 소비환경의 변화, 각종 사육면적 확대, 탄소 저감 환경 규제와 농업 무역정책 변화까지 농가가 대응해야 할 문제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개별 농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농가의 의견이 하나로 모여야 정부와 관계기관에 우리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고, 산업 전체에 필요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계란산업이 어려울수록 농가가 한목소리를 내고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란의무자조금은 이러한 공동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우리 계란산업은 여러 위기를 농가의 참여와 공동의 노력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 당시에는 국내산 계란의 안전성은 타 농축산물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을 코덱스 기준표를 작성하여 널리 알리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푸드백신 계란'을 통해 계란의 영양적 가치를 알리고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산란계육의 베트남 수출시장 개척 및 관리와 국내산 계란의 우수성 홍보 등 개별 농가가 하기 어려운 일들도 자조금을 통해 함께 추진해 왔습니다. 농가가 함께 조성한 자조금이 있었기 때문에 산업 차원의 대응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최근에는 계란의무자조금의 역할도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산란계 농가의 현실적인 사육규모와 소득이 세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산란계 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를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반복되는 고병원성 AI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AI 방역체계 개선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농가 경영안정과 제도개선을 위한 조사·연구와 정책 건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란산업은 지금보다 농가의 공동 대응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방역과 환경, 동물복지, 시설개선 등 농가가 준비해야 할 과제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농가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의 합심입니다.

지역과 농장 규모, 경영여건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당장의 이해관계도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란산업 전체가 안정되어야 개별 농가의 경영도 안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한 농가의 목소리로는 바꾸기 어려운 것도 많은 농가가 같은 목소리를 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국내산 계란의 가치를 알리는 일도, 정부에 농가의 현실을 전달하는 일도,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일도 결국 농가가 얼마나 함께하느냐에 따라 힘이 달라집니다.

계란의무자조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농가의 참여만으로는 산업 전체를 위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농가가 함께 참여할수록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정부와 관계기관을 상대로 농가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에도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의무자조금은 모든 농가가 함께 부담하고 그 성과를 함께 나누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누군가는 납부하고 누군가는 납부하지 않는다면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어렵고, 성실하게 참여하는 농가와의 형평성도 맞지 않습니다.

더욱이 2027년 최근 지자체에서 공고하고 있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및 산란계 케이지 지원 사업 신청 시 계란의무자조금 납부 실적이 필수인 만큼 미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최근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가 미납농가를 대상으로 내용증명과 납부 안내문 등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는 것도 단순히 미납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만은 아닙니다. 농가가 미납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고 의무자조금을 자진 납부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세무처리와 정부지원사업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도 담고 있습니다.

계란의무자조금 납부를 단순히 돈을 내는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계란산업이 공동으로 필요한 일을 추진하고 농가 스스로의 권익과 위상을 지키기 위해 함께 참여하는 과정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농가가 힘을 모아야 할 때는 결국 지금과 같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계란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어려워질수록 농가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기보다 공통된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야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고, 농가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026년 9월에 미수금 회수를 포함한 거출률이 134%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계란의무자조금 거출에 함께 해 주신 농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란산업의 공동 발전을 위해 전국 산란계 농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실한 계란의무자조금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ntents

특별 기고

049 (권두언) 농가 협력이 만드는 힘, 계란의무자조금 가치란?
052 산란계 농가의 생존권 확보와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 구축을 향해

산업 및 연구정보

055 특별방역기간 산란계 농장의 소독과 차단방역 관리

질병 및 사양관리

060 식품안전 관점에서 다시 보는 가금 농장의 식중독 살모넬라
065 2026~2027년 동절기 AI 방역대책, 무엇이 달라졌나

이슈 프리즘

072 농림축산식품부,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첫 검출... 전국 위기경보 '심각' 상향
073 농림축산식품부, 겨울철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특별방역대책점검회의 개최
074 농림축산검역본부, AI 진단기관 58개소 숙련도 평가 모두 '적합'
075 축산물품질평가원, 맞춤형 AI 업무 기준으로 축산 스마트 행정 속도 낸다
076 한국일보, "[사설] 수입계란에 1200억, 산란계 농가엔 10억… 땜질 언제까지"
077 팜인사이트, "李대통령, X 통해 '브라질 계란 800억 낭비설' 직접 반박"
078 뉴시스, ""달걀 자가품질검사' 살모넬라균 검사 의무된다[식약처가 바꾼다]"
079 식품저널, "10명 중 8명 "브라질산 계란 수입 부적절""

국제 동향

080 미국 계란업계, HPAI·살모넬라 이중 위협 직면
081 미국, 계란가격 20년 만에 최저 수준… 사료비 상승 압박
082 미국, 케이지프리 전환 확대... 외부기생충 위험 증가
083 프랑스 계란업계, 수요 증가에 생산기반 확대 지원 요구

현장 탐방

084 "살처분 비용 대신 예방접종 예산 준비해야"…
096 2026년 전국 산란계농가 계란 안전성 확보 및 AI 방역교육
102 방역에서 위생관리까지, 일본 산란계 산업의 현장을 들여다보다②
110 한국양계농협, 조합원 화합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 다짐

통계 정보

116 종계입식, 실용계 판매, 병아리·중추 가격, 도축실적, 성계육 가격, 사료 생산실적, 산란계용(질소저감 사료) 생산실적, 주령별 사육수수
122 2026년 3/4분기(9월 1일 기준) 가축동향조사 결과(요약)
124 이달의 전망

자조금 소식

127 지역별디지털마케팅
- 수입산대응, 세계 최고품질 한국계란 각인 홍보, 7명의 유명셰프, 푸드백신 한국계란요리 확산 앞장!
128 온오프라인 홍보 및 행사
- 11월 계란기부 마라톤, 계란요리 및 펫푸드경연 거출홍보사업
- 2027년 축산정책 지원사업, 계란자조금 납부 필수 요건… 성실납부 당부
129 2026년 지역별 계란의무자조금 납부현황
130 2026년 9월 계란의무자조금 집행현황
131 2026년 9월 납부내역

동정

140 협회 소식 / 지역 소식 / 업체 동향

정보 광장

145 부모님 효도 팁: 건강 관리해 드리기(2)
148 그 밖의 세금(농어촌특별세, 주민세)

기타

112 산란계 농장에서 알면 유익한 세무정보
138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안내
139 현장이 주목하는 이달의 신제품 '과학-MJ 콤포스터'

※ 외부 필진의 원고 방향은 본 협회 방침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보고]

산란계 농가의 생존권 확보와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 구축을 향해



2026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는 그동안 산란계 농가들이 현장에서 겪어온 불합리한 규제와 억울한 제재 조치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여야를 막론하고 농가의 현실을 대변하며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한편, 농가 권익을 위한 대한산란계협회(안두영 회장)의 끈질긴 대정부 소통 노력이 빛을 발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2026 국정감사 주요 쟁점

이번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추진해 온 계란 물가 정책과 규제 행정이 정작 국내 생산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질의하였다.

가. 3배 이상 부풀려진 담합 몰이의 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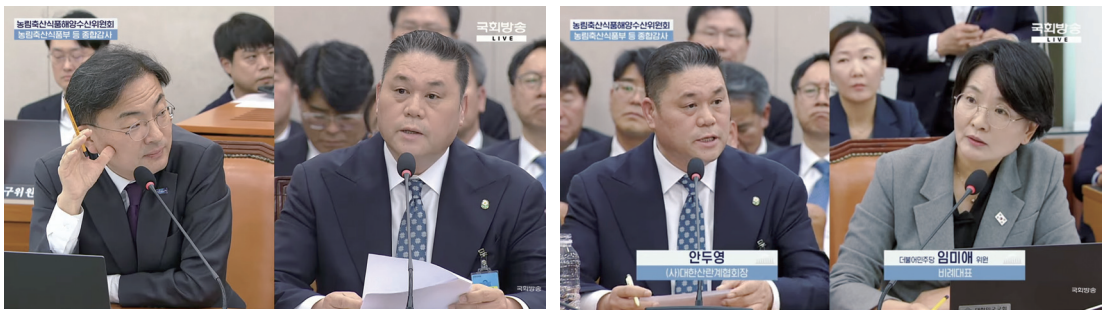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정부가 산란계 농가들의 자구책이었던 기준 가격 정보 제공을 '가격 담합'으로 몰아붙인 과정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임미애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는 달걀 산지 가격 상승률을 실제(6.7%)보다 3배 이상 부풀린 통계(23.3%)를 활용해 협회를 무리하게 몰아세웠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나. 국내 농가 규제 vs 외국산 깜깜이 통관

신장식 의원은 “국내 농가에는 사육 면적 확대 등 엄격한 기준을 강요하면서, 정작 세금 1,200억 원을 들여 수입한 외국산 계란은 사육 환경조차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라며 농가들이 느낀 극심한 박탈감과 행정의 불평등성을 지적하였다.

다. 현실성 없는 사육 면적 확대 규제

2027년 9월 시행 예정인 마리당 사육 면적 확대(0.05㎡→0.075㎡) 조치에 대해서도, 단순한 케이지 교체만으로는 환기·난방 시설 문제로 폐사 위험이 커지며, 지방 조례나 규제 때문에 계사 증축도 불가능한 현장의 난맥상이 밝혀졌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태도 변화와 약속

벼랑 끝에 몰린 농가들의 호소와 국회의 강한 질타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의 강경 노선에서 벗어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협회와의 전향적인 소통에 나서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정감사를 통해 산란계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다음의 3가지 핵심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확약하였다.

· 피심인(산란계 농가 및 협회)에 대한 제재 철회

· 법인설립 허가 취소 등으로 중단되었던 협회와의 대화 채널 즉각 복원

· 사육면적 확대 시행 과정에서의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 협의 진행

이로써 오랜 기간 위축되었던 산란계 산업에 숨통이 트이게 되었으며, 생산자 단체의 정당한 목소리가 다시 농정에 반영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농가를 위해 발로 뛰는 대한산란계협회, 대정부 소통의 결실

이번 국감에서 산란계 산업에 대한 질의가 이토록 집중적으로 다뤄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대한산란계협회가 법적 공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농가들의 억울함과 현장의 진실을 국회와 언론에 끊임없이 피력하며 대정부 활동을 전개해 온 결과이다. 협회는 법원의 법인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을 끌어내 정당한 법적 지위를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일방적인 수입 위주 정책에 맞서 국내 생산 기반을 안정시키는 것이 진정한 물가 안정의 길임을 지속해서 설득해 왔다.

또한, 정부가 규제 중심의 행정으로 농가를 압박할 때도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공조, 사육 면적 기준 완화 제안, 현실적인 계란 정산소 설립 등 대안 중심의 정책을 끊임없이 제시하며 산란계 농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해왔다.

[대한산란계협회 안두영회장 참고인 주요 발언 내용]

- 2017년 정부가 산란계 마리당 사육 면적 기준을 0.05㎡에서 0.075㎡로 늘리면서 시설 개선비 보조(30%) 및 동물복지 직불제를 약속했으나, 실제 농가들의 직접 보조는 2018년 97억 원이 전부였고 직불금은 지급된 적이 없어 대부분 융자를 내어 시설을 변경하였다.
- 케이지만 바꾼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육 마릿 수가 30% 이상 줄어 매출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기존 시설(환기, 난방, 급수 등)이 과거 마릿 수에 맞춰져 있어 케이지만 바꾸면 온도·환기 문제로 닭이 폐사할 위험이 있다. 결국 계사 전체를 손봐야 하지만 지방 조례(가축사육 총량제)와 민원 때문에 증축이 어려운 현실이다.
- 계란은 다른 농축산물과 달리 도매시장이 없어 가격 발견 기능이 없다. 따라서 대한산란계협회가 수급 상황을 반영한 전망 가격을 발표해야만 농가가 병아리 입식 시기나 노계 도태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일본도 생산자 단체가 발표 중).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산란계는 농축산 품목 중 수익성이 최하위권이다. 특히 선별·포장 비용까지 농가가 부담하여 실제 수익은 더 낮다. 15년 전(2011년) 산지 특란 가격(판당 4,710원)과 현재 가격(4,800원 수준)이 거의 비슷하다.
- 국내 계란은 무항생제 및 철저한 위생 관리가 이루어지며, 세계 유일의 '산란일자 표시제'로 신선도가 최고 수준이다. 산지 가격 기준으로 태국(5,100원)보다 낮아, 세계 최고 수준의 계란을 동남아 가격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다. 정부의 수입이나 할인 행사보다는 국내 생산 기반 안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대한산란계협회는 언제나 산란계농가 여러분들과 함께 현장에서 뛰겠습니다

특별방역기간 산란계 농장의 소독과 차단방역 관리



김의형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센터 수의연구관

1. 들어가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는 가금산업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단 농장에 발생할 경우 농장 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인근 농장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은 가축전염병이다. 특히 산란계 농장은 사육 기간이 길고 사육 규모가 큰 경우가 많으며, 계란의 생산·수집·운반 과정에서 사람과 차량의 출입이 빈번하기 때문에 차단방역이 더욱 중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5/26년 겨울철 고병원성 AI 전체 발생 62건 가운데 31건(50%)이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0만 수 이상 대형 산란계 농장이 17건으로 55%를 차지했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26/27년 특별방역대책에서는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사전 예방과 발생 시 확산 최소화를 위한 방역체계가 한층 강화되어 운영 중이다.

따라서 특별방역기간에는 산란계 농장의 방역은 단순히 소독약 살포에만 의존하기보다 농장 내·외부의 오염원을 제거, 사람과 차량의 이동을 통제, 적절한 세척·소독 및 방역활동의 기록·관리를 포함한 종합적인 차단방역이 필요하다.

2. 소독의 기본원리와 목적

소독의 목적은 농장 주변이나 축사, 차량, 장비 등에 존재할 수 있는 병원체를 제거하거나 감염력을 감소시켜 가금에 바이러스가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있다.

그러나 단순한 소독으로 모든 병원체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분변, 깔짚, 사료찌꺼기, 먼지 등의 유기물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소독제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소독의 기본은 오염물 제거와 세척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소독 과정은 **오염물 제거 → 세척 → 건조 → 허가된 소독제의 적정 농도 적용 → 충분한 접촉시간 확보 → 재오염 방지**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소독제는 제품마다 유효성분과 희석배율, 적용대상, 유효기간 및 사용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제품에 표시된 사용방법을 정확히 따라야 한다. 소독제의 농도를 임의로 높이거나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일부 소독제에서는 저온에서 소독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시설과 소독약 관리에도 주의해야 한다.

3. 산란계 농장의 주요 소독관리

3.1 농장 진입로 및 외부 관리

농장으로 들어오는 차량과 사람으로 인한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농장 입구부터 관리해야 한다.

농장 진입로는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한 경우 생석회 등을 이용하여 진입로 주변을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생석회 살포만으로 농장 전체의 차단방역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며, 차량·사람에 대한 실제 소독과 출입 통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농장 외부에서는 특히 차량이 이동하는 동선, 계란 상하차 장소, 사료 차량 진입구, 분뇨 반출 장소 등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3.2 축사 및 전실 관리

축사는 산란계가 직접 생활하는 공간이므로 가장 높은 수준의 위생관리가 필요한 장소이다.

축사 내부의 분변, 먼지, 깃털, 사료 잔여물 등은 병원체가 존재할 수 있는 유기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정기적인 청소를 통해 오염원을 제거하고 필요한 경우 세척 후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전실은 농장 방역에서 매우 중요한 완충공간이다. 외부에서 축사 내부로 이동하는 동안 오염원을 차단하며, 청결구역과 오염구역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축사 전용 장화와 방역복을 갖추고 정해진 소독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외부 오염원이 축사 안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따라서 전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외부 신발과 축사 전용 장화를 구분하고 → 손을 소독하고 → 전용 방역복·장화를 착용한 후 → 축사 출입

4. 소독 주기와 소독의 질 관리

소독 주기는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장소별 특성과 오염 위험도를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오염 위험이 높은 장소는 정기적인 소독 외에도 필요 시 추가 소독을 실시하여 오염원을 신속하게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AI 방역지침에서는 농장 축사 내외부와 전실의 매일 청소·소독을 기본적인 방역수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농장 방역·소독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매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산란계 농장의 현장관리 관점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운영할 수 있다.

구분	권장 관리 방향
축사·전실	매일 청소·소독 및 신발소독조 관리
농장 내부	오염 발생 시 즉시 청소 · 소독하고 평상시 지속 관리
농장 진입로	오염상태를 수시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 소독
차량	농장 출입 시 규정에 따른 소독
소독시설	매일 작동상태 및 동결여부 점검
고위험 시기	방역당국의 특별방역 조치에 따라 소독 강화

중요한 것은 소독 횟수보다 소독의 질이다. 소독을 하루에 여러 번 실시하더라도 세척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소독제가 적정 농도로 사용되지 않고, 소독약의 작용 시간이 부족하다면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산란계 농장에서는 '몇 번 소독했는가'보다 어디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소독제로, 어떤 농도로, 얼마나 충분히 접촉시켜 소독했는가를 관리해야 한다.

5. 사람의 출입 관리

AI 차단방역에서 사람의 이동은 차량 못지않게 중요한 위험 요인이다.

농장 종사자는 물론 수의사, 백신접종팀, 상하차 인력, 시설관리자, 수리기사, 계란 관련 작업자 등 다양한 외부인이 농장을 방문할 수 있다. 특히 여러 농장을 방문하는 작업자는 한 농장의 병원체를 다른 농장으로 전파하는 매개체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출입 관리가 필요하다.

※ 기본 원칙은 불필요한 사람의 농장 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출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방문 목적과 방문자 정보를 확인하고, 농장 출입 기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농장 입구에서는 손과 신발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 전용 방역복과 장화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축사 출입은 농장 출입과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농장에 출입한 사람의 축사 내부 출입을 제한하고, 축사 출입 시에는 별도의 방역절차를 적용하는 등 출입 단계별 차단방역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여러 농장을 방문하는 외부 작업자나 관계자는 방문 농장 간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고, 농장별로 방역복과 장화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등 교차오염을 최소화해야 한다.

6. 출입차량 관리

산란계 농장의 경우 차량 방역은 매우 중요하다. 사료차량, 계란 운반차량, 분뇨 운반차량, 방역 관련 차량, 수리·정비 차량 등 다양한 차량이 농장을 출입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의 방역기준에서는 농장 진입차량에 대해 1차 소독과 2차 소독을 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1차 차량소독기 소독 후 2차 고압분무기를 이용하여 차량의 바퀴 등 취약 부위를 추가 소독하는 방식이다.

특히 차량 외부만 소독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바퀴 및 차량하부 등 오염 가능성이 높은 부위를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차량 내부 역시 필요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차량 소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

1. 농장 출입차량을 최소화하고 사전에 등록·관리한다.
2. 차량의 출발지와 이전 방문 농장 등 이동 이력을 확인한다.
3. 차량 출입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소독과 필요한 증빙을 확인한다.
4. 차량 외부, 특히 바퀴·하부 등 오염 가능 부위를 집중 소독한다.
5. 소독시설의 작동상태와 겨울철 동결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6. 소독 실시 여부와 차량 출입내역을 기록·관리한다.

7. 기록 관리

방역에서 자주 간과되는 부분이 기록 관리이다.

소독을 실시했다면 언제, 어디를, 누가, 어떤 소독제로, 어떤 방법으로 실시했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좋다. 차량이 출입했다면 차량번호, 운전자, 방문 목적, 소독 여부 등을 기록·관리하는 것이 좋다.

기록은 단순히 행정적인 자료가 아니라 농장 내 방역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AI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최근 농장에 어떤 사람과 차량이 출입했는지를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농장에서는 소독 기록, 차량 출입 기록, 방문자 기록, 방역복·장화 관리, 소독약 관리, 방역시설 점검 기록 등을 일관되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일상적인 차단방역 관리

고병원성 AI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방역기간이 시작된 이후 갑자기 방역 수준을 높이는 것이 아니다. 수시로 방역시설과 작업자의 행동을 점검하고, 실제 작업 과정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한다.

특히 농장에서는 다음의 질문을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첫째, 농장에 들어오는 차량과 사람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가?
둘째, 차량이 농장에 들어오기 전에 적절하게 소독되고 있는가?
셋째,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 취약 부위가 제대로 소독되고 있는가?
넷째, 전실에서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가?
다섯째, 축사에 들어갈 때 전용 장화와 방역복을 사용하고 있는가?
여섯째, 축사와 전실을 매일 청소·소독하고 있는가?
일곱째, 소독약의 희석배율과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있는가?
여덟째, 소독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매일 확인하고 있는가?
아홉째, 방역수칙이 실제 작업자 모두에게 교육되어 있는가?
열째, 폐사 증가나 산란율 저하 등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가?

이러한 항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실질적인 차단방역 수준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

9. 맺음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서 소독은 매우 중요한 수단이지만, 소독만으로 농장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독은 세척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사람과 차량의 출입통제가 포함되어야 하며, 전실과 방역시설의 적절한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산란계 농장은 대규모 사육과 계란 생산·운반 과정에서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많기 때문에 사람·차량·장비·동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결국 산란계 농장의 방역은 특정 시설이나 단일한 소독 기술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농장에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찾아 하나씩 차단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매일 반복하는 것이 차단방역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HPAI 특별방역기간은 10월 1일에 시작되었다. HPAI 발생을 막기 위하여 산란계 농장의 방역은 하루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소독은 정확하게, 출입 관리는 철저하게, 기록은 꼼꼼하게, 이상징후는 신속하게. 이러한 원칙을 특별방역기간뿐만 아니라 평상시 농장의 일상적인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고병원성 AI 예방의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다.

식품안전 관점에서 다시 보는 가금 농장의 식중독 살모넬라



최윤정
한국MSD동물약품(주)
기술마케팅 수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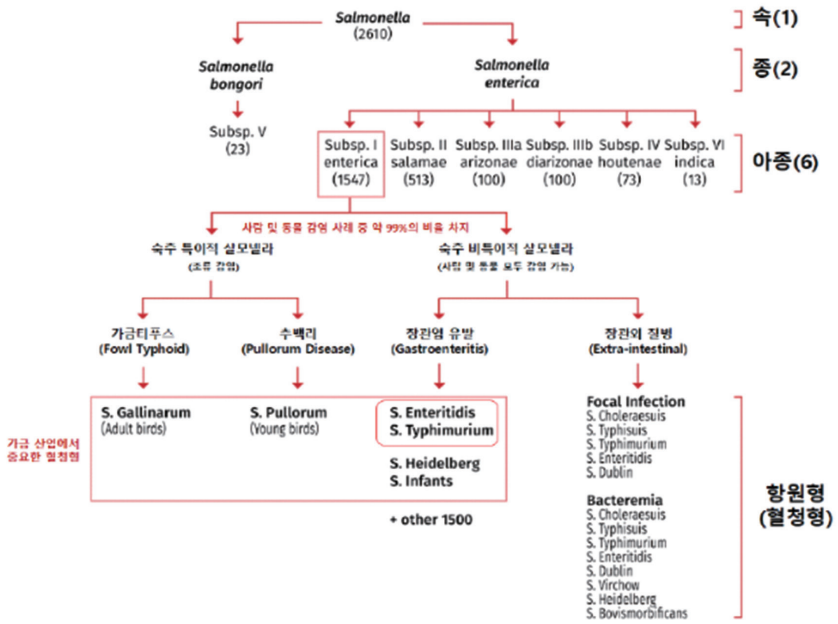
2018년 학교 급식으로 제공된 초콜릿케이크에서 살모넬라 톰슨(Salmonella Thompson)이 검출되면서 대규모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살모넬라 톰슨은 그전까지 국내 식품 검사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던 혈청형이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란의 미생물 검사 규정을 개정하여,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S. Enteritidis)와 살모넬라 티피뮤리움(S. Typhimurium)에 더해 살모넬라 톰슨을 검사 대상 균종에 포함시켰다.

해외 상황도 비슷하다. 2024년 12월 미국에서는 대형 유통점에서 판매된 계란에서 살모넬라 오염 가능성이 확인되어 대규모 리콜이 이루어졌다. 올해 8월 영국에서는 수입 계란으로 인한 살모넬라 감염 사례가 500건 넘게 보고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식중독 살모넬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베트남 등 수입국이 가금육의 살모넬라 검사 기준을 강화하면서 국내 노계 수출이 지연되거나 반송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노계 출하가 막히면 도태와 병아리·중추 입식이 줄줄이 늦어지기 때문에, 식중독 살모넬라는 더 이상 식품 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장의 경영 문제이기도 하다.

또 이번 호에서는 식중독 살모넬라가 무엇이고, 국내에서 얼마나 발생하고 있으며, 농장에서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관리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살모넬라, 다 같은 살모넬라가 아니다

살모넬라는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서식하며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능력이 있어 자연환경 전반에 널리 퍼져 있는 세균이다. 2,600여 종이 넘는 혈청형이 있으며, 가금 산업에서 중요한 혈청형은 대부분 Salmonella enterica subsp. enterica에 속한다<그림 1>. 농장 입장에서는 이를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 이해하면 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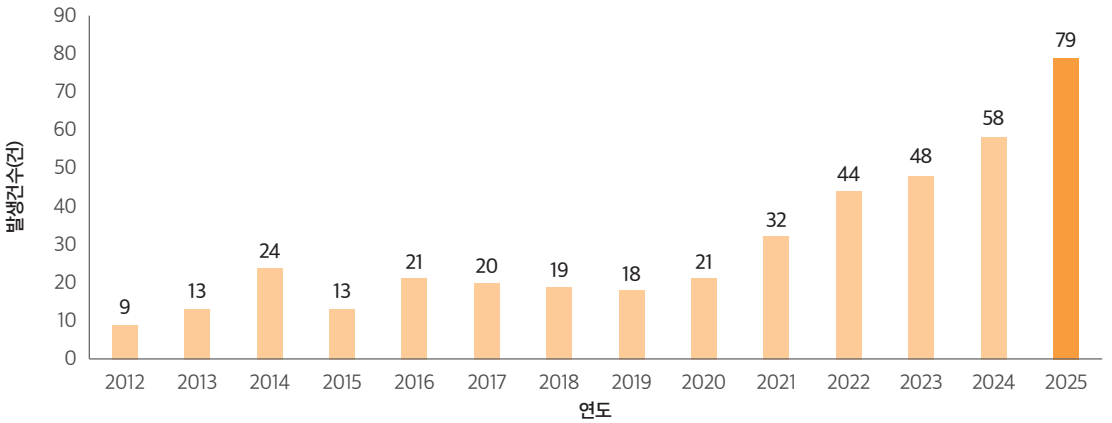
<그림 1> 2,600개 이상의 살모넬라 혈청형의 분류 체계

- 숙주 특이적 살모넬라: 살모넬라 갈리나룸(S. Gallinarum)과 살모넬라 풀로럼(S. Pullorum)이 대표적이며, 각각 가금티푸스와 추백리의 원인균이다. 닭에서 전신 감염을 일으키고 폐사와 생산성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 숙주 비특이적 살모넬라: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S. Enteritidis), 티피뮤리움(S. Typhimurium), 인판티스(S. Infantis) 등이 해당되며, 사람에게 식중독을 일으킨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두 번째 그룹인 숙주 비특이적 살모넬라이다. 식중독 살모넬라는 닭에서 대부분 뚜렷한 임상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 폐사도, 산란 저하 같은 이상 없이 계군 안에 조용히 머물러 있다가 계란과 닭고기를 통해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다. 즉, 닭이 건강해 보인다는 것이 살모넬라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농장에서 흔히 떠올리는 가금티푸스 관리와 식중독 살모넬라 관리를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하는 이유다.

국내 식중독 살모넬라 발생 현황

국내에서 살모넬라에 의한 식중독 사고는 증가하는 추세다. 그림2를 보면 2019년 18건이던 발생 건수가 2025년에는 79건으로 늘어난 만큼, 식중독 살모넬라 관리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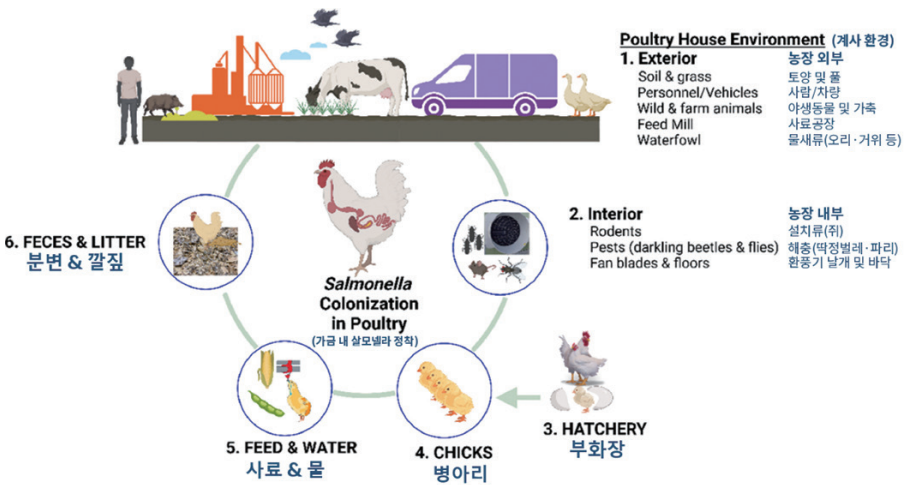


<그림 2> 2012-2025년 국내 살모넬라에 의한 연도별 식중독 발병 건수(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년 7월 31일 확정 통계 기준)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5년 8월에 배포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과 달리 원인균 가운데 살모넬라에 의한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살모넬라는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빠르게 증식하기 때문에 기온이 오르는 6월부터 분리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전체 식중독 환자 수의 약 50%가 7-9월에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살모넬라는 겨울철에도 꾸준히 분리되므로, 여름철에만 주의할 것이 아니라 연중 관리가 필요한 병원균이다.

살모넬라의 유입 경로

살모넬라가 농장으로 들어오는 경로는 매우 다양하다<그림 3>. 오염된 병아리와 사료, 음수는 물론 쥐와 해충, 야생 조류, 사람과 차량, 장비를 통해서도 유입될 수 있으며, 일단 들어온 균은 계군 내에서 수평 전파되고 종계를 통해 수직 전파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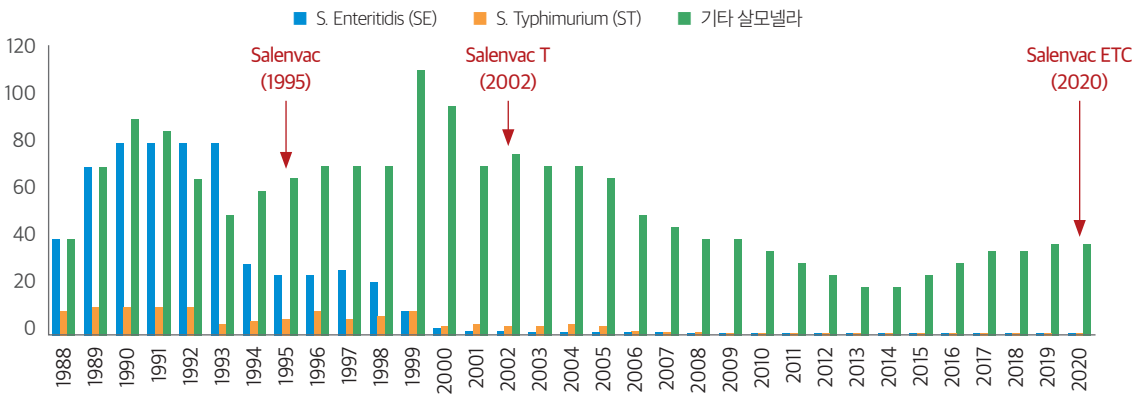
<그림 3> 살모넬라의 다양한 감염 경로(출처: Shaji et al., 2023)

이처럼 살모넬라가 유입되는 경로는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가지 조치만으로 식중독 살모넬라를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 엄격한 차단방역도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할 뿐 모든 유입을 완벽히 막아 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여러 관리 수단을 함께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의미 있는 차단방역과 철저한 세척·소독
- 설치류 및 해충 관리
- 장 건강 증진
- 백신 접종
- 살모넬라 음성 병아리 입식
- 사료와 음수의 위생 관리
- 운송 및 도계 단계 관리

또한 모든 살모넬라 혈청형에 따라 전파 양상, 농장 내 잔존 특성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농장에 어떤 혈청형이 있는지, 감염원이 어디인지 먼저 파악해야 그에 맞는 관리 전략을 세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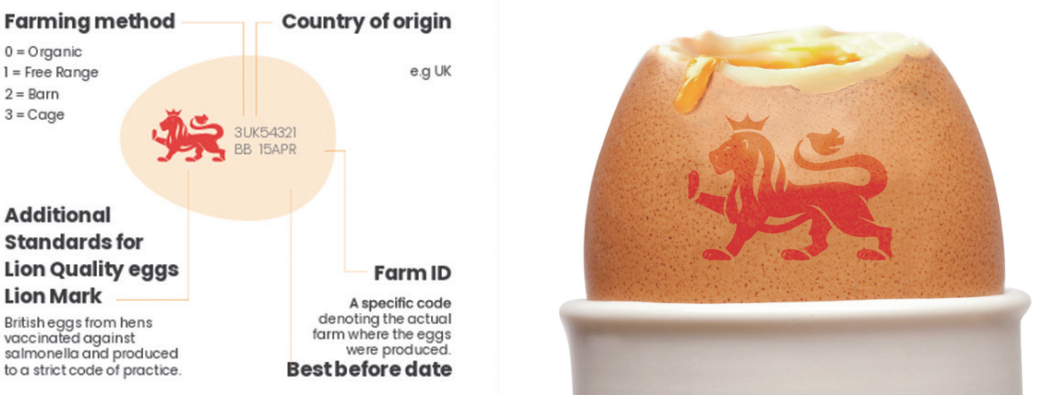
해외의 식중독 살모넬라 관리 방법



<그림 4> 1998-2020년 영국 닭에서의 살모넬라 양성률

(빨간색 화살표는 백신 도입 시기를 뜻하며, 1995년 SE 불활화 백신(Nobilis Salenvac), 2002년 SE와 ST 불활화 백신(Nobilis Salenvac T), 2020년 SE, ST, SI 백신(Nobilis Salenvac ETC)이 도입되었다.)

식중독 살모넬라를 먼저 겪은 나라들은 농장 단계의 종합 관리로 살모넬라 오염 수준을 크게 낮췄다. 영국은 1990년대 계란과 계육을 통한 SE 식중독이 급증했다. 이후 산란계에 이어 육용종계까지 백신 접종을 포함한 관리 조치를 확대하면서 닭의 살모넬라 양성률이 꾸준히 낮아졌고(그림4), 사람의 SE 감염 건수도 1997년 약 18,000건에서 2010년 459건으로 줄었다. 영국은 백신 접종이 의무는 아니지만, 계란 품질 인증 제도인 라이언 코드(British Lion Code)에서 백신 접종을 요구하면서 현재 영국 계란의 90% 이상이 백신을 접종한 닭에서 생산되고 있다<그림 5>.



<그림 5> 영국 계란산업협의회(BEIC)가 운영하는 품질 인증 제도인 라이언 코드의 인증 마크.
인증 계란을 생산하는 닭은 모두 SE와 ST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독일은 산란계의 SE 백신 접종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종계는 법적 의무가 아니지만 백신 접종이 정착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음성 병아리 입식과 정기적인 환경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육용종계에서 살모넬라 양성 계군의 비율은 2007년 약 10%에서 2023년 약 1%로 줄었다.

영국과 독일 두 나라의 공통점은 백신 하나에 기대지 않고 입식·출하 관리, 차단방역, 모니터링, 백신을 함께 운영했다는 것이다.

맺음말

지금까지는 계란과 닭고기의 살모넬라는 주로 유통 단계의 검사로 관리해 왔다. 그러나 검사는 오염된 제품을 걸러낼 수는 있어도 오염 자체를 줄이지는 못한다. 식중독 살모넬라는 닭에서 증상이 거의 없어 놓치기 쉽고, 유입 경로가 다양하며, 계절에 관계없이 분리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농장 단계의 관리가 함께 이루어질 때 더 효과적으로 살모넬라를 줄일 수 있다.

농장 단계의 관리는 살모넬라의 유입을 막고, 만약 유입되더라도 계군 안에서 퍼지지 않도록 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서는 차단방역, 농장 위생, 주기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백신 접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에서도 식중독 살모넬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금의 관리 방식을 한 번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농장에서 쌓아 온 관리가 소비자가 믿고 찾는 안전한 계란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2026~2027년 동절기 AI 방역대책, 무엇이 달라졌나

행정명령·방역기준 전년 대비 비교… 농가 출입통제부터 자체방역관리까지

동절기 방역대책, 건수보다 달라진 내용을 봐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동절기를 앞두고 정부가 가금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과 농장 간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

이번 동절기 방역대책은 축산차량의 거점소독시설 소독, 가금농장 내 차량 진입 제한, 산란계 밀집지역의 알 운반차량 통제, 분뇨 반출 제한 등 기존의 주요 차단방역 조치를 이어가는 한편, 외부 인력의 농장 출입관리와 농장 자체방역관리기준 점검을 통해 현장 이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2026~2027년 동절기 시행계획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11건, 방역기준 공고는 9건이다. 전년도인 2025~2026년 동절기에는 당초 행정명령 11건과 방역기준 공고 8건으로 시작했으나, 이후 산란계 노계 출하 제한과 발생 관련 방역지역 내 중추 이동 제한 등의 조치가 추가되면서 각각 13건과 11건으로 운영됐다.

이처럼 전년과 올해의 조치 건수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를 방역 수준의 단순한 완화나 강화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전년도에는 겨울철 발생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인 산란계 노계 출하 및 중추 이동 제한이 추가됐으며, 이번에는 가금농장 자체방역관리기준 점검표 작성·보관 의무가 방역기준 공고에 포함됐다. 일부 조치는 행정명령과 방역기준 공고 사이에서 분류가 달라진 만큼, 항목 수뿐 아니라 실제 적용 대상과 준수사항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1> 동절기 AI 방역대책 전년 대비 개요

구분	2025~2026년 동절기	2026~2027년 동절기
행정명령	당초 11건, 이후 13건으로 확대	11건
방역기준 공고	당초 8건, 이후 11건으로 확대	9건
운영기간	2025년 9월 22일~ 2026년 2월 28일, 이후 연장 조치	2026년 10월 1일~ 2027년 2월 28일 (발생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주요 방향	차량·사람 출입통제, 농장 간 전파 차단, 발생 상황별 추가 제한	기존 차단방역 유지, 외부 인력 관리 및 자체방역 점검 강화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공고 시행계획

이번 대책에서 농가가 우선 확인해야 할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농장에 진입할 수 있는 차량과 진입할 수 없는 차량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둘째, 백신접종팀과 상하차반 등 외부 인력의 출입 전 신고 및 방역수칙 준수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셋째, 농장 출입기록과 소독필증 관리뿐 아니라 자체방역 관리기준 점검 결과를 기록·보관하는 등 일상적인 방역관리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차량 소독과 농장 진입통제, 기본 원칙은 유지

동절기 방역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조치는 축산차량의 소독과 농장 내 진입통제다. 이번 대책에서도 시설출입차량은 가금농장이나 가금류 관련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하기 전에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하고 소독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거점소독시설에서는 차량 바퀴와 하부뿐 아니라 운전석 등 차량 내부도 소독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장 방문 시에는 소독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차량이 농장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계란 수집을 위해 농장 입구 인근의 환적장소까지만 방문하는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거점소독시설 소독과 소독필증 발급이 필요하다. 차량이 농장 안으로 진입했는지만으로 소독 의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농장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차량도 제한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가축·사료·분뇨·깔짚 운반차량과 방역 관련 차량 등 허용된 차량을 중심으로 농장 진입을 관리하고, 알 운반차량과 난좌 운반차량, 동물약품 운반차량, 택배·우편 차량, 상하차 작업을 위한 인력운송 차량 등은 원칙적으로 농장 내부 진입을 제한한다. 불가피하게 허용된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에도 농장 관계자의 관리 아래 차량 내·외부 소독과 출입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산란계 농가에서는 알 운반차량의 상차 장소 관리가 중요하다. 알 운반차량은 농장 내부로 진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알 상차를 위해 농장 출입구 인근에 마련된 구획 장소까지 접근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이때에도 차량은 소독이 가능한 거리에서 관리돼야 하며, 상차 장소는 농장 내부 차량·장비와 외부 알 운반차량이 최대한 교차하지 않도록 구획해야 한다. 상차 작업에 사용하는 농장 내 기자재와 장비, 차량도 작업 전후 소독해야 한다.

<표 2> 차량 출입·소독 관련 농가 확인사항

확인 항목	주요 준수사항
거점소독시설	가금농장·관련 시설 방문 전 소독 및 소독필증 발급
소독 범위	차량 바퀴·하부 및 운전석 등 내부 소독
농장 내부 진입	허용된 차량만 진입, 농장 관계자 관리 아래 소독 및 방역수칙 준수
알 운반차량	농장 내부 진입 제한 원칙, 예외적인 상차 장소 접근 시 구획·소독 관리
소독필증	농장 진입 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접근 시 확인·보관

차량 출입통제는 단순히 농장 안으로 들어오는 차량의 숫자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외부 차량과 농장 내부의 장비·인력 동선이 겹치는 상황을 줄이고, 차량을 통해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농장에서는 출입 가능 차량을 사전에 안내하고, 알 상차 장소와 차량 소독시설의 운영 상태를 점검하는 등 실제 작업 과정에서 통제 원칙이 지켜지도록 관리해야 한다.

산란계 밀집지역·분뇨·사료 운반차량 관리

이번 동절기에도 산란계 밀집단지의 알 운반차량 진입 제한과 산란계·메추리 농장의 분뇨 반출 제한 등 농장 간 전파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이어진다. 여러 농장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차량 한 대가 복수 농장을 방문하거나, 분뇨·기자재 등을 통해 오염원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농장별 차단방역만으로는 위험을 충분히 줄이기 어렵다.

산란계 밀집단지에는 외부 알 운반차량의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적용된다. 알 운반차량은 단지 외부의 지정된 장소에서 알을 인계받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하며, 구체적인 장소와 이동 동선은 해당 지역의 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밀집지역 내 농장과 외부 차량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농장 간 차량 이동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분뇨 관리도 중요한 방역 항목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에서 발생한 분뇨를 일정 기간 보관한 뒤 반출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조기 반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검사 등 정해진 절차를 따르도록 한다. 시·도 간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의 이동도 제한 대상이다. 분뇨는 농장 밖으로 이동한 뒤 여러 시설과 차량을 거칠 수 있어, 반출 시점과 운반 경로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계·종오리 농장에서는 지대사료 운반차량의 진입 제한도 확인해야 한다. 농장 내 축사와 떨어진 별도 창고가 있거나, 축사 내부의 사육공간과 구획·차단된 공간이 마련된 경우에는 관련 조건에 따라 소독 후 진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이는 사료 공급을 전면 중단하기보다 사료차량과 사육공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줄이면서 방역 위험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표 3> 농장 유형·작업별 주요 이동 제한

대상	주요 조치	농가가 확인할 사항
산란계 밀집단지	외부 알 운반차량 진입 제한	단지 외부 인계 장소와 차량 동선
산란계·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및 보관기간 준수	반출 시점, 불가피한 조기 반출 절차
분뇨 운반차량	시·도 간 이동 제한	운행지역과 이동 제한 적용 여부
종계·종오리 농장	지대사료차량 진입 제한	별도 창고·구획 공간 및 소독 조건

이번 대책에는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사이에서 파레트·합판·왕겨살포기 등 축산 도구와 기자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같은 법인에 속한 농장이라도 서로 다른 농장의 기자재를 공유하면 오염원이 농장 간에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장별로 장비를 구분해 사용하고, 불가피하게 장비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작업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이번 방역대책은 차량 이동만 통제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알 상차, 분뇨 반출, 사료 공급, 기자재 사용 등 농장 운영에 필요한 작업별로 전파 위험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농가는 각 조치의 적용 대상과 예외 조건을 확인하고, 작업자와 운송업체에도 해당 내용을 정확히 안내해야 한다.

외부 인력 출입, 사전 신고와 방역수칙 준수

가금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관리도 주요 방역사항이다. 백신접종팀과 상하차반, 가축 진료인력, 컨설팅·인공수정 인력, 동물약품업체 관계자, 계열화사업자 소속 직원, 농장 시설공사 인력 등은 작업 특성상 여러 농장을 방문할 수 있다. 이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오염원이 농장 간에 전파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외부 인력의 출입을 제한하고 사전 신고와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동절기 계획에서는 백신접종팀과 상하차반의 경우 농장 진입 전에 사전 신고하고, 방역수칙 준수 및 서약서 제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농장 출입 시에는 방역복과 신발 또는 덧신을 착용하고, 농장 및 축사 진입 전 손과 신발을 소독하는 등 정해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농장 외부에 차량을 주차하고, 농장 내에서 사용한 방역복과 덧신 등의 처리 및 사용 도구의 소독도 철저히 해야 한다.

농장에서는 외부 인력의 출입 목적과 방문 일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출입자 명단과 신고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정부 계획에 포함된 신고 접수대장은 시·군·구에서 접수 내역을 작성·보관하는 용도로 활용되며, 농장에서도 작업자와 방문 일정,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가축 처분 인력의 출입도 목적에 따라 제한된다. 가축 처분을 위해 발생농장에 투입된 인력은 가축 처분 이외의 목적으로 다른 농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조치가 방역기준 공고에 포함됐다. 발생농장에서 작업한 인력이 다른 농장에 곧바로 방문할 경우 오염원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관련 작업을 수행하는 업체와 인력은 작업 종료 후 이동 및 소독 절차를 확인하고, 농장에서도 외부 작업자의 방문 목적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표 4> 외부 인력 출입 시 확인할 사항

단계	주요 확인사항
출입 전	농장 진입 전 사전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농장 진입	방역교육 및 서약서 제출 여부 확인, 차량은 농장 외부에 주차
농장·축사 출입	새 방역복·신발 또는 덧신 착용, 손·신발 소독
작업종료	사용한 방역복·덧신 처리, 의복·손·신발·도구 소독
출입기록	출입자 명단, 신고 내역 및 작업 목적 관리

농장에서는 외부 인력의 출입을 작업 당일에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사전 신고부터 작업 종료 후 관리까지 절차를 일관되게 운영해야 한다. 특히 백신접종과 상하차 작업은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인 만큼, 작업 일정과 방역절차를 미리 조율해 방역수칙이 형식적으로 이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방역기준 공고, 자체 점검과 기록관리 강화

이번 동절기 방역기준 공고에서 주목할 부분은 10만 수 이상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한 자체방역관리기준 점검표 작성·보관이다. 해당 농장은 점검표에 따라 주 1회 이상 자체방역관리기준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해 최소 3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는 농장 내 차단방역시설과 운영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는 조치다.

점검표에는 출입구 통제와 방문자 기록, 축산차량 출입기록 및 소독필증 확인·보관, 울타리와 출입문 상태, CCTV 작동 여부, 차량 소독시설 운영, 소독약 희석배율 및 유효기간 확인, 전실에서의 장화 교체와 손 소독 등이 포함된다. 야생조류 차단망과 축사·퇴비장 틈새 확인, 알벨트 덮개와 바닥 청소, 구서 활동, 사료빈 주변 관리, 폐사·산란율·사료 및 음수 섭취량 변화 등 질병 예찰 항목도 확인하도록 구성돼 있다.

외부 인력 관리 항목에는 백신접종팀·상하차반의 출입 전후 소독, 인력운송차량의 농장 미진입, 사전 신고 이행, 외부 인력 전용 장화·방역복 착용,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등이 포함된다. 농가는 점검표에 서명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현장을 확인하고, 미흡사항이 발견되면 개선조치와 완료 여부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표 5> 10만 수 이상 산란계 농장 자체방역관리 점검 주요 항목

관리 분야	주요 점검내용
출입관리	출입구 통제, 안내판 설치, 방문자·차량 출입기록
시설관리	울타리·출입문 상태, CCTV 정상 작동 및 30일 이상 영상기록 저장
소독관리	차량 소독시설, 소독약 희석배율·유효기간, 발판소독조 관리
출입자관리	전실 이용, 장화 교체, 작업복·방역복 착용, 손 소독
야생동물 차단	차단망·틈새 확인, 알벨트·바닥 청소, 구서 활동

관리 분야	주요 점검내용
질병 예찰	폐사 증가, 산란율 변화, 사료·음수 섭취량, 활력 저하
외부 인력	사전 신고, 출입 전후 소독, 전용 장화·방역복, 서약서

점검 결과는 최종 기재일로부터 3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농가는 점검표를 정해진 주기에 따라 작성하고, 기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음수 섭취량 감소, 활력 저하 등 AI 의심 증상이 확인될 경우에는 신속한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

이번 방역기준 공고에 따른 위반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고병원성 AI 발생 시 위반 항목별로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 정부 자료는 방역기준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와 보상금 감액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농가는 적용 대상과 구체적인 처분 기준을 실제 확정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자체방역 점검은 방역시설을 갖추었는지만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다.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작업자가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지, 문제가 발견됐을 때 개선조치가 이뤄졌는지까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기록과 현장 점검이 연결될 때 방역기준이 일상적인 관리체계로 정착할 수 있다.

전년 대비 달라진 조치와 농가의 대응 방향

2025~2026년 동절기와 비교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행정명령 및 공고의 건수와 일부 계절성 조치의 구성이다. 전년도에는 동절기 기본 조치 외에 산란계 노계 부분 출하 제한과 고병원성 AI 발생 관련 방역지역 내 산란계 중추 이동 제한이 추가됐다. 해당 조치들은 2026년 3월까지 연장됐으며, 발생 상황에 따른 확산 방지와 농가 간 이동 통제에 초점을 맞춘 한시적 조치였다. 이번 2026~2027년 동절기 기본 시행계획에는 이 두 조치가 포함돼 있지 않다.

전년도에 이어 이번 2026~2027년 동절기에도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된다. 정부 시행계획에는 해당 행정명령이 포함돼 있으며,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적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시행기간은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농가는 관할 지자체의 공고와 후속 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반면 이번 방역기준 공고에는 10만 수 이상 산란계 농장의 자체방역관리기준 점검표 작성·보관이 명시됐다. 전년도 방역기준 공고에는 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농기계 외부 보관,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부출입구 출입통제,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출입 금지,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 금지 등 주요 조치가 포함돼 있었다. 이번에도 이러한 핵심 방역기준은 이어지며, 자체 점검과 기록관리 항목이 추가돼 농장 내부의 상시 관리체계를 강조하고 있다.

<표 6> 전년 대비 주요 변경·유지사항

구분	2025~2026년 동절기	2026~2027년 동절기 계획	검토할 점
행정명령 건수	당초 11건, 이후 13건	11건	건수보다 개별 조치의 적용 여부 확인
방역기준 공고 건수	당초 8건, 이후 11건	9건	신규 점검·기록 항목 확인
노계 부분 출하 제한	발생 상황에 따라 한시적 시행·연장	기본 시행계획에는 미포함	발생 상황에 따른 별도 명령 여부 확인
방역지역 내 중추 이동 제한	발생 관련 한시적 조치로 시행·연장	기본 시행계획에는 미포함	지역별 이동 제한 공고 확인
방사사육 금지	전년도 행정명령 목록에 포함	기본 시행계획에 포함	시행기간 및 대상 농가 확인
자체방역관리 점검표	전년도 기본 공고 목록에 별도 항목 없음	10만 수 이상 산란계 농장 대상 작성·보관	주 1회 이상 점검, 3개월 이상 기록 보관
차량·사람 출입통제	주요 차단방역 조치 시행	주요 조치 유지	출입가능 차량·외부인력 관리 재점검

이번 동절기 방역대책은 기존의 차량·사람 출입통제와 소독 원칙을 유지하면서, 농장 내부의 방역관리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농가에서는 행정명령과 방역기준 공고를 각각 확인하고, 차량 출입과 외부 인력 작업, 알 상차, 분뇨 반출, 기자재 관리 등 실제 운영 과정에 적용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특히 10만 수 이상 산란계 농장은 자체방역관리기준 점검표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주 1회 이상 점검과 기록 보관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농장 내 출입구와 소독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외부 차량과 농장 내부 장비의 동선 분리, 작업자 출입기록 관리 등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동절기 방역은 행정명령을 준수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농장에 들어오는 차량과 사람이 어떤 경로로 이동하는지, 작업 과정에서 농장 간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지, 방역수칙이 실제로 이행되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농가별 사육환경과 작업 여건은 다르지만,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줄이고 의심 증상을 조기에 발견한다는 기본 원칙은 같다. 정부의 방역대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농장 현장의 관리 절차에 반영하는 것이 이번 동절기에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첫 검출… 전국 위기경보 '심각' 상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이하 '기후부')는 지난 10월 12일 전남광주 순천시 순천만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정밀검사한 결과, 10월 20일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최종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검출은 올 동절기 국내 야생조류에서 확인된 첫 고병원성 AI 사례다. 특히 9월 이후 겨울철새의 국내 도래가 시작된 가운데 해외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 AI 검출이 증가하고 있어 국내 유입과 확산 위험이 높아진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10월 20일 전국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하고, 범정부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했다. 전국 지방정부에도 대책본부 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로 전환하였다.

검출 지점 반경 10km 이내에서 사육하는 가금에 대해서는 이동통제와 정밀검사, 전화예찰을 실시한다. 특히 순천만 수변 3km 이내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전국 가금농장과 축산관계시설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기후부도 검출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 야생조류 폐사체 수색과 철새 정밀조사 등 특별예찰을 강화하고, 관할 지방정부에 현장 소독과 출입통제 등 긴급 방역조치를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가금농가와 축산관계자에게 외부 사람과 차량의 농장 출입을 차단하고 농장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는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폐사 증가나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되면서 농장에서 발생할 위험이 커진 상황"이라며 "가금농가와 축산 관계자분들은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야생동물 농장 내 유입 방지 강화 방안(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겨울철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특별방역대책점검회의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15일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를 비롯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특별방역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올해는 해외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AI 발생이 전년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하였고, 국내 일부 철새도래지에서도 오리와 조류 개체 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 바이러스 유입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고위험지역과 농장을 중심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겨울철 고병원성 AI 발생 62건 가운데 31건이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해 대형 산란계 농장과 밀집단지의 사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올해 새롭게 추가 도입되는 '대형 산란계 농가 출입 인력·차량 사전등록제'의 현장 운영 상황도 점검했다. 대형 산란계 농장은 인력·차량 사전등록을 거쳐 거점소독시설, 농장통제초소, 농장으로 이어지는 4단계 방역체계를 적용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에 축산농가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야생조류 예찰과 고위험지역 소독, AI 항원 검출 및 의심축 신고 시 초동대응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산발적으로 발생 중인 구제역에 대해서도 발생농장 인근 소독과 백신접종 관리를 강화하고, 중국과 몽골에서 발생한 SAT1형의 국내 유입 차단에도 유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겨울철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과 농가가 모두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라며, "농식품부는 지방정부·관계기관과 함께 위험요인을 촘촘히 관리하고 현장 취약 요인을 신속히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축산농가에서도 내 농가를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소독·손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

AI 진단기관 58개소 숙련도 평가 모두 '적합'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다가오는 겨울철 특별방역대책기간('26.10~'27.2)에 대비해 8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41개소와 민간 가축병성감정기관 17개소 등 총 5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단 교육과 숙련도 평가를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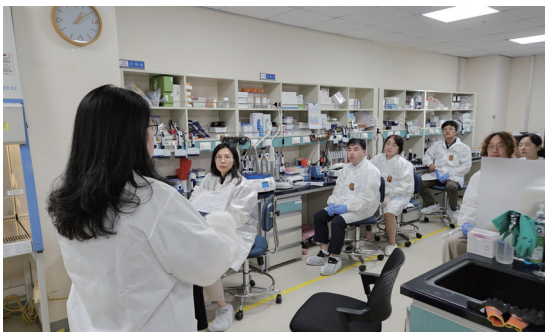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은 의심 시료가 접수되면 항원·항체 검사를 통해 바이러스 감염 여부와 H5·H7형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유전자 분석으로 고병원성 여부를 최종 판정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시도 가축방역기관은 현장에서 신속한 초기 진단을, 검역본부는 고병원성 여부 최종 판정 등 확인검사를 수행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실제 진단 흐름에 맞춰 조류인플루엔자 진단 체계, 예찰 등에 대한 이론 강의와 함께, 현장에서 필요한 실시간 유전자 검사법(rRT-PCR), 혈구응집억제반응검사법(HI)의 실습이 이루어졌다. 이어 해당 진단법에 대해 평가용 시료를 배부하고 제출된 검사 결과를 토대로 진단의 숙련도를 평가했으며, 그 결과 모든 기관이 '적합' 판정을 받아 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입증했다.

아울러, 이번 교육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과정을 실시간으로 입력하고 조회할 수 있는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내 '상시예찰시스템'의 개선 내용을 소개하여 일선 방역기관이 지역별 예찰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진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검역본부 이윤정 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장은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심축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며, "이번 교육과 평가를 비롯해 앞으로도 민·관 진단기관의 진단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맞춤형 AI 업무 기준으로 축산 스마트 행정 속도 낸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수진)은 10월 13일 세종 본원에서 '2026년도 제3회 AX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기반 행정 혁신을 위한 주요 과제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공공부문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라인에 맞춰 기관 업무 특성에 부합하는 '인공지능 도입 및 운영 업무 규정(안)'을 검토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기관 업무 특성에 맞는 인공지능 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기술 발전과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부서별 AX 핵심 과제의 추진 실적과 예산 현황을 공유하고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향후 예산 편성 방향성도 선제적으로 논의했다.

현재 진행 중인 '데이터 거버넌스 및 AX 정보화전략 수립 컨설팅'의 추진 경과도 점검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데이터의 품질·무결성·보안 등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기관 업무·시스템을 분석해 △AI 과제 도출 △중장기 목표 모델 설계 △AX 전략 및 통합 이행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수진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이번 업무 규정 마련과 실적 점검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AX 과제 추진을 통해 국민과 축산 종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일보(26.10.13.)

“[사설] 수입계란에 1,200억, 산란계 농가엔 10억… 땜질 언제까지”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계란이 진열돼 있다. 뉴스1

정부가 한 판에 4만 원가량을 들여 수입한 브라질산 계란을 대형마트에서 5,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하도록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아무리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라 해도, 필수재도 아닌 계란을 이렇게 턱없이 비싼 비용을 들여 수입하는 건 과도한 혈세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올 들어 해외에서 수입한 계란은 9월까지 총 1억3,324만 개다. 작년 겨울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국내 계란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치솟자 수입으로 가격 안정화에 나선 것이다. 주 수입원인 미국산(1억2,578만 개) 물량이 달리자 태국(562만 개) 브라질(112만 개) 등에서도 수입을 늘렸다.

문제는 터무니없이 높은 수입비용이다. 브라질산의 개당 수입가격은 1,300원으로 한 판(30개)에 3만9,000원이다. 미국산(개당 464원)의 2.8배, 태국산(305원)의 4.3배다. 브라질산 계란의 산지가격은 개당 100원 안팎이지만, 항공 운송과 냉장 유통·검역 등의 비용이 ‘배보다 훨씬 큰 배꼽’을 만들었다.

정부는 이렇게 수입한 계란을 지난 7, 8월 대형마트에서 한 판에 4,980원에 판매하도록 지원했다. 수입가격의 8분의 1 수준이다. 가격 차이는 축산발전기금 등 정부 재정으로 메웠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이렇게 정부가 올해 계란 수입에 투입한 예산이 1,200억 원에 달한다. 반면 최근 9년간 국내 산란계 농가 시설 직접보조금은 97억 원이다. 1년에 고작 10억 원꼴이다.

농가의 근본적 경쟁력 지원 없이 땜질 대책에만 재정을 쓰는 건 허공에 돈을 뿌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2021년 AI 파동 당시에도 수입 계란 지원에 1,000억 원이 넘는 재정을 썼다. 다른 농축산물도 비슷하다.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은 2022년 1,068억 원에서 지난해 2,250억 원으로 늘었다. 가격이 오를 때마다 재정을 투입해 해외에서 수입해 할인해주는 구조가 반복되니 국내 농가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진다. 다음 위기에는 더 많은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악순환이다.

한국일보 webmaster@hankookilbo.com

팜인사이트(26.10.16.)

“李대통령, X 통해 ‘브라질 계란 800억 낭비설’ 직접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15일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를 통해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불거진 ‘브라질산 계란 특혜 수입 논란’에 대해 직접 팩트 체크에 나서며 정면 반박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엄정 대응을 경고했으나, 한편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해명 창구로 등판해야 할 만큼 농림축산식품부의 계란 수급 예측 실패와 무리한 고비용 수입 행정이 큰 정책적 부작용과 사회적 혼선을 낳았다는 반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X에 올린 글에서 “현 정부가 브라질 정상회담을 위해 브라질산 계란을 개당 1,300원에 사는데 800억 원을 낭비했고, 이는 미국산(464원)·태국산(305원)보다 3~4배 비싸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산 달걀의 순수 물품 매입 가격은 시중가격 수준인 개당 178원 정도였으며, 지구 반대편에서 신선란을 공수하는 장거리 항공 운송비 등 부대비용이 소요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부 답변 자료에 따르면 30개들이 한 판 기준 물품대는 5,330원인 반면, 긴급 항공운임은 28,783원에 달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물량은 전체 수입 물량의 0.8%(약 112만 개)에 불과하며, 총수입 비용은 16억 원 정도였다”라며 “여름철 국내 공급 부족과 기존 수출국의 물량 부족 상황에서 대체 수입선을 사전 확보하기 위한 소량의 시험 수입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판매가격은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개당 약 140원으로 낮춰 공급했다며, “정상회담 특혜 운운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정책당국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숫자를 짚어가며 해명에 나섰지만, 비판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야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계란 한 판당 물품대(5,330원)보다 5배가 넘는 항공운임(28,783원)을 세금으로 보전하면서까지 계란을 공수한 것 자체가 사전에 국내 수급량을 제때 관리하지 못한 ‘탁상행정’이자 ‘졸속 대책’이라는 것이다.

한 축산유통 전문가는 “수입선 다변화의 취지는 인정하더라도, 신선란을 남미에서 막대한 항공료를 치르며 들여온 뒤 할인 공급하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이미 이전 정부에서도 같은 논란을 일으킨바 있는데도 국내 산란계 농가 지원이나 사전 공급망 관리 대신 땜질식 고비용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불필요한 특혜 시비와 국민적 불신을 자초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팩트체크로 ‘800억 낭비설’의 수치상 오류는 규명되었으나, 농식품부의 수급 실책과 정책 집행 적절성을 둘러싼 공방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김재민 기자 farmtable5@daum.net

뉴시스(26.10.18.)

"'달걀 자가품질검사' 살모넬라균 검사 의무된다[식약처가 바꾼다]"

최근 전북 김제 지평선축제에서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 일부에게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면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확한 감염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살모넬라균은 달걀과 달걀을 사용한 식품에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원인균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10년 간 살모넬라 식중독이 크게 늘면서 살모넬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의무화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달걀의 살모넬라 자가품질검사 의무화는 올해 식약처가 추진하는 '식의약 안심 60대 과제' 중 하나다. 식약처는 달걀 유통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가축사육시설별로 수집하는 달걀에 대해 6개월마다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12월부터는 식용란선별포장영업자도 자신이 직접 처리한 달걀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부과된다. 현행 검사 항목은 항생제 17종과 농약 5종으로 잔류물질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살모넬라는 포함돼 있지 않다.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식중독 가운데 살모넬라 식중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9%에서 2024년 21.9%로 증가했다. 달걀 사용 식품에서 식중독 발생 건수도 2015년 2건에서 2024년 11건으로 늘었다.

이에 식약처는 부적합 달걀 유통에 따른 살모넬라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살모넬라균을 검사항목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달걀의 잔류물질뿐 아니라 살모넬라균 오염 여부까지 확인하도록 검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달걀이 유통될 위험을 줄이고, 달걀을 사용한 식품에서 발생하는 식중독 발생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체 식중독 발생 환자 가운데 달걀에 기인한 환자 비중은 약 13.1%로 추정했다.

식약처는 "유통 달걀에 대한 살모넬라 안전관리로 소비자 안전 확보, 달걀사용 식품에 의한 식중독 발생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달걀에 대한 살모넬라 안전관리 강화로 부적합 달걀 회수·폐기와 소비자 반품에 따른 영업 손실 감소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song@newsis.com

식품저널(26.10.21.)

“10명 중 8명 “브라질산 계란 수입 부적절””



브라질산 신선란. 사진=aT

정부가 계란 수급 안정을 명분으로 추진한 브라질산 계란 시범 수입에 대해 10명 중 8명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원가 대비 낮게 설정된 공급가로 인한 재정 투입 논란에 더해, 수급 안정이나 외교적 실익이 없다는 회의론이 지배적이다.

개혁연구원이 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 현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브라질산 계란 수입에 대해 응답자의 78.6%가 ‘부적절했다’(매우 부적절 70.4%, 대체로 부적절 8.2%)고 답했다. ‘적절했다’는 응답은 16.2%(매우 적절 10.3%, 대체로 적절 5.9%)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항공운송비와 관세를 포함해 30개 한 판당 약 4만 4,000원인 수입 원가의 브라질산 계란을 국내에 한 판당 약 4,300원에 공급한 시범 수입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브라질산 계란 수입이 한국과 브라질 간 관계에서 외교적 가치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76.0%가 ‘가치가 없다’고 평가했다. ‘가치가 있다’는 응답은 18.5%에 불과했다.

향후 계란 공급 부족 시 수급 안정 효과에 대해서도 74.1%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했으며, 반면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응답은 22.8%에 머물렀다.

정부가 앞으로 계란 공급 부족에 대비해 우선해야 할 정책 방향으로는 81.2%가 ‘국내 계란 생산기반 강화’를 꼽았다. ‘해외 계란 수입선 확대’를 선택한 응답은 10.8%에 그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입산을 지원하기보다 국내 양계산업의 체질 개선과 생산기반 보호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압도적이었다.

이번 조사는 개혁연구원이 무선 RDD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2%p, 응답률은 1.85%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운송비 등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감에도 브라질산을 시범 수입한 것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시 계절이 반대인 남반구에 안정적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며, “앞으로도 국내 계란 수급상황과 수입 필요성, 국가별 공급 안정성, 운송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AI 방역 강화, 산란계 농가 시설 현대화, 수급관리 고도화 및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대일 기자 kdi@foodnews.co.kr

미국

미국 계란업계, HPAI·살모넬라 이중 위협 직면



미국 계란업계가 가을철 철새 이동기를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위험이 지속되는 가운데, 계란과 연관된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Salmonella Enteritidis) 발생 증가라는 또 다른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오스카 개리슨 미국계란생산자연합(UEP) 수석부회장은 지난 9월 28일 열린 조지아 산란계 콘퍼런스에서 최근 30일간 HPAI 확진 사례 20건이 발생해 50만 수 이상의 가금류가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2건은 상업용 가금농장에서 발생했다.

야생조류에서도 HPAI 검출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30일간 미국 어류·야생동물관리국이 실시한 3,188건의 검사에서 130건이 양성으로 확인됐으며, 가을철 철새 이동이 계속되면서 미국 남부 지역과 태평양 철새이동경로에서도 추가 검출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 계란업계는 HPAI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차단방역을 강조하고 있다. UEP와 미국계란위원회(AEB)로 구성된 HPAI 워킹그룹은 백신 접종 전략과 시범사업안을 제출했지만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다. 개리슨 부회장은 백신 도입에 따른 교역 문제와 육계부문의 수출시장 위축 우려 등으로 미국 농무부(USDA)가 관련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계란과 관련된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 발생 증가도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개리슨 부회장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024년 위스콘신에서 93명, 2025년 캘리포니아에서 229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2026년에도 텍사스·캘리포니아·버몬트 등에서 133명의 환자가 확인됐다.

UEP와 AEB는 최근 살모넬라 발생과 계란 리콜 증가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태스크포스 구성을 추진하는 한편, 소규모 계란 생산자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

개리슨 부회장은 "계란은 개별 브랜드보다 전체 품목으로 인식되는 만큼 특정 농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계란산업 전체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선제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출처: https://www.wattagnet.com/

미국

미국, 계란가격 20년 만에 최저 수준…사료비 상승 압박



미국 계란가격이 지난해 사상 최고 수준에서 올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준으로 최근 20년 중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가운데, 사료비 상승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생산자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28일 조지아 산란계 콘퍼런스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8월 미 중서부 지역 창고 인도 기준 대란 평균가격은 12개당 약 81센트로, 물가를 반영한 최근 20년 평균인 1.31달러보다 38% 낮았다. 이는 고병원성 AI와 높은 수요로 계란가격이 급등했던 2025년과 대조적인 흐름이다.

아이오와주립대 계란산업센터의 마로 이바르부루 연구원은 세척·포장·운송비 등을 제외한 생산자 수취가격이 올해 4개 권역 평균 12개당 약 48센트로 추정된다며, 이는 생산비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사료비 상승 가능성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사료비는 계란 생산비의 약 54%를 차지해 왔다. 미국 농무부(USDA)는 내년 옥수수 가격이 16%, 대두박 가격이 5%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란계 사료비도 약 8%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가격 약세는 일반 계란뿐 아니라 가공용 계란 시장에서도 나타났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계란의 약 70%는 일반 계란으로 판매되고, 나머지 30%는 액란·냉동란·건조란 등으로 가공된다. 1~8월 가공용 계란 평균가격은 12개당 16센트로 최근 20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액상 전란 가격도 파운드당 16센트로 크게 하락한 반면, 건조 전란은 장기 보관이 가능한 특성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했다.

한편 미국의 케이지프리 전환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자료 기준 케이지프리 산란계는 약 1억 5,100만 수로 전체의 약 48%를 차지했다. 업계는 2030년 케이지프리 비중이 약 55%, 2035년에는 약 6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계란산업은 케이지프리 전환이라는 장기적인 구조 변화와 함께, 지난해 고가격 국면에서 올해 생산자 수취가격이 생산비를 밑도는 시장 상황에도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출처: https://www.wattagnet.com/

미국

미국, 케이지프리 전환 확대… 외부기생충 위험 증가



미국에서 산란계의 케이지프리 및 야외 사육 전환이 확대되면서 기존 사육 방식에 비해 다양한 외부기생충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북방가금진드기는 모든 사육 형태에서 여전히 가장 큰 문제로 꼽히지만, 닭진드기와 빈대, 이 등 다른 외부기생충도 함께 확인되고 있다.

캘리포니아대 리버사이드의 에이미 무릴로 곤충학과 부교수는 지난 9월 조지아 산란계 콘퍼런스에서 케이지프리 사육시설은 구조가 복잡하고 야생조류와의 접촉 가능성도 높아 기생충이 유입돼 정착·증식하기 쉬운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무릴로 연구팀은 차단방역 등의 이유로 상업농장 접근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케이지프리 사육을 대신해 소규모 방사·방목 계군을 조사했다. 그 결과 6종의 이와 벼룩, 다리진드기, 북방가금진드기, 닭진드기 등 다양한 외부기생충이 확인됐으며, 일부 개체에서는 여러 종류의 기생충이 동시에 발견되기도 했다.

상업용 산란계 농장에서는 북방가금진드기가 여전히 가장 큰 피해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진드기는 주로 총배설강 주변에서 생활하며 흡혈하고, 알에서 성충까지 5~10일 만에 성장해 개체수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 감염이 심할 경우 빈혈과 산란율 저하, 사료효율 저하, 피부 병변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한 상업농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진드기 감염으로 10주 동안 산란계 한 마리당 7~10센트의 수익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계란 12개당 이익이 약 7센트였던 점을 고려하면 진드기 감염이 농가 수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케이지프리 사육 확대에 따라 닭진드기와 빈대처럼 사육환경에 서식하는 외부기생충 관리도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기생충은 산란상자나 횃대 틈 등에 숨어 있다가 야간에 흡혈하며, 특히 빈대는 닭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흡혈할 수 있어 농장 내 확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출처: https://www.wattagnet.com/



프랑스

프랑스 계란업계, 수요 증가에 생산기반 확대 지원 요구



프랑스에서 계란 소비가 빠르게 늘면서 생산이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자 업계가 생산 기반 확대를 위한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프랑스계란산업협회(CNPO)에 따르면 지난해 계란 생산량은 전년보다 0.8% 증가했지만, 1인당 계란 소비량은 역대 최고 수준인 237개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계란 자급률은 전년 99.4%에서 95.8%로 하락했다. CNPO는 투자가 확대되지 않을 경우 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프랑스의 1인당 계란 소비량은 2035년 269개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CNPO는 이에 대응하려면 2035년까지 산란계사 575동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220건의 건설 계획이 등록돼 있으며, 이들 시설이 가동되면 연간 약 2억 개의 계란을 추가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계사 건설 착수부터 실제 산란까지 최대 2년이 소요될 수 있어 생산기반 확대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CNPO는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정부뿐 아니라 금융기관, 유통업체, 식품가공업계, 소비자 등 각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에는 관련 규제를 보다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수입 제품에도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는 유럽연합(EU) 차원의 규제 마련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금융기관에는 젊은 농업인의 시설 투자를 지원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신규 산란계사 건설에 대한 반대를 자제하는 한편 프랑스산 계란을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프랑스 계란산업은 케이지 사육 비중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다. 현재 전체 산란계의 77%가 평사, 방사, 라벨 루즈(Label Rouge), 유기 사육 방식으로 사육되고 있으며, 이 비중은 2030년 9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https://www.wattagnet.com/



<그림 1> 토론회 단체 사진

"살처분 비용 대신 예방접종 예산 준비해야"…

백승기 위원장, 경기도 AI 백신 시범사업 추진 약속

경기도의회 고병원성 AI 방역 대책 토론회 개최… 백승기 위원장 "추미애 지사 만나 내년도 예산에 시범사업 제안"

강민 교수, 프랑스·네덜란드 등 해외 백신 도입 및 검증 사례 소개

산안마을 이경묵 대표 "허가만 해주면 자비로라도 접종하겠다"… 경기도 "중앙정부 협의 필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살처분이 반복되면서 기존 방역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백신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기도에서 제기됐다. 해외에서는 프랑스가 오리 백신 접종을 시행하고 네덜란드가 산란계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 전파 억제 가능성 등을 검증하는 등 정책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백신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농가에서 접종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협의와 제도적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고병원성 AI 방역 대책 마련 토론회에서는 해외 사례와 백신의 과학적 효과뿐 아니라, 반복적인 살처분을 직접 겪은 농가의 현실과 지방정부의 역할이 함께 논의됐다. 특히 산안마을 이경묵 대표는 백신 접종이 허용된다면 예산 지원이 없더라도 농가가

비용과 인력을 부담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토론회를 주관한 백승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이자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토론회는 백신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복되는 살처분에 투입되는 비용을 예방 중심의 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고민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남겼다.

백승기 위원장 "농가 어려움 줄일 방법 찾기 위해 토론회 마련"



<그림 2> 인사말 하는 백승기 위원장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이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백승기 위원장이 주관했다. 백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고병원성 AI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백 위원장은 준비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참석자들의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현장의 상황이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축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지역이며,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특히 닭과 오리 산업이 큰 타격을 받는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닭과 오리는 소비자가 많고 생산자도 많은 산업인 만큼, 질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농가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에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한 만큼,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당부했다.

백 위원장은 참석자들에게 현장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보완하고 좋은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논의가 단순한 의견 교환에 그치지 않고, 실제 방역 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였다.





<그림 3, 4> 주제발표하는 전북대학교 강민 교수

강민 교수, 해외 백신 정책 변화와 과학적 검증 결과 소개

주제 발표를 맡은 전북대학교 강민 교수는 고병원성 AI 방역 전략 가운데 백신에 초점을 맞춰 해외 도입 사례와 과학적 효과 검증 결과를 소개했다.

강 교수는 우리나라가 차단방역과 살처분을 중심으로 AI에 대응하고 있으며, 수의사와 농가도 방역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은 국내 방역 노력만의 문제로 보기보다 전 세계적으로 AI 발생과 바이러스 오염도가 심해진 변화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백신 기술의 한계와 국제적인 정책 분위기 등으로 인해 백신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약 10년이 지난 지금은 백신 기술이 발전했고 해외 정책도 변화하고 있는 만큼, 과거와 같은 전제만으로 백신 도입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강 교수의 설명이다.

강 교수는 유럽에서 백신을 도입하거나 도입을 준비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국내가 앞으로 어떤 방향을 검토해야 할지 참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신의 효과뿐 아니라 국제적인 수용성, 교역에 미치는 영향, 사람의 건강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병원성 AI는 국내에서 2003년부터 발생해 왔으며, 최근에는 해마다 발생이 반복되고 있다. 강 교수는 야생 철새를 통한 바이러스 유입 위험과 전 세계적인 발생 상황을 설명하며, 바이러스의 변화에 맞춰 방역 정책과 기술도 함께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2023년부터 오리 대상 백신 접종 시행

강 교수가 소개한 대표적인 해외 사례는 프랑스다. 프랑스는 2023년부터 오리를 대상으로 고병원성 AI 백신의 국가 단위 접종을 시행했다. 기존에는 바이러스가 발생하면 살처분을 통해 질병을 근절하는 방식에 무게를 두었지만, 피해가 커지면서 백신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했다는 설명이다.

강 교수는 프랑스가 백신 접종을 시행한 이후 발생 건수가 크게 줄어든 사례를 소개했다. 발표에서는 기존에 수백 건 수준으로 발생하던 상황이 접종 이후 크게 감소했다는 내용이 언급됐다. 다만 백신 접종이 질병 발생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며, 접종 이후에도 발생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사례가 주는 의미는 백신이 모든 방역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수단이라는 데 있지 않다. 백신을 활용하면서 발생과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를 실제 정책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강 교수는 프랑스의 백신 도입 사례와 함께 백신 사용이 국제 교역에 미치는 영향도 소개했다. 발표에서는 프랑스산 오리 관련 제품의 수출과 관련해 백신 접종이 곧바로 교역 중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이 나왔다.

이는 국내 백신 도입 논의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백신을 접종하면 수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 도입을 배제하기보다, 실제 해외 사례와 교역 상대국의 반응을 확인하고 필요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림 5> 프랑스의 오리 백신 접종 사례

자료: 전북대학교 강민 교수 발표자료

네덜란드, 산란계 백신의 효과·안전성·전파 억제까지 검증

산란계산업과 관련해서는 네덜란드 사례가 특히 주목됐다. 네덜란드는 산란계 백신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실 평가와 시험 농장 적용, 상업 농장 단계의 평가를 진행해 왔다.

강 교수는 네덜란드가 여러 종류의 백신을 평가했으며, 방어 효과와 전파 억제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후보 백신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발표에 따르면 초기 평가에서는 일부 백신이 충분한 방어 효과나 전파 억제 결과를 보이지 못해 제외됐고, HVT 벡터 백신을 활용한 제품들이 후속 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HVT 벡터 백신은 전달체인 벡터에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항원 유전자를 탑재하는 방식의 재조합 백신이다. 강 교수는 네덜란드에서 이 기술을 적용한 백신을 대상으로 실험실 평가를 진행한 뒤, 시험 농장에서 실제 적용 가능성을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발표에서는 접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닭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시험을 진행하고, 생존율과 임상 증상, 접종하지 않은 닭으로의 전파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가 소개됐다. 초기 평가에서는 좋은 방어 결과가 확인됐지만, 시간이 더 지난 뒤 실시한 평가에서는 접종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점도 확인됐다. 강 교수는 추가 접종(부스트 샷)을 시행한 경우 방어 효과와 전파 억제 결과가 개선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발표자료에 제시된 24주령 평가 결과에서는 미접종 대조군의 전파지수(R)가 15.4, 폐사율이 100%로 나타났다. HVT-H5 백신 단회 접종군은 전파지수 7.92, 폐사율 10%를 기록했으며, 1차 접종에 추가 접종(부스터)을 적용한 프라임-부스트군은 전파지수 0.59, 폐사율 0%를 나타냈다. 이는 추가 접종을 포함한 시험에서 바이러스 전파와 폐사를 억제하는 데 더 나은 결과가 관찰됐음을 보여준다.

다만 전파지수 0.59는 전파가 완전히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이를 '전염률 0%'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전파지수가 1 미만으로 나타났고 해당 시험군의 폐사율은 0%였다고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정확하다.

네덜란드는 이러한 과학적 평가에 더해 국민의 수용성과 유통·무역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했다. 강 교수는 네덜란드의 산란계 계란 수출 규모가 큰 만큼, 자국 내 방역 효과만큼이나 수출 상대국의 반응과 교역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발표에서는 백신 접종 후 계란 내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지 등 식품 안전과 관련한 평가도 진행됐으며, 미국·캐나다·영국·일본 등과의 교역에서도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설명이 나왔다. 네덜란드는 이러한 단계적 검증을 바탕으로 산란계 백신 접종 정책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됐다.

강 교수는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 바이러스 전파 억제, 감시·관리 체계, 국민 수용성, 국제 교역까지 함께 검토했다는 점을 네덜란드 사례의 중요한 특징으로 제시했다. 국내에서도 백신 도입을 논의할 때 이러한 과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림 6, 7> 네덜란드 산란계 백신 검증

자료: 전북대학교 강민 교수 발표자료

중국·인도네시아·베트남 등 백신 활용 사례도 소개

강 교수는 유럽의 사례와 함께 중국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백신을 지속적으로 활용해 온 국가들의 사례도 소개했다.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2004년부터 백신을 사용해 왔으며,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도 백신을 활용하고 있다. 홍콩 역시 상시적인 백신 활용 사례로 언급됐다.

중국 사례와 관련해서는 백신 사용 이후 인체 감염 피해가 감소했다는 내용도 소개됐다. 강 교수는 중국이 기존 백신을 계속 개선하고 유행 바이러스의 변화에 맞춰 백신주를 갱신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사례는 국가별 유행 상황과 백신 정책, 감시체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 상황에서도 유럽에서 소개된 벡터 백신을 평가한 사례가 언급됐다. 강 교수는 해당 평가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확인됐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백신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해외 움직임을 소개했다.

이러한 사례들이 국내에 주는 시사점은 분명하다. 백신을 사용한다고 해서 질병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발생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역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각국이 기술과 정책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강 교수는 백신 접종만으로 방역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백신을 접종한 이후에도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감시체계와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백신 접종 개체와 자연감염 개체를 구분할 수 있는 진단법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백신과 차단방역, 감시·관리를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해야 질병 발생을 줄이고 국제 교역에 필요한 방역 성과도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백신 개발은 진행 중… 실제 사용을 위한 절차는 별개

해외 사례 발표에 이어 국내 백신 개발 현황도 논의됐다. 토론 과정에서 이경묵 대표가 국내 백신 개발 수준을 질문하자, 강 교수는 HVT 벡터 백신 기술을 활용한 국내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관련 기술을 활용한 백신 개발이 추진됐으며, 농림축산식품부 과제를 통해 국내 제약사와 산업화 작업을 진행했다. 발표 당시에는 시제품 생산과 수출 허가 신청 단계까지 진행된 것으로 소개됐다.

그러나 백신 개발과 국내 농장 접종 허가는 구분해야 한다. 국내에서 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제품화가 진행되고 있더라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이 결정되고 필요한 허가 절차가 마련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강 교수는 국내 백신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사용을 위한 임상시험 신청은 진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때문에 국내 백신 개발 성과를 실제 방역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과 별도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국내 개발 제품뿐 아니라 해외에서 효과를 검증한 백신도 함께 검토하고, 접종 대상과 방식, 감시·관리체계, 비용과 교역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백신은 차단방역을 대체하는 단일 수단이 아니라 기존 방역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선택지로 검토돼야 한다. 강 교수는 해외에서 효과를 검증하고 실제 적용을 준비하는 데 수년이 걸렸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이미 축적된 자료와 사례를 충분히 분석하면 국내에서 검토하는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치용 회장 "매년 반복되는 살처분, 이제는 백신 예산으로 전환해야"



<그림 8> 주제발표 하는 한국가금수의사회 송치용 회장

송치용 한국가금수의사회 회장은 고병원성 AI가 장기간 반복 발생하면서 기존의 차단방역과 살처분 중심 대책만으로는 농가 피해를 줄이는 데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에는 살처분을 통해 발생을 억제한 뒤 일정 기간 발생이 줄어드는 양상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AI가 매년 발생하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 만큼 방역 정책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회장은 백신 도입에 반대하는 측에서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백신을 접종하면 농가의 방역 의식이 낮아져 바이러스가 다른 농장으로 전파되는 이른바 '조용한 전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백신 접종과 차단방역은 서로 대체하는 관계가 아니라 병행해야 할 수단이라는 취지다. 그는 행정적 관리와 방역 체계가 뒷받침된다면 백신 접종을 통해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체 감염 위험에 대해서도 백신 도입을 단순히 위험 요인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AI가 발생한 농장에서는 농장주와 종사자뿐 아니라 살처분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도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바이러스 배출 자체를 줄이는 것이 인체 감염 위험을 낮추는 데에도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바이러스 변이는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변이 가능성에 대한 우려만으로 백신 도입 논의를 미뤄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백신 접종 이력과 실제 감염을 구분하는 이른바 DIVA 백신과 관련해서는 해외에서 관련 제품이 허가·판매되고 있고 국내 연구기관과 민간에서도 개발이 진행된 만큼, 실제 활용을 위한 제도적 검토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백신 도입에 따른 무역상 압박 우려 역시 유럽 등에서 백신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을 고려해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송 회장이 특히 강조한 부분은 살처분에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였다. 그는 과거 2015~2016년 AI 발생 당시 전국적으로 살처분 보상비가 약 2,400억 원에 이르렀고,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도 약 1,200억 원이 투입됐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발생과 관련해서도 경기도의 살처분 보상비가 약 470억 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AI가 발생할 때마다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백신 접종을 전국적으로 즉시 확대하자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AI가 발생하는 농장이나 철새 도래지 등 위험도가 높은 지역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네덜란드 등 해외 사례에서 백신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와 평가가 진행된 만큼, 국내에서도 고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송 회장은 경기도의회가 먼저 시범사업 추진 필요성을 제기하고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집행부가 독자적으로 백신 접종을 결정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의회가 정책적 명분을 만들고 중앙정부에 경기도의 시범 적용 의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살처분 보상비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예방접종에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백신 도입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제안은 토론회 후반부에서 백승기 위원장의 발언으로 이어졌다. 백 위원장은 반복되는 살처분과 보상 과정에서 농가가 겪는 어려움을 언급하며, 앞으로는 살처분 비용을 준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방접종 비용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만나 내년도 예산에 시범사업을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혀, 토론회에서 제기된 백신 도입 논의를 실제 정책 검토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경묵 대표 "허가만 해주면 자비로라도 접종하겠다"



<그림 9> 발언하는 경기도 화성 산안마을 이경묵 대표

전문가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농가가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제기됐다. 산안마을 이경묵 대표는 AI 발생과 살처분을 직접 경험한 농가의 입장에서 현행 방역체계의 한계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농장에서 AI가 발생해 살처분을 겪었으며, 약 6년 전에도 방역대에 포함돼 감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처분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두 차례의 살처분을 겪으며 방역 정책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했고, 이를 바꾸기 위해 관련 문제를 알리고 해결 방안을 찾으려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백신 접종을 허용해 달라는 농가의 요구가 단순히 비용 지원을 요청하는 차원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농가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접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해 달라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는 “허가만 해주면 자비로라도 접종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예산 지원이 없더라도 농가가 비용과 인력을 부담해 접종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복되는 살처분으로 농가의 생산 기반이 훼손되는 상황에서, 농가가 선택할 수 있는 예방 수단을 마련해 달라는 호소였다.

그는 기존의 방역 기준을 준수하는 데에도 농가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 AI 발생이 반복되면 농가에 더 강한 방역 의무가 요구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현장에서 방역을 위해 노력하더라도 감염이 발생하면 살처분과 보상금 감액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농가에 책임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의 발언은 이번 토론회에서 백신 도입 논의가 왜 필요한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백신 접종을 원하는 농가가 있고, 비용과 인력을 부담할 의사까지 밝혔지만, 현재는 제도적 허가와 정책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 농가의 요구를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판단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은경 과장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어… 정부에 건의 중”



<그림 10> 경기도청 동물방역위생과 이은경 과장 발언

경기도청 동물방역위생과 이은경 과장은 경기도의 방역 여건과 백신 도입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이 과장은 경기도가 접경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산란계 사육 농가가 밀집해 있고 철새 도래지도 많아 AI 방역에 취약한 여건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복되는 살처분으로 농가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사회적 비용도 커지는 상황에서 백신 도입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농가와 학계의 의견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백신 접종이 결정된다면 우선적으로 시행할 지역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있으며, 시범 적용 가능성도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백신 접종은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결정해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백신의 구매와 사용, 접종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정부의 결정과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인체 감염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의 검토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설명이 이어졌다. 경기도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추진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중앙정부의 정책적 판단 없이 자체적으로 접종을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 과장은 지난 2025~2026년 동절기 경기도의 고병원성 AI 발생 피해도 소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전국에서 62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에서 14건이 발생했으며, 도내 39개 농장에서 약 439만 3천

마리가 살처분됐다. 이 가운데 약 432만 마리가 산란계로, 살처분 마릿수의 약 98%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살처분 보상금뿐 아니라 매몰과 방역 등에 필요한 비용까지 고려하면 실제 손실은 더욱 커진다고 설명했다. 피해는 농가의 경제적 손실에 그치지 않고 계란 가격 상승 등 도민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기도는 동절기 AI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장 유입 차단과 맞춤형 관리, 의심축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책임방역과 스마트 방역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금 밀집지역과 대형 농장에 대한 관리, 차량 출입 모니터링, 주요 농장 전담관 운영, 거점 소독시설 개선 등도 방역 대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반복되는 살처분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백신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는 농가와 학계의 의견에 공감하며,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 백신 접종이 경기도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이뤄질 수는 없지만, 농가가 원하는 방향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백승기 위원장 "살처분 보상금으로는 농가 피해 막기 어려워"



<그림 11> 의견 제시하는 백승기 위원장

토론 후반부에서 백승기 위원장은 백신 도입 필요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혔다. 특히 과거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경험한 가축전염병 대응과 살처분 보상 문제를 언급했다.

백 위원장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농정해양 분야에서 활동했으며, 2019년 2월 안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 등으로 방역 현장이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을 돌아봤다.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살처분을 통해 확산을 막는 데 집중하지만, 정작 살처분 이후 보상 과정에서 농가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그는 농가가 방역을 위해 노력했더라도 보상 과정에서 여러 항목이 제외되거나 감액되면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사항이나 방역 기준 위반 등이 보상 감액 사유로 적용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농가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설명했다.

백 위원장은 예비 살처분으로 560마리를 처분했는데도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를 직접 언급했다. 이 사례를 통해 살처분 이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만으로는 농가의 피해와 부담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방역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살처분이 발생한 뒤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예산을 투입하기보다, 질병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 위원장의 발언은 백신 도입을 단순히 새로운 방역 기술을 선택하는 문제로만 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반복적인 살처분으로 농가가 생산 기반을 잃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과 방역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상황이라면 예방 중심으로 정책의 무게를 옮길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추미애 지사 만나 내년도 예산에 시범사업 제안하겠다"

백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다.

그는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만나 내년도 예산에 AI 백신 시범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살처분 비용을 준비하는 데 그치지 말고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자는 취지였다.

백 위원장은 "살처분 비용을 준비하지 마시고 예방접종 비용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강조하며, 백신 접종을 통한 예방 중심 방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농가와 전문가, 관계기관이 함께 모인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차원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제안하겠다는 약속이었다.

또한 토론회를 계기로 경기도의 AI 예방접종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당장 백신 접종을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기도 차원의 예산과 정책 논의를 통해 시범사업을 제안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진전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이 대목은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구체적인 후속 추진 약속으로 꼽힌다. 백신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넘어, 경기도지사와 협의하고 다음 연도 예산에 시범사업을 제안하겠다는 방향을 직접 제시했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예산 검토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과 허가, 접종 이후 감시·관리체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백 위원장의 발언은 이러한 제도적 절차를 넘어 이미 시행이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약속으로 이해해야 한다.

백신 도입 논의, 현장의 요구를 정책으로 연결해야

이번 토론회에서는 해외의 백신 도입과 검증 사례, 국내 백신 개발 현황, 농가가 겪는 살처분 피해, 경기도의 방역 여건과 제도적 한계가 함께 논의됐다.

강민 교수의 발표는 백신 도입을 검토할 때 과학적 효과와 안전성뿐 아니라 바이러스 전파 억제, 감시·관리체계, 국민 수용성, 국제 교역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줬다.

프랑스의 오리 백신 접종과 네덜란드의 산란계 백신 검증 사례는 해외에서 기존 방역정책을 재검토하고 백신을 실제 방역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이경묵 대표의 발언은 이러한 논의가 농가의 현실과 직접 연결돼 있음을 보여줬다. 농가는 반복되는 살처분으로 생산 기반과 생계에 타격을 받고 있으며, 접종이 허용된다면 비용과 인력을 부담해서라도 백신을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백신 접종을 위한 예산 지원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가 선택할 수 있는 예방 수단을 제도적으로 허용해 달라는 호소였다.

경기도는 백신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중앙정부의 허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제도적 한계가 있지만, 경기도가 백신 시범 적용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여기에 백승기 위원장은 살처분 이후 보상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접종에 예산을 투입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만나 다음 연도 예산에 시범사업을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약속은 토론회에서 나온 논의를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출발점이다.

물론 백신이 차단방역과 살처분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백신을 도입하더라도 접종 효과를 확인하고 감염 여부를 감시하는 체계를 갖춰야 하며, 국내 가금산업의 특성과 교역 여건을 고려한 제도적 검토도 필요하다. 그러나 발생이 반복되고 살처분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기존 방역체계만을 유지할 것인지, 백신을 포함한 예방 수단을 함께 검토할 것인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해외 사례를 통해 백신 도입 가능성을 확인하고, 농가의 절박한 요구를 전달하는 한편, 경기도가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백승기 위원장이 밝힌 예산 제안이 실제 정책 검토로 이어지고,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반복되는 살처분의 비용을 감당하는 데서 나아가 질병 발생 자체를 줄이는 예방 중심의 방역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지, 향후 경기도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진다.

취재 | (사)대한산란계협회 이성진 대리

2026년 전국 산란계농가 계란 안전성 확보 및 AI 방역교육

산란계 농가의 계란 안전성 확보와 방역 역량 강화를 위한 「2026년 전국 산란계농가 계란 안전성 확보 및 AI 방역교육」이 실시되었다. 이번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계란자조금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대한산란계협회가 주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후원으로 마련되었다.

교육은 지난 7월 16일, 21일, 22일, 23일 총 4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안전한 계란 생산을 위한 농장 관리 요령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교육 내용은 ▲하절기 닭진드기 방제 및 예방을 위한 사양관리 ▲산란계 농장 환경에 잔류할 수 있는 살충제 성분 제거방법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부적합 시 제재 사항 ▲농장 내 차단방역 및 예찰활동 강화와 고병원성 AI 발생 시 초동 방역조치 요령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산란계 농가의 동물용의약(외)품 안전사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농장 내 위생·방역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계란 생산을 위한 실천 방안을 전달하고자 했다.

한편, 본격적인 교육에 앞서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협회 주요 현안과 대응 상황을 설명하는 간담회가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처분과 농림축산식품부의 협회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따른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과 향후 대응 방향 등을 설명했다.

권역별 교육현장



충청권



호남권



경기권



영남권

대한산란계협회장과의 간담회



(사)대한산란계협회 안두영 회장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와 관련해 협회는 기존 0.05㎡에서 0.075㎡로 사육기준을 확대하는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가 새로운 기준에 맞춰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육면적 확대에 따라 기존 농가는 시설 개선이나 사육 마릿수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담보 부족과 보증 한도,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규제 등으로 시설 현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협회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 한도 확대 등 금융지원 특례와 인허가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아울러 기존 시설에 대한 재산권 보호와 정부 지원대책의 이행 문제 등을 제기하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진행 중이다.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생산비 상승과 신규 대규모 산란계단지 조성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도 있다. 사육면적이 확대되면 동일한 시설에서 사육할 수 있는 마릿수가 줄어드는 반면,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 등의 부담은 크게 감소하지 않아 계란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기존 농가의 시설 개선과 증축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규모 신규 시설을 중심으로 생산기반이 확대될 경우 중소 산란계 농가의 경영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처분과 관련해서는 계란 생산비와 산지가격에 대한 인식 차이가 주요 쟁점 중 하나다. 협회는 계란 생산비를 산정할 때 계란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선별·세척·포장 등 실제 출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계란 생산과 출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지가격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은 농가의 실제 경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월 18일 서울고등법원은 협회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과징금 납부명령 등의 효력을 정지했다. 또한 지역별 계란 가격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공정위와의 사전 협의를 조건으로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가격정보 제공 재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위와의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나, 공정위가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관련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협회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이 진행 중이다. 협회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지난 8월 31일 서울행정법원은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 등을 고려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기존 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다.

협회는 앞으로도 법적 절차를 통해 각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는 한편,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산란계 산업의 주요 현안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농가 지원대책과 계란 생산비 현실화, 산지가격 정보 제공 재개 등 농가 경영 안정과 직결되는 현안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진행 상황과 결과를 농가에 공유할 방침이다.

산란계 농장 닭진드기 예방 및 K-IPM 종합방제 방법



(사)한국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 유종철 회장

산란계 농장에서 닭진드기는 산란율 저하와 생산성 감소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는 닭진드기의 생태적 특성과 생활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방제 방식은 눈에 보이는 진드기 제거에 집중돼 왔으나, 계사 내부에 남아 있는 충란(알)을 제거하지 못할 경우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닭진드기는 흡혈을 통해 성장하고 번식하며, 알에서 유충과 약충을 거쳐 성충으로 발달한다. 성충은 한 번에 4~8개의 알을 낳고 일생 동안 약 30개의 알을 생산할 수 있다. 특히 충란은 불리한 환경에서도 장기간 생존할 수 있어 겨울철 계사를 비우거나 새로운 닭을 입식하더라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기온이 상승하는 시기에 다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닭진드기의 재발 원인을 단순히 외부 유입으로 판단하기보다 계사 내부에 남아 있는 충란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기존 살충제 중심의 방제는 성충을 제거하더라도 충란까지 제거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충란 제거와 흡혈 억제, 발생 부위에 대한 집중 방제를 병행해야 한다. 특히 닭진드기는 주로 닭 주변 50cm 이내에 군락을 형성하고 흡혈 후 다시 은신처로 돌아가는 특성이 있어 초기 군락이 발견되면 주변 부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바람을 이용해 군락을 흩뜨리는 방식은 진드기를 다른 장소로

확산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닭이 있는 상태에서는 진드기의 흡혈 억제제를 4~5일간 사용해 진드기의 성장과 번식을 제한하고 집중 방제를 실시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한국형 통합해충관리 방식인 K-IPM(Korean Integrated Pest Management)은 닭진드기의 생활사를 고려해 충란 제거, 예방적 관리, 모니터링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방제 방법이다. 특히 입식 전에는 계사 내부의 유기물을 충분히 제거하고 청소와 세척을 실시한 뒤 충란 제거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후 현미경 모니터링을 통해 충란의 잔존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방제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미경 모니터링은 기존의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충란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방법으로, 방제 상태를 1~5등급으로 구분한다. 충란이 발견되지 않으면 1등급, 방제 후에도 충란이 확인되면 2등급으로 평가하며, 3~5등급은 진드기 군락 확산 등 피해가 진행된 상태를 나타낸다. 따라서 새로운 닭을 입식하기 전에 충란의 잔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리카는 닭진드기가 대량 발생한 생태에서 이를 제거하기 위한 용도보다는 충란 제거와 청소를 마친 후 잔존 진드기의 이동을 차단하는 예방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진드기가 자주 발생하는 계사 내부의 틈새와 구조물 주변에 적절히 도포함으로써 재발 가능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닭진드기 방제는 단순히 발생한 진드기를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충란의 잔존 여부를 확인해 재발을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농가에서는 주 1회 정도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전문 방제업체를 이용할 경우 청소·세척 및 충란 제거 작업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입식 전 철저한 충란 제거와 모니터링을 통해 안정적인 사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AI 차단방역 교육 및 동물약품 사용방법

2024년부터 시행된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 제도(PLS)는 동물용의약품 등의 잔류허용기준을 관리해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 성분에는 원칙적으로 0.01mg/kg의 기준이 적용되므로 농가에서는 약품의 사용 가능 여부와 용법·용량, 휴약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산란계 농장은 약품 성분이 계란에 잔류할 수 있어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며, 외부 방역 과정에서 사용된 살충제 성분이 계란에 잔류할 가능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항생제의 무분별한 사용에 따른 내성 문제도 중요하다. 동일한 항생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세균이 내성을 획득해 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질병



(사)한국가금수의사회 송치용 회장



한국 히프라 기술지원팀 김태식 수의사

발생 시 원인균을 확인하고 약제 감수성 검사를 통해 적절한 약품을 선택해야 한다. 특히 바이러스성 질병에는 항생제가 직접적인 치료 효과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약품을 사용해야 한다.

동물용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용의약품 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에서는 약품별 효능·효과와 사용방법, 휴약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음수 투약 시에는 사육 마릿수와 평균 체중을 기준으로 적정 투여량을 계산하고 계절에 따라 음수량 변화와 제품별 사용기준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농장 내 차단방역을 위해서는 소독제의 올바른 사용도 중요하다. 소독에 앞서 계분과 먼지 등 유기물을 충분히 제거해야 하며, 장화 바닥에 오염물질이 묻어 있는 경우에는 발판 소독조를 이용하기 전에 세척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소독제는 성분에 따라 적정 사용 온도와 작용 시간이 다르므로 계절과 환경을 고려해 선택하고, 희석배율과 접촉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서로 다른 소독제를 임의로 혼합하면 소독 효과가 감소하거나 유해한 반응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서는 농장 내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AI 발생 농장에서는 직원 숙소와 신발, 의복, 차량 바퀴 등 다양한 장소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가 있어 사람과 차량, 물품 등을 통한 오염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소독시설의 설치 여부뿐 아니라 실제 소독과 출입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AI 발생 이후 살처분 과정에서도 오염물질이 농장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작업 동선과 장비, 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쥐 등 설치류는 농장 내외부를 이동하면서 병원체를 옮기고 사료를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계사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고 은신처를 정비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안전한 계란 생산과 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동물의약품의 정확한 사용과 함께 농장 내 위생·방역관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 특히 약품 사용기준과 휴약기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소독과 출입 통제, 설치류 방제 등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을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금 농장에서의 살모넬라증의 예방 및 사양관리



한국양계(주) 김점주 연구개발이사



다란동물병원 고승열 원장



한국MSD동물약품 전은옥 수의사

살모넬라균은 닭을 비롯한 다양한 동물과 환경에 존재할 수 있는 세균으로, 일부 혈청형은 사람에게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살모넬라균은 2,600여 종의 혈청형으로 구분되며, 대표적으로 가금티푸스를 유발하는 살모넬라 갈리나룸(Salmonella Gallinarum, SG)은 닭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사람에게 식중독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균은 아니다. 반면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Salmonella Enteritidis, SE)와 살모넬라 티피뮤리움(Salmonella Typhimurium, ST)은 사람에게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혈청형으로, 특히 SE는 닭에서 뚜렷한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계란을 통해 전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 산란계 농장에서는 주로 HACCP 관리와 계란 검사를 통해 살모넬라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제한된 검사 수량만으로 농장 전체의 오염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 국내 연구에서는 계란 검사 수량을 20개에서 280개로 확대할 경우 기존 검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살모넬라균이 검출되는 사례가 나타났으며, 노계군에서 검출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도 확인됐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계분과 먼지 등 농장 환경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계란 검사와 함께 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살모넬라균은 종계에서 후대로 전파되는 수직전파뿐 아니라 오염된 사료와 물, 계분, 사람, 설치류, 야생동물 등을 통해 수평전파될 수 있다. 농장에 유입된 살모넬라균은 닭의 장내에 정착한 뒤 계분을 통해 배출되며, 이를 다른 닭이 섭취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 특히 초기 육성 단계와 산란 개시 시기에는 장내 미생물 균형과 생리적 변화 등이 살모넬라균의 정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노계군 역시 면역력 저하 등으로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사육 단계별 관리가 필요하다.

살모넬라 예방을 위해서는 입식 전 철저한 청소와 소독이 중요하다. 살모넬라균은 농장 환경에서 비교적 오래 생존할 수 있으며, 계분과 먼지 등 유기물이 남아 있으면 소독 효과가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계사 내부의 오염물질을 충분히 제거한 뒤 물청소와 소독을 실시하고, 충분한 건조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소독 후 수분이 남아 있으면 세균이 다시 증식할 수 있으므로 건조 과정까지 포함한 입식 준비가 필요하다.

청소와 소독만으로 살모넬라균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운 만큼 백신을 활용한 예방관리도 필요하다. 영국에서는 종계와 산란계에 대한 SE 백신 접종이 확대된 이후 닭의 감염과 사람의 식중독 발생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SE와 ST를 대상으로 하는 불활화 백신이 공급되고 있으며, 농장에서는 질병 발생 위험과 사육환경 등을 고려해 백신 접종을 검토할 수 있다.

백신 접종과 함께 장내 유익균을 유지하기 위한 사양관리와 매개체 방제도 중요하다. 생균제와 유익균의 증식을 돕는 첨가제 등을 활용하면 장내 미생물 균형을 유지하고 살모넬라균의 정착과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살모넬라균을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박테리오파지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설치류와 닭진드기 등 매개체에 대한 방제도 병행해야 한다. 특히 쥐는 농장 안팎을 이동하면서 살모넬라균을 전파하고 사료를 오염시킬 수 있어 계사 주변의 잡초 제거와 이동 경로를 차단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살모넬라균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농장으로 유입될 수 있어 완전한 차단과 근절이 쉽지 않다. 따라서 계란으로의 균 이행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입식 전 청소·소독과 충분한 건조, 백신 접종, 장 건강 관리, 매개체 방제 및 정기적인 환경 모니터링을 종합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취재 | (사)대한산란계협회 김금비 주임

방역에서 위생관리까지, 일본 산란계 산업의 현장을 들여다보다②

보상체계와 자율방역, GP센터 탐방에서 찾은 국내 산업의 과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방역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방역시설과 규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 질병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다. 농가가 방역수칙을 실제로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과 현장 여건을 함께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지난 1회차에서는 일본의 HPAI 발생 특성과 현장 대응체계, 지방정부와 민간 수의사의 역할 등을 살펴봤다. 이번 2회차에서는 그 연장선에서 일본의 보상체계와 자율방역, 위험도 기반 방역 및 백신 정책을 짚어본다. 아울러 일본의 계란 생산·유통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방문한 가가와란치그룹 GP센터의 위생관리와 살모넬라 관리 사례를 통해 국내 산란계 산업이 참고할 수 있는 방역 및 위생관리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림 1, 2> 일본 가가와란치 그룹 GP센터 방문

방역을 지키게 하는 힘, 보상과 책임의 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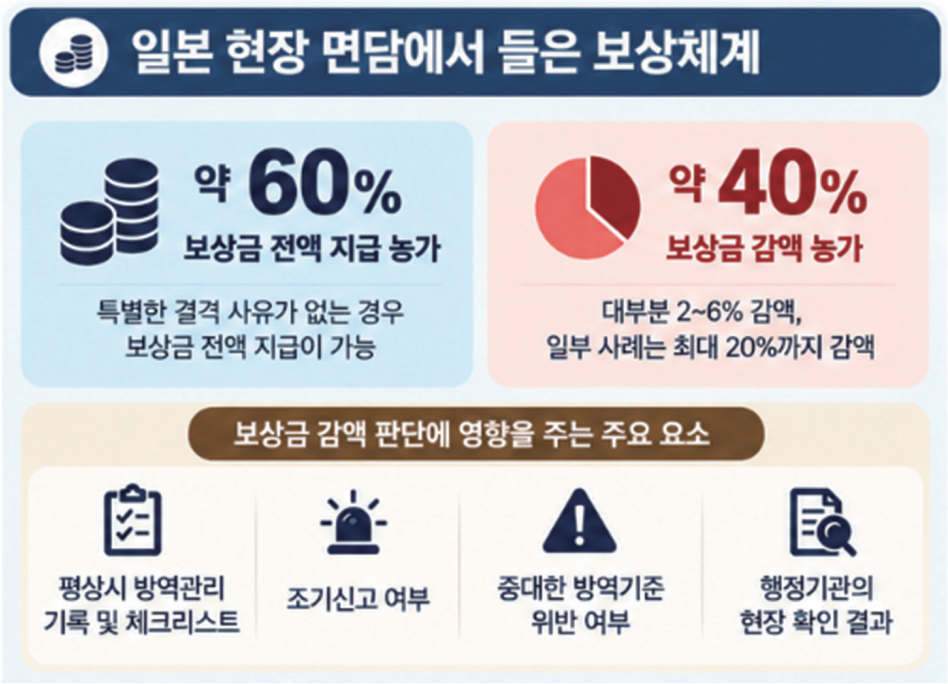
일본 현장조사에서 주목할 부분 중 하나는 농가의 방역수칙 준수를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현장 관계자들은 방역기준을 충실히 이행한 농가가 질병 발생으로 살처분을 당했을 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중대한 방역기준 위반이나 신고 지연 등이 확인되면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

출장 면담에서 제시된 설명에 따르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보상금 전액 지급이 가능하며, 면담 관계자는 약 60%의 농가가 전액 보상을 받고 나머지 약 40%는 대부분 2~6%, 일부는 최대 20%까지 감액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장 면담에서 전달받은 내용으로, 일본 전체 농가의 공식 통계로 해석하기보다는 조사 당시 관계자의 설명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상금 감액에는 평상시 방역관리 기록과 체크리스트, 조기신고 여부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됐다. 체크리스트는 농가의 자가점검뿐 아니라 민간 수의사와 행정기관의 확인을 통해 관리된다. 평소 방역수칙을 어떻게 이행했는지 기록하고 미흡한 사항을 개선했는지가 질병 발생 이후의 판단과 연결되는 구조다. 다만 민간 수의사가 법적 적합 여부를 최종 판정하거나 보상금 감액률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적인 행정 판단은 정부의 역할로 구분돼 있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은 살처분 보상금과 경영안정자금이다. 일본 관계자는 경영안정자금은 살처분 보상금과 별개의 제도이며, 질병 발생 후 병아리를 재입식하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금융지원체계가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두 제도는 목적과 기능이 다르지만, 질병 발생에 따른 농가의 경영 충격을 줄이는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도 방역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농가가 평상시 이행한 방역활동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정교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기신고를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농가가 의심 증상을 발견했을 때 신속하게 신고하고 방역당국의 조치에 협조할 수 있도록 신고 이후의 절차와 보상기준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함께 높여야 한다.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책임과 질병 발생 시의 보상체계가 합리적으로 연결될 때 농가의 자발적인 방역 참여를 뒷받침할 수 있다.



<그림 3> 일본 현장 면담에서 들은 일본 보상체계

시설 설치보다 반복 가능한 방역수칙을

일본의 방역기준과 체크리스트는 농가가 쉽게 이해하고 일상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이었다. 특정 시설을 설치했는지 확인하는 데 그치기보다, 농가가 실제로 수행해야 하는 작업과 반복 가능한 표준작업절차(SOP)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방역은 시설을 갖추는 순간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농장 출입관리, 울타리와 방조망 점검, 계란판 소독, 계분 관리 등 일상적인 작업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수행하는지가 중요하다. 기준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농장의 공간과 운영 여건에 맞지 않으면 이행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해야 할 일이 명확하고 개선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면 방역수칙이 일상적인 관리행위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본 관계자들은 농가를 처벌하기 위한 점검보다는 평상시 자기점검과 행정 확인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는 접근을 강조했다. 이는 방역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기준을 지키도록 요구하되, 농가가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제도를 설계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는 취지다.

차량과 사람의 출입관리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드러났다.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은 전국 상시 거점소독시설이나 차량 GPS 관리체계를 운영하지 않는다. 대신 평상시에는 농장 출입 자체를 최소화하고, 차량이 가능한 한 농장 부지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며, 사료·집란 차량이 여러 농장을 연속해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이동을 줄이는 데 무게를 둔다. HPAI가 발생하면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에 긴급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발생지역 주변의 농장 출입차량과 사료차·집란차의 소독 및 이동경로 관리를 강화한다.

현장 관계자들이 강조한 것은 '소독은 멸균이 아니다'라는 점이었다. 소독을 했다고 해서 차량이나 물품에 바이러스가 완전히 제거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소독에만 의존하기보다 사람과 차량, 물품의 이동 자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소독 횟수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오염원이 농장 안으로 들어올 기회를 줄이는 데에도 방역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셈이다.

다만 일본의 운영방식을 국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농장 밀집도와 축산차량 이동빈도, 계열화 구조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국내 방역환경을 고려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 없는 제도라는 이유만으로 폐지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각 제도가 실제 전파위험을 얼마나 줄이는지, 운영비용과 현장 부담에 비해 충분한 효과를 내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위험도 기반 방역과 백신정책, 일률적 대응을 넘어

일본의 현장대응은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구조로 설명됐다. 일본 관계자들은 HPAI 발생 시 지방정부가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방역조치를 주도하며, 민간 수의사와 대학 등 관련 전문가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전국의 모든 상황을 중앙에서 동일하게 처리하기보다는 현장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초기 대응을 담당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와 협력하는 방식이다.

면담에서는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를 이동제한구역, 3~10㎞를 반출제한구역으로 설정하는 체계가 소개됐다. 이동제한구역에서는 가금과 알, 분뇨 등 관련 물품의 이동을 제한하고, 반출제한구역에서는 해당 지역 밖으로의 이동을 통제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는 면담에서 설명된 기본적인 운영체계이며, 실제 조치의 범위와 내용은 발생 상황과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대응방식은 위험도 기반 방역을 검토할 때 참고할 만하다. 농장 밀집도, 철새도래지와의 거리, 차량 이동빈도, 과거 발생이력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방역자원을 배분하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과 경로에 대응역량을 집중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농가와 차량에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요인과 현장 여건에 따라 관리의 강도와 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취지다.

다만 일본 역시 사람·동물·환경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적인 국가 빅데이터 예측시스템이 완성된 단계는 아닌 것으로 면담에서 파악됐다. ICT·IoT를 활용한 예찰기술의 현장 적용도 아직 더딘 상황이라는 설명이 있었다. 따라서 일본을 위험도 기반 방역이나 디지털 예찰의 완성된 모델로 보기보다는 지방정부 중심의 대응과 현장정보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

백신정책 역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기존의 조기발견·신속 살처분 정책을 기본으로 유지하면서도 예방적 백신 도입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025년 4월 일본 농림수산성 방역대책본부는 예방적 백신 도입에 관한 검토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검토에 착수했다는 것이 곧바로 상시 예방접종을 도입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본은 현재 예방적 상시접종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백신 도입에 따른 여러 과제를 검토하는 단계다.

백신 도입을 판단할 때는 감염농장 발견이 늦어질 가능성, 접종 이후의 모니터링 부담, 유행 바이러스와 백신 항원의 적합성, 비용, 무역 및 청정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출장 면담에서는 일본이 국내외에서 분리되는 HPAI 바이러스의 유전형과 항원성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비축 백신주와 야외 유행주 간 HI 교차반응 및 필요시 접종시험을 통해 적합성을 평가한다는 설명도 나왔다. 백신을 보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유행 상황에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국내에서도 백신 도입 논의는 차단방역을 대체하는 단일 해법으로 접근하기보다 기존 방역체계와의 관계, 접종 후 감시체계, 유행주와 백신주의 적합성, 비용과 산업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위험도 기반 방역과 백신정책은 충분한 역학정보와 현장 실행체계가 뒷받침될 때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표 1> 일본 현장조사에서 확인한 방역 운영체계

구분	일본 현장조사에서 확인한 내용	국내에서 검토할 시사점
농가 방역관리	체크리스트와 반복 가능한 표준작업절차(SOP)중시	농가가 실제 이행할 수 있는 방역기준 마련
차량·사람 출입	농장 출입 최소화, 발생 시 이동경로 및 소독 관리 강화	소독뿐 아니라 이동 자체를 줄이는 관리 병행
지방정부 역할	발생 현장의 초기 대응과 지역 단위 방역관리	지역별 위험요인을 반영한 현장대응 강화
민간 수의사	임상 관찰, 조기 발견 및 신고 지원	민간 전문인력과 행정기관 간 협력 강화
보상체계	방역 이행 여부와 신고 관련 사항을 고려한 보상금 감액 가능	평상시 방역관리 기록과 보상기준의 연계 검토

가가와란치그룹 GP센터, 생산에서 가공·판매까지

이번 출장에서는 방역정책과 별도로 일본의 계란 생산·유통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미야자키현의 가가와란치그룹 GP센터를 방문했다. 가가와란치그룹은 1963년 양계업을 시작한 기업으로, 약 30만 수 규모의 산란계를 기반으로 계란 생산부터 집란, 선별·포장, 가공 및 판매까지 연계한 생산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특징적인 부분은 상품란 생산에 그치지 않고 규격외란을 계란두부와 차완무시 등의 가공제품으로 활용하며, 산란 노계의 가공과 자체 생산품 판매까지 연결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을 GP센터로 연결하는 인라인 시스템과 자동화된 선별·포장설비를 운영해 생산에서 유통까지 이어지는 품질·위생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생산·가공·유통의 연계는 생산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규격외란을 용도에 맞게 가공 원료로 활용하고 산란 노계까지 사업체계 안에서 활용함으로써, 상품란 판매에만 의존하지 않는 생산구조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가공·유통을 통합한 이른바 6차 산업화 모델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일괄 생산체계가 곧바로 모든 농가에 적합한 사업모델이라는 뜻은 아니다. 각 단계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품질관리 체계가 뒷받침돼야 하며 안정적인 판매처와 가공품 수요도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개별 농가가 모든 과정을 직접 운영하기보다 생산자와 선별포장업체, 가공업체, 유통업체 간 협력을 통해 계란과 산란계 부산물의 활용 경로를 넓히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그림 4> 가가와란치그룹 주요 사업 구조

최신 설비보다 인상적이었던 기본 위생관리

현장에서 특히 눈에 띈 것은 시설의 외관이나 자동화 수준보다 출입 단계의 위생관리였다. GP센터는 장기간 운영된 흔적이 있어 모든 설비가 최신식이라는 인상을 주지는 않았지만, 계란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안전한 제품을 공급해야 한다는 관계자들의 책임의식은 뚜렷했다.

방문객을 포함한 모든 출입자가 건물 내부로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도록 관리하고 있다. 위생수칙을 안내문으로 게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출입 과정에서 실제로 이행하도록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절차 자체는 단순하지만 누구나 예외 없이 따라야 하는 작업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날계란을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식문화가 일상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식문화는 계란의 신선도와 위생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계란의 안전은 최종 판매단계에서만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산란계 사육, 집란, 선별·포장, 보관과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관리돼야 한다.

국내 역시 식용란선별포장업 제도와 HACCP 등을 통해 계란의 선별·포장 및 유통단계 위생관리를 강화해 왔다. 따라서 일본의 사례를 근거로 국내 관리수준이 낮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제도와 시설을 통해 마련한 기준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실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설과 장비가 갖춰져 있더라도 출입자 관리와 작업자의 위생수칙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면 기대한 효과를 얻기 어렵다. 반대로 기본적인 위생절차를 작업의 당연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시설의 신·구 여부와 별개로 관리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가가와란치그룹 GP센터에서 확인한 것은 새로운 장비만큼이나 기본을 반복해서 지키는 운영문화가 중요하다는 점이었다.

살모넬라 관리, 농장에서 유통까지 연결해야

계란의 위생과 안전을 논할 때 살모넬라 관리 역시 빼놓을 수 없다. GP센터에서의 세척·선별·포장만으로 계란의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산란계 사육농장의 위생관리와 계사 내 오염 저감, 집란과정, 선별·포장 및 이후 유통단계의 관리가 연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일본 현장에서는 살모넬라 음성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 노력과 그 성과에 대해 농가와 관계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이는 살모넬라 관리가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장과 관련 종사자들이 관리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과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GP센터는 생산된 계란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전 품질과 위생을 관리하는 중요한 지점이다. 그러나 최종 처리단계에만 의존하면 농장단계에서 발생한 위험을 근본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반대로 농장에서의 관리가 충실하더라도 집란과 운반, 선별·포장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미흡하면 최종 제품의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살모넬라 관리는 특정 시설이나 한 단계의 검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생산에서 소비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 안에서 접근해야 한다. 농장단계의 방역과 식품위생단계의 관리를 별개의 영역으로 나누기보다, 각 단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리가 끊기지 않도록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살모넬라 백신 활용과 접종계군 관리

일본은 계란의 살모넬라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농장단계의 위생관리와 정기적인 검사, 백신 활용을 병행하고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의 산란계 농장 위생관리 자료에서도 살모넬라 백신 접종이 주요 관리수단 중 하나로 확인된다. 과거 일본의 산란계 농장 조사에서는 무창계사 농장의 백신 접종률이 58%, 개방계사 농장은 26%로 나타나 사육환경에 따라 접종 현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는 과거 조사 결과로, 현재 일본 전체 농장의 접종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백신 접종과 함께 중요한 것은 접종 이력과 검사 결과를 정확하게 관리하는 일이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 백신을 접종한 닭이 추백리 검사에서 항체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접종계군과 미접종계군을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백신 접종만으로 식중독 위험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농장 내 위생관리와 오염 여부 확인, 계란 선별·포장 단계의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일본 사례는 살모넬라 예방에서 백신을 활용하는 동시에 접종 이력과 검사체계를 연계하고, 농장에서 유통단계까지 위생관리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내에서도 2027년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한 살모넬라 예방백신 지원사업이 추진될 예정인 만큼, 접종 지원과 더불어 접종계군 관리, 농장 위생관리, 유통단계의 정보 제공을 어떻게 연계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림 5> 2027년 산란계 살모넬라 백신 지원사업(안)
2027년 산란계 살모넬라 예방백신 지원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시·군 담당자를 통해 산란계 농장의 백신 접종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

국내 산업에 필요한 것은 현장에 뿌리내린 관리문화

이번 일본 현장조사가 보여주는 것은 특정 제도나 시설을 그대로 도입해야 한다는 결론이 아니다. 일본과 한국은 농장 밀집도와 차량 이동구조, 계열화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일본의 운영방식을 참고하되 국내 방역환경과 농가 여건을 고려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방역 측면에서는 농가가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기준과 반복 가능한 작업절차를 마련하고, 평상시 점검과 개선지도, 민간 수의사의 전문성, 신고체계와 보상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험도 기반 방역 역시 지역과 농장의 특성을 반영해 방역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향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거점소독시설과 GPS·CCTV 등 기존 제도 역시 단순히 유지하거나 폐지할 문제가 아니라 실제 방역효과와 현장 부담을 함께 평가해야 할 대상이다.

위생관리 측면에서는 제도와 시설의 개선을 지속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기본적인 위생수칙이 일상적인 작업문화로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규격외란의 가공 활용과 산란 노계의 부가가치 제고 등 생산 이후의 활용 경로를 넓히는 방안도 국내 시장 수요와 투자 여건을 고려해 검토할 수 있다.

결국 안전한 계란을 생산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일은 시설 하나나 검사 한 번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농가가 실천할 수 있는 방역기준, 합리적인 제도와 보상체계, 현장 종사자의 위생관리, 생산에서 유통까지 이어지는 책임 있는 관리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일본 미야자키 현장에서 확인한 사례는 방역과 위생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와 시설의 수준뿐 아니라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구조와 문화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월간산란계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가 매월 발행하는 월간산란계는
산란계산업에 대한 독자여러분들의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투고(기고)사항

1. 원고 형식 및 내용은 자유롭게 작성한다.(단, 특정업체 및 제품 홍보는 제외)
2. 원고는 한글·워드 등 전산으로 작성하여 전달한다.(A4용지 4페이지 이내)
3. 본 월간지에 맞지 않는 원고는 수정을 권유하거나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4. 투고하실 곳: 2343206@naver.com, tel: 043-234-3206

한국양계농협, 조합원 화합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 다짐

2026 조합원·준조합원 한마음 대축제 개최… 500여 명 참석

한국양계농협(조합장 정성진)은 지난 10월 8일 경기 안성팜랜드 종합행사장에서 '2026 조합원·준조합원 한마음 대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조합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조합원과 준조합원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조합원과 준조합원 등 500여 명을 비롯해 문원탁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안두영 대한산란계협회장, 서울 및 산지 농·축협 조합장 등 농협과 양계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합원 화합과 협력 다지는 자리 마련

정성진 조합장은 기념사에서 조합원이 생산한 계란이 시장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그 성과가 다시 농가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합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행사가 한국양계농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조합원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고객에게는 신뢰받는 협동조합으로 발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념사를 하고 있는 정성진 조합장

이어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며 한국양계농협과 양계산업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조합원들의 실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유통 자동화·가공사업 확대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 추진



조합 발전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우수조합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정성진 조합장(가운데)이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 조합장은 이날 한국양계농협의 향후 사업 추진 방향도 제시했다. 기존 계란 유통과 사료 공급 중심의 경제사업을 생산기반 강화와 가공 분야로 확대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계란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한국양계농협은 2027년 상반기 신용·경제사업 통합청사를 건립하고 있다. 통합청사는 조합 업무공간을 넘어 조합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계란 유통센터에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로봇 자동화시스템 도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난가공공장과 중추장 건립도 적극 추진해 경제사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계란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조합 발전에 기여한 우수조합원과 조합사업 이용 고객 등을 대상으로 시상이 이뤄졌다. 또한 조합원들은 조합사업 전이용에 적극 참여하고 조합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동참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기념식 이후에는 레크리에이션과 노래자랑, 초청가수 공연,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함께 어울리며 친목을 다지고 조합원과 준조합원 간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양계농협은 이번 한마음 대축제를 계기로 조합원 간 협력을 강화하고, 생산·유통·가공 분야의 사업 확대를 통해 조합원 실익 증진과 양계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역할을 이어갈 계획이다.



행사장에 자리한 참석자들이 한마음 대축제를 즐기고 있다.



룰렛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 줄을 선 참석자들



행사장에 전시된 한국양계농협의 다양한 제품

산란계 농장에서 알면 유익한 세무정보

농업영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농민에게 농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기자재의 종류에 따라 부가가치세에 대한 처리가 달라집니다. 공급업자에게 기자재 공급에 대한 영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와 기자재를 구입하는 농민에게 부가가치세를 사후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농민에게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환급해 주는 제도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환급대상 농민의 범위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법에서 규정하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농민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개인(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기자재를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다만, 농업용 무인헬리콥터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Ⅱ. 환급대상 기자재의 범위

환급대상 기자재는 다음과 같이 열거된 항목 내에서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며, 이에 대해서 세법 적용이 엄격하게 되므로, 농가들은 환급대상 기자재에 해당이 된다면 세금계산서 수취시 공급받은 물품명을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확히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농업·임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작물피복용, 과수 또는 수실류(樹實類) 재배용에 한정한다]과 그 부속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꽂이에 한정한다)		
2. 농업·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한다)		
3. 농업·임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산물·임산물·축산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4. 농업·임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5. 과일 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정한다)		
6. 인삼재배용 지주목·광망·차광지 및 은박지		
7. 차광망(연초·표고버섯 건조용 또는 과수·화훼·채소·야생화·산채 재배용에 한정한다)		
8. 농업·임업용 부직포(작물·수실류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9. 농업·임업용 배지(양액·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 및 양송이 재배용 복토		
10. 축산업용 톱밥(「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11. 이앙기용 멀칭종이(논농사 피복용에 한정한다)		
12. 농업·임업용 방조망(防鳥網) 및 방풍망(과수·수실류·작물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13. 농업·임업용 양수기	14. 볍씨발아기	15. 동력배토기
16. 동력예취기	17. 가축급여(家畜給與) 조사료(粗飼料) 생산용 필름	18. 화훼·야생화용 종자류
19. 채소봉지(애호박·오이용에 한정한다)	20. 버섯재배용기	21. 축산업용 차량방역기
22. 폐사축처리기	23. 축사세척기	24. 카우브러쉬
25. 축산 악취제거기	26.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27. 작물 지주대
28. 농업·임업용 무인헬리콥터	29. 농업·임업용 로더(2톤 미만)	30. 농업·임업용 굴삭기(1톤 미만)
31. 동력제초기	32. 농업·임업용 고압세척기	33. 농산물 및 임산물 저온저장고(바닥 면적이 17㎡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34. 농업·임업·축산용 환풍기(컨트롤러를 포함하며,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에 한정한다)		
35.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기	36.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용기	37. 축산용 정액 희석제
38. 축산용 인큐베이터	39. 축산용 출하돈 선별기	40. 축사용 보온등 컨트롤러
41. 축사용 쿨링 패드	42. 축사용 워터컵	43. 축사용 바닥재 [철재(鐵材) 바닥재에 한정한다]
44. 농산물·임산물 수확용 상자 (플라스틱 재질에 한정한다)	45. 화훼·야생화 재배용 배지	46. 화훼·야생화 재배용 화분(폴리에틸렌, 플라스틱 및 고무 재질에 한정한다)
47. 유해동물(해충을 포함한다) 포획기	48. 농업용 양파망·마늘망	49. 축산 착유용 라이너
50. 축산용 분만실 깔판	51. 축산용 대인소독기	52. 축산용 방역복
53. 조사료 생산용 네트 (2016. 2. 5. 신설)	54. 팽연왕겨 (2016. 2. 5. 신설)	55. 탈봉기 (2016. 2. 5. 신설)
56. 소문망 (2016. 2. 5. 신설)	57. 조사료 생산용 종자류 (2017. 2. 7. 신설)	58. 점적(點滴)호스(점적테이프 및 분수호스를 포함한다) (2017. 2. 7. 신설)
59. 농업용수 처리기 (2017. 2. 7. 신설)	60. 농업용 제습기 (2019. 2. 12. 신설)	61. 농산물 건조기 (2021. 2. 17. 신설)
62.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 (2021. 2. 17. 신설)	63. 개량 물꼬(논물의 수위를 조절하는 장치를 말한다) (2023. 2. 28. 신설)	64. 농업용 관비기 (2024. 2. 29. 신설)

65. 농업용 양액기 (2024. 2. 29. 신설)	66. 스마트팜용 센서류(온실이나 축사의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악취 등을 감지하여 환경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구동기류(驅動機類)·복합환경제어기 및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2025. 2. 28. 개정)	
67. 농업용 지게차 (2026. 2. 27. 신설)	68. 콩나물 재배용기 (2026. 2. 27. 신설)	69. 콩나물 두절기 (2026. 2. 27. 신설)

Ⅲ. 환급신청 및 환급절차

1. 환급신청

① 환급대행자(농업협동조합)를 통한 환급신청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농민 또는 농협을 통하여 기자재를 구입한 경우에는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가. 환급신청기한 : 기자재의 구입일 또는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다음 분기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환급대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서류 : - 농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대행신청서
- 세금계산서(기자재의 품목과 수량 각각 구분표시) 또는 법정증빙서류
- 농어민등확인서
-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② 개인이 직접 환급신청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환급신청기한 : 기자재의 구입일 또는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다음 분기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서류 : - 농업인 확인서 등 자격 확인자료
- 세금계산서(기자재의 품목과 수량 각각 구분표시)또는 법정 증빙서류
- 기자재 구입내역서
- 기자재 설치 및 사용 관련 자료
-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2. 환급절차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환급신청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환급대행자는 환급세액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환급대행을 신청한 농민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Ⅳ.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추징

① 농어민 등이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기자재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농어민 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② 농어민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가.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

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 외의 사업장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다. 재화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

라. 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해당 농어민이 임의로 수정한 세금계산서

마. 동일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이중으로 교부된 세금계산서

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 다만,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서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농어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Ⅴ. 실무 절세 포인트

축사 신축이나 시설 현대화, 자동화 설비 도입 등으로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기자재 구입 전에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시설업체와 계약할 때 장비와 건축공사비를 구분하고, 장비별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확보해 두면 환급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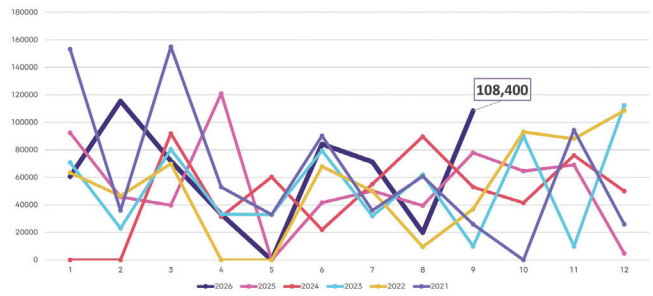


대현회계법인
Daehyun Accounting Corporation

대현회계법인 대표 공인회계사 송재현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7(자양동74-14) 한강파크빌딩 6층
TEL : 02)552-6100 FAX : 02)569-3746
상담전화 : 010- 4827-6100
Email : 1004cpa@naver.com

계좌번호 : 우리은행 138-009398-02-203

산란종계 입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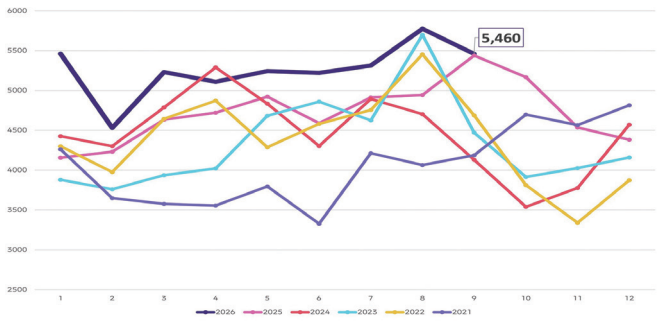


- 9월 산란종계 입식 108,400수
  - 전월대비 444.7% 증가
  - 전년 동월대비 39.0% 증가

(단위: 수/암)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2026	60,600	115,440	72,000	33,280	0	84,240	71,300	19,900	108,400				565,160
2025	92,400	45,760	39,800	121,000	0	41,600	50,240	39,500	77,960	64,590	69,040	4,800	646,690
2024	0	0	91,900	31,300	60,320	22,000	55,120	89,700	53,000	41,500	76,020	50,000	570,860
2023	70,721	23,000	80,320	33,280	33,000	79,600	32,000	62,000	10,000	90,120	10,000	112,320	636,361
2022	63,400	46,600	70,000	0	0	68,000	50,000	9,500	37,000	93,050	88,000	108,600	634,150
2021	153,199	36,000	154,936	53,000	33,000	90,240	36,000	60,700	26,000	0	94,360	26,000	763,435

산란실용계 판매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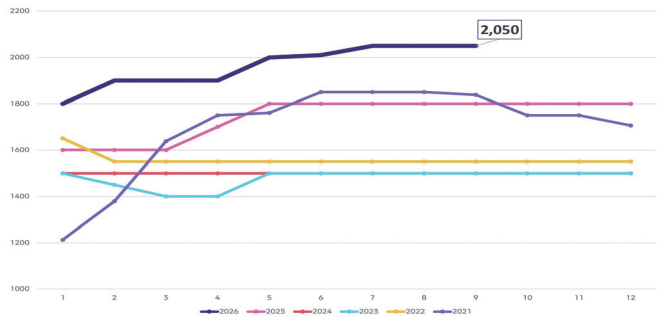


- 9월 산란실용계 판매수 5,460천 수
  - 전월대비 5.4% 감소
  - 전년 동월대비 0.4% 증가

(단위: 천 수/암)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2026	5,462	4,530	5,231	5,110	5,243	5,222	5,313	5,774	5,460				47,345
2025	4,156	4,231	4,634	4,721	4,922	4,588	4,912	4,943	5,439	5,167	4,536	4,382	56,631
2024	4,426	4,301	4,787	5,290	4,834	4,303	4,894	4,703	4,130	3,540	3,776	4,571	53,555
2023	3,879	3,760	3,937	4,021	4,682	4,860	4,625	5,699	4,471	3,914	4,026	4,158	52,032
2022	4,300	3,976	4,644	4,872	4,288	4,581	4,755	5,455	4,688	3,813	3,340	3,873	52,585
2021	4,261	3,649	3,577	3,556	3,796	3,327	4,213	4,064	4,186	4,698	4,567	4,814	48,708

산란실용병아리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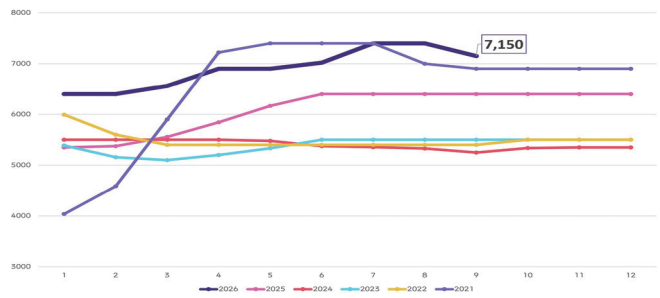


- 9월 산란병아리 가격 2,050원
  - 전월과 동일
  - 전년 동월대비 13.9% 상승

(단위: 원/수)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평균
2026	1,800	1,900	1,900	1,900	2,000	2,010	2,050	2,050	2,050				1,962
2025	1,600	1,600	1,600	1,7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742
2024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2023	1,500	1,450	1,400	1,4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437
2022	1,650	1,550	1,550	1,550	1,550	1,550	1,550	1,550	1,550	1,550	1,550	1,550	1,558
2021	1,213	1,379	1,638	1,750	1,761	1,850	1,850	1,850	1,838	1,750	1,750	1,706	1,694

산란계 중추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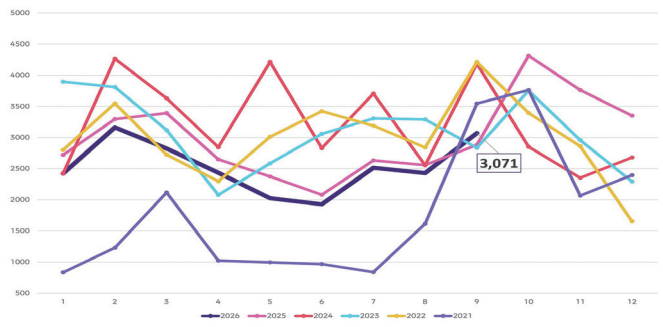


- 9월 산란계 중추가격 7,150원
  - 전월대비 3.4% 하락
  - 전년 동월대비 11.7% 상승

(단위: 원)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평균
2026	6,400	6,400	6,560	6,900	6,900	7,020	7,400	7,400	7,150				6,903
2025	5,350	5,375	5,556	5,844	6,167	6,400	6,400	6,400	6,400	6,400	6,400	6,400	6,091
2024	5,500	5,500	5,500	5,500	5,478	5,375	5,356	5,328	5,250	5,338	5,350	5,350	5,402
2023	5,388	5,157	5,100	5,200	5,333	5,500	5,500	5,500	5,500	5,500	5,500	5,500	5,389
2022	5,992	5,600	5,400	5,400	5,400	5,400	5,400	5,400	5,400	5,500	5,500	5,500	5,491
2021	4,038	4,586	5,900	7,222	7,400	7,400	7,400	7,000	6,900	6,900	6,900	6,900	6,545

산란성계육 도축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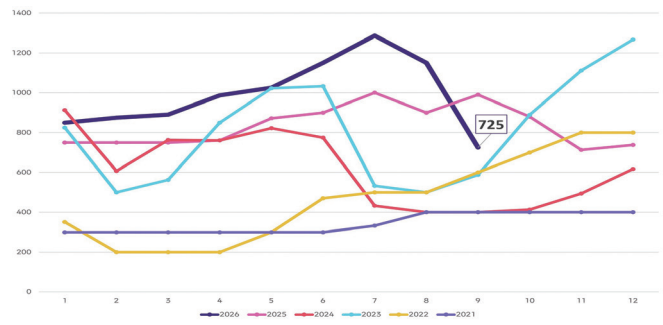


- 9월 산란성계육 도축 3,071천 수
  - 전월대비 26.4% 증가
  - 전년 동월대비 6.5% 증가

(단위: 천 수)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2026	2,423	3,163	2,824	2,435	2,026	1,929	2,515	2,429	3,071				22,815
2025	2,722	3,297	3,393	2,650	2,375	2,081	2,634	2,558	2,883	4,315	3,763	3,352	36,023
2024	2,425	4,266	3,631	2,846	4,215	2,831	3,707	2,554	4,187	2,852	2,353	2,679	38,546
2023	3,897	3,812	3,121	2,080	2,586	3,059	3,309	3,292	2,836	3,755	2,959	2,295	37,001
2022	2,803	3,548	2,724	2,299	3,013	3,423	3,191	2,842	4,212	3,397	2,862	1,657	35,971
2021	835	1,230	2,118	1,024	997	967	840	1,614	3,547	3,764	2,068	2,396	21,400

산란성계육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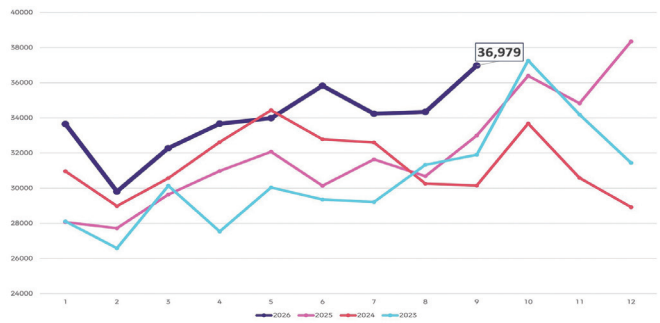


- 9월 산란성계육 가격 725원
  - 전월대비 36.9% 하락
  - 전년 동월대비 26.8% 하락

(단위: 원/1.8kg기준)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평균
2026	850	875	890	987	1,025	1,150	1,287	1,150	725				993.2
2025	750	750	750	761	872	900	1,000	900	990	880	713	738	833.7
2024	913	607	763	761	822	775	433	400	400	413	494	617	616.5
2023	825	500	563	850	1,022	1,033	533	500	588	889	1,111	1,267	807
2022	351	200	200	200	300	470	500	500	600	700	800	800	468
2021	300	300	300	300	300	300	333	400	400	400	400	400	344

육추사료 생산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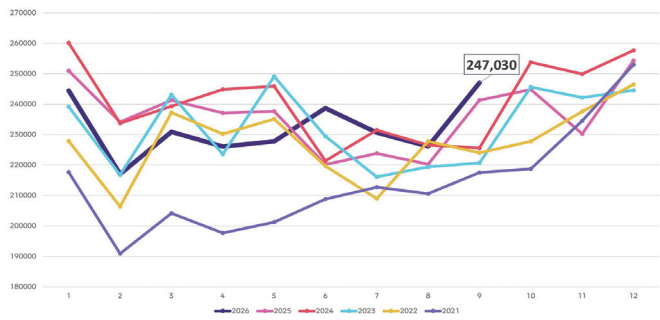


- 9월 육추사료 생산실적 36,979톤
  - 전월대비 7.7% 증가
  - 전년동월대비 12.1% 증가

(단위: M/T)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2026	초추	8,593	8,207	9,381	9,303	10,205	9,843	9,691	10,105	11,207				86,535
	중추	21,033	17,842	19,910	21,227	20,424	21,900	21,017	21,121	22,358				186,832
	대추	4,028	3,759	2,989	3,139	3,354	4,085	3,530	3,114	3,414				31,412
소계		33,654	29,808	32,280	33,669	33,983	35,828	34,238	34,340	36,979				304,779
2025	초추	7,534	6,972	8,278	9,560	8,662	7,692	8,444	8,816	9,868	9,521	9,172	10,594	105,113
	중추	16,952	17,251	17,700	18,106	19,164	18,926	18,585	18,135	19,940	23,052	22,325	23,247	233,383
	대추	3,583	3,501	3,660	3,315	4,250	3,520	4,611	3,734	3,192	3,824	3,333	4,511	45,034
소계		28,069	27,724	29,638	30,981	32,076	30,138	31,640	30,685	33,000	36,397	34,830	38,352	383,530
2024	초추	7,749	7,002	8,168	9,543	8,876	7,969	8,185	8,562	7,794	7,728	7,264	7,058	95,898
	중추	19,121	18,477	18,249	19,009	21,610	20,569	20,517	17,848	19,271	21,807	19,805	17,757	234,040
	대추	4,097	3,503	4,156	4,072	3,953	4,249	3,902	3,848	3,089	4,149	3,514	4,110	46,642
소계		30,967	28,982	30,573	32,624	34,439	32,787	32,604	30,258	30,154	33,684	30,583	28,925	376,580

산란사료 생산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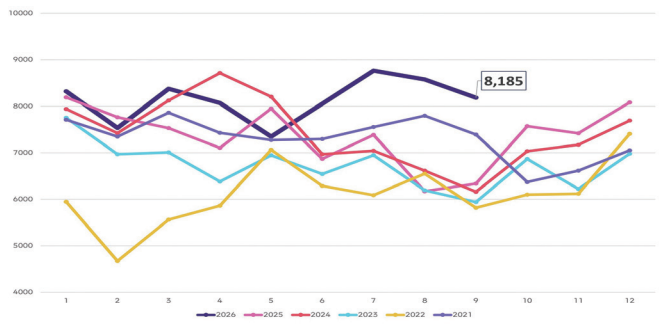


- 9월 산란사료 생산 247,030톤
  - 전월대비 9.2% 증가
  - 전년동월대비 2.4% 증가

(단위: M/T)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2026	244,472	217,050	230,898	226,080	227,763	238,714	230,650	226,121	247,030				2,088,778
2025	250,973	234,145	241,299	237,110	237,630	220,178	223,789	220,243	241,326	244,805	230,241	254,298	2,836,037
2024	260,153	233,726	239,313	244,820	245,886	221,366	231,481	226,570	225,568	253,792	249,891	257,661	2,890,227
2023	239,206	216,764	243,096	223,577	249,104	229,431	216,099	219,382	220,683	245,606	242,185	244,560	2,789,693
2022	227,880	206,371	237,236	230,206	235,121	219,673	208,980	227,766	224,026	227,791	237,586	246,488	2,729,124
2021	217,657	190,914	204,179	197,658	201,217	208,817	212,719	210,570	217,533	218,749	234,501	252,977	2,567,491

산란종계사료 생산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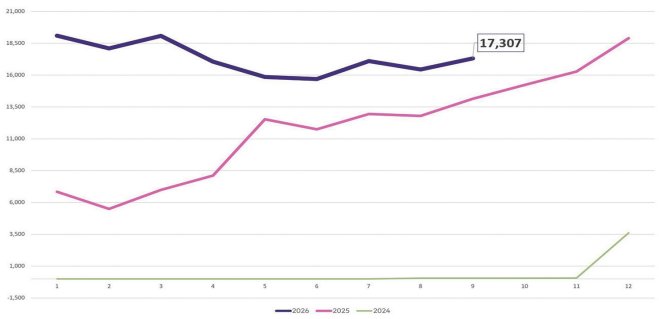


- 9월 산란종계사료 8,185톤
  - 전월대비 4.6% 감소
  - 전년동월대비 29.1% 증가

(단위: M/T)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2026	8,321	7,532	8,377	8,071	7,348	8,056	8,767	8,578	8,185				73,235
2025	8,192	7,764	7,530	7,105	7,948	6,870	7,384	6,170	6,336	7,573	7,420	8,083	88,375
2024	7,939	7,421	8,124	8,716	8,205	6,967	7,044	6,615	6,160	7,033	7,172	7,694	89,090
2023	7,753	6,969	7,008	6,380	6,944	6,542	6,948	6,193	5,940	6,867	6,221	6,980	80,745
2022	5,947	4,671	5,563	5,860	7,062	6,286	6,087	6,551	5,817	6,100	6,119	7,407	73,470
2021	7,711	7,347	7,862	7,428	7,276	7,296	7,555	7,796	7,391	6,371	6,615	7,052	87,700

산란계용(질소저감사료) 생산실적



- 9월 질소저감사료 17,307톤
  - 전월대비 5.3% 증가
  - 전년동월대비 22.4% 증가

(단위: M/T)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2026	19,091	18,096	19,083	17,058	15,857	15,693	17,103	16,434	17,307				155,722
2025	6,841	5,497	6,989	8,109	12,528	11,742	12,947	12,792	14,141	15,223	16,282	18,892	141,983
2024	0	0	0	0	0	0	0	61	61	61	69	3,610	3,862

주령별 사육수수(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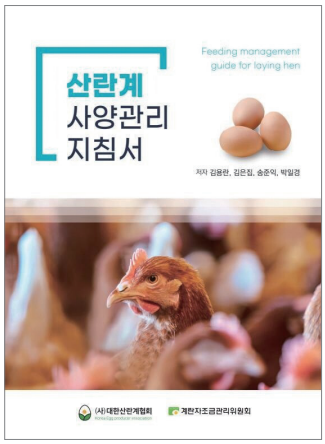
2026년 9월 말 기준(자료 열람일: 2026.10.20.)

(단위: 천 수)

주령	수도권	충청권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21~25	1,557	1,305	675		1,525	472	199	6,005
26~30	1,409	1,478	624		1,148	581	3	5,575
31~35	1,916	1,830	242		704	479	3	5,394
36~40	2,652	1,099	73		948	378	1	5,359
41~45	1,465	962	147		1,351	364	1	4,574
46~50	1,110	1,038	219		1,109	362	138	4,231
51~55	1,395	752	313		1,297	539	119	4,702
56~60	1,574	2,698	280		499	452	2	5,683
61~65	1,040	1,224	96		988	459	97	4,095
66~70	962	1,003	167		869	223	11	3,481
71~75	881	1,088	53		656	391	94	3,328
76~80	1,398	631	282		748	340	151	3,613
81주령 이상	3,102	1,962	1,510		2,942	1,339	88	11,641
합계	20,461	17,070	4,681		14,784	6,379	907	67,681

출처: 축산물품질평가원

산란계 사양관리지침서 판매 안내



사)대한산란계협회는 산란계농장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한 산란계 사양관리지침서를 판매합니다.

대상자: 산란계농가 및 관련업계 종사자

금액 | 권당 30,000원

신청 | 043-234-3206

2026년 3/4분기(9월 1일 기준) 가축동향조사 결과(요약)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8,654만 4천 마리로 전년동기대비 546만 1천 마리(6.7%), 전분기대비 755만 9천 마리(9.6%) 각각 증가

• 산란종계* 증가에 따른 병아리 입식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3개월 미만(24.8%) 마릿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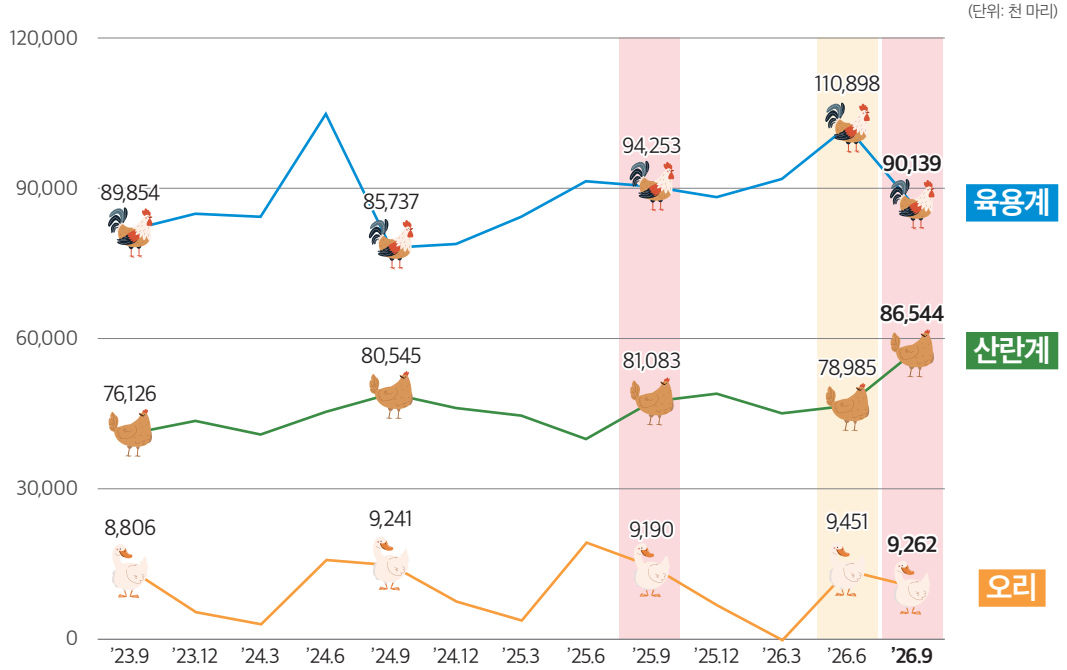
* 산란종계(6개월 이상 암컷, 천 마리): 674('25.9.) → 710('26.6.) → 783('26.9.)

(단위: 천 마리, %)

구 분	'25. 9월	'26. 6월	'26. 9월	증감(증감률)	
				전분기	전년동기
합 계	81,083	78,985	86,544	7,559(9.6)	5,461(6.7)
3개월 미만	11,117	13,202	13,874	672(5.1)	2,757(24.8)
3~6개월 미만	11,511	9,608	11,880	2,272(23.6)	369(3.2)
6개월 이상	58,455	56,176	60,790	4,615(8.2)	2,336(4.0)

산란계, 육용계, 오리 사육 마릿수 동향

(단위: 천 마리)



조사결과 총괄표

(단위: 천 마리, 가구, %)

구분		'22.12.	'23.12.	'24.12.	2025년			2026년			증감(증감률)	
					6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전분기	전년동기
총 마릿수		173,136	182,127	178,474	198,832	186,191	187,070	185,050	201,272	187,763	-13,509 (-6.7)	1,572 (0.8)
산란계	소계	74,188	77,202	79,003	77,724	81,083	82,692	77,747	78,985	86,544	7,559 (9.6)	5,461 (6.7)
	3개월미만	10,003	9,935	9,701	11,695	11,117	13,210	11,371	13,202	13,874	672 (5.1)	2,757 (24.8)
	3~6개월미만	10,061	10,702	10,210	9,135	11,511	11,156	10,249	9,608	11,880	2,272 (23.6)	369 (3.2)
	6개월이상	54,124	56,565	59,092	56,894	58,455	58,326	56,127	56,176	60,790	4,615 (8.2)	2,336 (4.0)
육용계	소계	88,713	94,115	88,975	109,763	94,253	93,657	96,463	110,898	90,139	-20,759 (-18.7)	-4,113 (-4.4)
	육계	69,395	74,222	68,223	76,389	73,666	72,782	72,731	75,432	70,106	-5,326 (-7.1)	-3,560 (-4.8)
	삼계	13,432	14,955	15,761	24,265	15,680	15,686	18,024	26,313	15,193	-11,120 (-42.3)	-487 (-3.1)
	토종닭	5,886	4,939	4,991	9,108	4,907	5,190	5,709	9,154	4,841	-4,313 (-47.1)	-66 (-1.3)
종계	소계	10,234	10,809	10,496	11,346	10,855	10,721	10,840	11,388	11,079	-308 (-2.7)	225 (2.1)
	육용(원)종계	8,653	9,490	9,246	9,724	9,150	9,227	8,931	9,676	9,423	-253 (-2.6)	273 (3.0)
	산란(원)종계	1,345	886	1,009	1,285	1,263	1,197	1,602	1,457	1,294	-163 (-11.2)	31 (2.4)
	토종닭(원)종계	237	432	241	337	442	297	307	255	363	108 (42.2)	-80 (-18.0)
사육 가구수		2,694	2,815	2,687	3,064	2,889	2,827	2,833	3,123	2,904	-219 (-7.0)	15 (0.5)
규모별 가구수	10천마리 미만	197	182	181	198	194	169	185	179	184	5 (2.8)	-10 (-5.2)
	10~30천 마리 미만	562	596	548	618	639	609	588	668	625	-43 (-6.4)	-14 (-2.2)
	30천마리 이상	1,935	2,037	1,958	2,248	2,056	2,049	2,060	2,276	2,095	-181 (-8.0)	39 (1.9)
가구당 마릿수(마리)		64,267	64,699	66,421	64,893	64,448	66,173	65,320	64,448	64,657	209 (0.3)	209 (0.3)
- 산란계		79,176	81,782	82,899	81,987	81,572	81,631	77,669	77,285	79,912	2,627 (3.4)	-1,660 (-2.0)
- 육용계		61,013	60,877	62,177	61,047	59,692	62,438	63,505	61,610	59,185	-2,425 (-3.9)	-507 (-0.8)

주 1) 사육 가구수는 산란계·육용계·종계 복합 사육 가구인 경우 1가구로 집계
2) 2006년부터 3,000마리 이상 사육가구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자료
3) 2021년 1분기~2022년 1분기는 종계용도별 마릿수 시험조사
4) 2022년 1분기~2022년 4분기는 육용계 세부용도별 마릿수 시험조사

신계군 생산 증가에 따른 공급 부담 지속… 소비 둔화 속 AI 발생 동향 주목

[현황]

10월 계란 시장은 지난달에 이어 전반적으로 거래 흐름이 둔화된 가운데, 신계군의 본격적인 생산 가담에 따른 공급 여력 확대와 소비 감소가 맞물리면서 가격 약세가 나타나고 있다. 농가별 판매 여건에는 차이가 있으나, 시장 전반적으로 계란 거래가 원활하지 않은 모습이며, 특란 기준 산지가격도 160원대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파악된다. 생산 측면에서는 연초부터 입식된 신계군이 본격적으로 생산에 가담하면서 공급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신계군은 입식 초기 상대적으로 작은 알을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대란 이하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 여력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중란은 공급량이 충분한 가운데 체화 현상이 이어지고 있으며, 왕란·특란 역시 뚜렷한 공급 부족 없이 보합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체화 조짐이 나타나는 등 규격 전반의 거래 흐름이 둔화되고 있다. 한편, 계란 부족 시기에 도계를 미루고 연장사육을 이어왔던 고주령 계군의 산란성계 도계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생산성이 낮은 계군을 정리하려는 농가의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도계 물량은 상당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신계군의 생산 가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도계 확대만으로 시장 내 공급 부담이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향후 도계 규모와 신계군의 생산 증가 추이가 전체 생산 기반 및 규격별 공급 여건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비 측면에서는 추석 명절 이후 계란 소비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명절 이후 나타나는 계절적 소비 둔화와 함께 시장 내 공급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 맞물리면서 전반적인 거래 흐름이 약화되고 있다. 농장별 거래 상황에는 차이가 있으나, 소비가 공급 물량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면서 중란을 중심으로 체화가 이어지고 있으며, 전반적인 계란 가격도 점차 하락하는 분위기다. 또한 10월부터 고병원성 AI 특별방역기간에 돌입하면서 철새 이동에 따른 AI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방역 상황에 따라 유통업체의 선제적인 계란 매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실제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규모와 유통 흐름 변화는 향후 계란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통계자료]

9월 산란종계 입식현황은 108,400수로 전월대비(19,900수) 444.7% 증가, 전년대비(77,960수) 39.0% 증가하였다. 산란계 병아리

판매수는 5,460천수로 전월대비(5,774천수) 5.4% 감소, 전년대비(5,439천수) 0.4% 증가하였다. 육추 사료 생산실적은 36,979톤으로 전월대비(34,340톤) 7.7% 증가, 전년대비(33,000톤) 12.1% 증가하였고 산란계 사료는 247,030톤으로 전월대비(226,121톤) 9.2% 증가, 전년대비(241,326톤) 2.4% 증가하였다. 산란성계 도축실적은 3,071천수로 전월대비(2,429천수) 26.4% 증가, 전년대비(2,883천수) 6.5% 증가하였다.

[전망]

11월 계란 시장은 신계군의 지속적인 생산 가담으로 공급 여력이 유지되는 가운데, 소비 둔화에 따른 거래 부진과 가격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0월 말 특란 기준 산지가격이 160원대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뚜렷한 소비 회복이나 공급 조정 요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시장 여건은 점차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생산 측면에서는 연초부터 입식된 신계군의 생산 가담이 이어지면서 대란 이하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계군의 생산 비중이 높아질수록 중란을 중심으로 한 물량 증가가 이어질 수 있으며, 소비가 이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할 경우 체화 현상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산란성계 도계가 지속되고 있지만, 신계군의 생산 증가를 상쇄할 정도의 공급 조정이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왕란·특란 역시 현재의 보합세에서 벗어나 거래 부진에 따른 약한체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향후 규격별 수급 상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비 측면에서는 추석 이후 나타난 소비 둔화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내 공급 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소비가 뚜렷하게 회복되지 않을 경우, 농가별 판매 부담이 커지고 물량 소진에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급량이 충분한 중란은 가격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왕란·특란도 소비 부진이 지속될 경우 거래가 둔화되고 체화가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규격별 수급 차이가 점차 완화되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다만 11월은 고병원성 AI 특별방역기간이 이어지는 가운데 철새 이동에 따른 AI 발생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시기다. AI 발생이 확대될 경우 살처분에 따른 생산 기반 변화와 유통업체의 선제적 매집 등으로 계란 수급이 빠르게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AI 발생에 따른 공급 차질이 크지 않고 현재의 생산 및 소비 흐름이 유지된다면 공급 부담이 누적되면서 가격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가격 흐름은 생산 증가뿐 아니라 AI 발생 여부와 그에 따른 실제 공급 변화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적으로 11월 계란 시장은 신계군 생산 가담에 따른 공급 여력 유지와 소비 둔화로 약세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중란은 공급 여유와 체화가 이어지고, 대란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왕란·특란도 보합세 속 약한 체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란성계 도계 규모와 소비 회복 여부, 고병원성 AI 발생 동향이 향후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방역 상황과 유통 흐름에 따른 수급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2026년 11월호

계란자조금 소식



Egg Board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계란자조금소식/지역별디지털마케팅

수입산대응, 세계 최고품질 한국계란 각인 홍보, 7명의 유명셰프, 푸드백신 한국계란요리 확산 앞장!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28일부터 전국 지역별 도지회와 함께 '지역별 디지털마케팅 사업'의 일환으로 '에그투게더' 계란 나눔 행사와 거출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축제와 연계한 계란 나눔을 통해 HACCP(해썹) 100% 인증을 받은 한국산 계란의 안전성과 우수한 영양학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한국산 계란의 소비촉진과 긍정적인 소비 인식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행사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등 주요 인사들이 함께 소비자에게 수입산 대비 한국산 계란의 차별적 우수성을 알리는 계란 소비촉진 활동에 박차를 가하였다.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역별 도지회를 비롯한 산란계 농가와 협력하여 계란 나눔 행사와 소비촉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삼시세끼 푸드백신 계란'을 넘어 '하루 열 개 푸드백신 계란'이라는 새로운 소비문화 확산을 목표로 한국산 계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계란 소비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계란자조금소식/온오프라인 홍보 및 행사

11월 계란기부 마라톤, 계란요리 및 펫푸드경연

11월 7일 계란기부와 계란홍보를 결합한 '2026 에그런'을, 11월 21일에는 '계란요리경연대회 및 알닭 펫푸드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단체급식 계란요리와 펫 요리를 개발한다.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 참여형 홍보 행사를 확대하여 '삼시세끼 푸드백신 계란'의 가치를 확산하고 계란 소비촉진에 앞장설 계획이다.





계란자조금소식/거출홍보사업

2027년 축산정책 지원사업, 계란자조금 납부 필수 요건… 성실납부 당부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는 2027년 축산정책 지원사업인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산란계 케이지 지원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계란자조금 납부 여부가 중요한 요건으로 적용됨을 안내하고, 미납으로 인한 농가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자조금 납부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위원회는 미납농가를 대상으로 납부의사 및 미납내역을 재확인하고, 2차 내용증명 발송 등 단계별 미수금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체계적인 미수금 관리에 힘입어 지난 9월 거출실적 5억 3천만 원을 기록하며 최근 3개년 중 월 단위 실적 중 최고 성과를 달성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농가생존권과 계란산업발전을 위해 농가별 납부 및 미납 이력을 농가에 신속하게 전달하여 산란계 농가 100%가 의무자조금에 참여하도록 계란자조금 거출률 향상에 힘쓸 방침이다.



2026년 지역별 계란의무자조금 납부현황

시·도별 계란자조금 납부현황

(단위: 원, %)

지 역	농가거출금 납부액(2026년 1월~9월)			거출률
	청구액	납부액	미납액	
인천·경기	426,150,320	717,541,560	▲291,291,240	168%
강원	113,784,400	170,490,200	▲56,705,800	150%
충북	125,897,920	120,714,480	5,183,440	96%
대전·세종·충남	293,201,600	300,242,360	▲7,040,760	102%
전북	108,110,880	106,489,800	1,621,080	99%
광주·전남	149,274,160	126,607,000	22,167,160	84%
대구·경북	420,382,240	447,435,200	▲27,052,960	106%
울산·경남	240,052,640	277,770,400	▲37,717,760	115%
제주	18,009,440	22,541,360	▲4,531,920	125%
합계	**1,894,865,626**	**2,289,832,360**	**▲394,968,760**	**121%**

※ 청구액: 매월 청구 누계치, 납부액: 매월 납부 누계치
※ 납부액: 미수금 회수분을 포함함. 따라서 현재 표의 거출률은 '당해 연도 청구액 대비 실제 납부액'을 의미 100%를 초과할 수 있음.

계란자조금 거출금액 변경 안내

기간	수당 거출금액
2009년 6월 1일 ~ 2011년 1월 31일	산란성계: 100원, 산란종계: 300원, 중추: 10원
2011년 2월 1일 ~ 2015년 11월 30일	산란성계: 50원, 산란종계: 300원, 중추: 10원
2015년 12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산란성계: 80원, 산란종계: 300원, 중추: 10원
2017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산란성계: 80원, 산란종계: 80원, 중추: 10원
2026년 1월 1일 ~ 현재	산란성계: 80원, 산란종계: 80원

계란자조금 영수증, 납부확인서 발급

- **계란자조금 영수증**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 적격 증빙, 해썹(HACCP) 교육비 지원 등, 자조금 납부 내역 확인 후 해당 납부 월에 농가에 발행
- **계란자조금 납부확인서** 정부·지자체 정책 및 지원사업 신청 시 자조금 납부 실적 확인을 위한 증빙으로 해당 사업 기준에 따라 우대자료(인센티브)로 활용

계란자조금 계좌번호: (농협은행) 301-0017-6029-01, 예금주: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2026년 9월 계란의무자조금 집행현황

(기준일자: 2026. 9. 30. 단위: 원)

예산명	예산액(A)	집행금액(B)	잔액(A-B)
(소비홍보(100))	800,000,000	116,408,010	683,591,990
온,오프라인홍보 및 행사	300,000,000	115,101,210	184,898,790
지역별 디지털 마케팅	500,000,000	1,306,800	498,693,200
(유통구조개선(200))	120,000,000	0	120,000,000
계란 및 산란성 계육 수출경쟁력 확대	120,000,000	0	120,000,000
(교육및정보제공(300))	1,340,000,000	307,304,410	1,032,695,590
전국 산란인 대회	100,000,000	0	100,000,000
전국 양계인 대회	20,000,000	0	20,000,000
산란계농가 역량강화 교육 및 토론회	250,000,000	72,588,020	177,411,980
축산물 전시행사	50,000,000	0	50,000,000
산란계농가HACCP교육지원	20,000,000	0	20,000,000
축산물 전시행사	50,000,000	0	50,000,000
산란계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50,000,000	0	50,000,000
온라인 소비자 정보제공	300,000,000	55,220,040	244,779,960
계란생산농가 계란사랑 캠페인	120,000,000	34,420,000	85,580,000
자문위원회	30,000,000	6,372,700	23,627,300
산란계 및 계란관련 전문위원회	50,000,000	0	50,000,000
자조금 거출률 향상	300,000,000	138,703,650	161,296,350
(조사연구(400))	480,000,000	186,483,030	293,516,970
현재 유행하는 산란계질병 현황 및 대책연구	80,000,000	38,916,000	41,084,000
산란계 AI 방역체제 개선	50,000,000	24,795,000	25,205,000
해외 산란계 및 계란유통 실태와 경쟁력 비교조사연구	100,000,000	45,665,500	54,334,500
민간주도형 계란 인증제 및 인식개선	50,000,000	0	50,000,000
계란 및 산란성계육 가공제품 개발연구	50,000,000	0	50,000,000
산란계 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방안 연구	100,000,000	77,106,530	22,893,470
계란자조금 사업평가	50,000,000	0	50,000,000
(수급안정(500))	1,449,000,000	459,134,080	989,865,920
계란 생산기반 유지 및 안정사업	650,000,000	0	650,000,000
농가 방역물품 지원사업	200,000,000	68,228,000	131,772,000
소비자대상소비촉진행사	250,000,000	82,890,000	167,110,000
폭염 대비 영양제 및 열차단제 지원사업	349,000,000	308,016,080	40,983,920
(운영관리(600))	400,000,000	219,388,861	180,611,139
인건비(610)	289,000,000	175,809,718	113,190,282
경비(620)	75,000,000	19,514,243	55,485,757
자산취득비(630)	3,000,000	1,841,160	1,158,840
기타경비(640)	33,000,000	22,223,740	10,776,260
(기타비용(700))	165,000,000	70,789,062	94,210,938
징수수수료	100,000,000	39,699,122	60,300,878
대의원 및 임원선거	50,000,000	23,023,540	26,976,460
내부 및 외부감사	15,000,000	8,066,400	6,933,600
(예비비(800))	560,000,000	0	560,000,000
수급안정 예비비	560,000,000	0	560,000,000
기타예비비	0	0	0
합계	5,314,000,000	1,359,507,453	3,954,492,547

2026년 9월 납부내역

기준일자: 2026.9.30

지역	농장명	대표	납부금액 1월~8월	납부금액 9월	수납기관
전국			1,758,619,000	531,213,360	
강원도			144,242,920	26,247,280	
강릉시	모솔양계	김*도	422,000		정우에프씨㈜
	싱싱축산	김*영	594,800		정우에프씨㈜
고성군	설악농장	김*선	565,120		정우에프씨㈜
	오월의숲농장	최*운	72,000	24,000	위원회
삼척시	계성양계영농조합법인	엄*태	18,666,960	341,520	㈜신우에프에스
	낙원농장	이*건	5,466,000		한송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계성	권*경	100,480	6,304,640	㈜신우에프에스
양구군	농원농산	김*봉	419,040		정우에프씨㈜
	양구동물복지농장㈜	김*국	878,000		한송
	에덴농장	주*규	60,000		위원회
	웰빙영농조합법인 임당리 농장	엄*석	242,880	316,560	정우에프씨㈜
	푸른알 영농조합법인	주*규	30,000		위원회
	해인축산	조*철	417,840		정우에프씨㈜
양양군	굿앤굿	김*연	62,320		한송
영월군	농업회사법인 강남농장㈜ 영월	김*문	1,795,920		정우에프씨㈜
	영월동물복지농장	문*원	810,400		한송
원주시	구학축산	박*선	2,433,920		정우에프씨㈜
	궁촌 영농조합법인	안*선		2,240,080	위원회
	농업회사법인 귀래농장㈜	박*녀	5,219,680		정우에프씨㈜
	두진농장	이*규	825,600		정우에프씨㈜
	장원농장	장*선	3,476,000		정우에프씨㈜
	치악농장	이*운	3,366,320		정우에프씨㈜
인제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곰두리	박*균	7,269,200		정우에프씨㈜
	산울림농장	고*진	400,000		㈜싱그린에프에스
철원군	개화영농조합법인	김*도	2,876,880		㈜싱그린에프에스
	명성농장	신*문		5,233,680	위원회,정우에프씨㈜
	한일농장 철원B	유*원		1,540,880	정우에프씨㈜
	은총농장	김*래	6,530,000		정우에프씨㈜, 위원회
춘천시	푸른농장	최*철	1,129,600		정우에프씨㈜
태백시	세봉농장	박*자	1,494,560	581,680	정우에프씨㈜
평창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장*식	241,920		한송
홍천군	아시대농장	박*철	2,399,680		㈜싱그린에프에스
	홍천자연랜드	이*기	187,760		정우에프씨㈜
화천군	농원농장	김*현	104,800		정우에프씨㈜
	풍원농장	홍*신	326,320	188,800	정우에프씨㈜
횡성군	성심축산	김*영	3,565,600	3,338,720	정우에프씨㈜
	벧엘농장 강원	전*희		944,720	정우에프씨㈜
	㈜정암농장	한*혁	513,680	495,760	㈜싱그린에프에스
	무리개농장 B	박*곤		4,696,240	정우에프씨㈜
	풀잎농장	손*수	24,637,440		정우에프씨㈜, 위원회
	횡성양계 영농조합법인	이*희	46,640,200		㈜싱그린에프에스, 한송
경기도			402,165,800	309,173,600	
가평군	대기농산(유)농업회사법인	이*호	7,395,680		위원회, 정우에프씨㈜
	하루해가평농장	조*구	298,560		정우에프씨㈜
고양시	장항양계	전*안	2,831,600		정우에프씨㈜
광주시	광주농장	김*배	17,368,480	3,106,880	위원회, ㈜한려식품, 정우에프씨㈜, (주)들녘
	길샘축산	이*형	2,148,000		㈜싱그린에프에스
	대승농장	손*기	6,462,240		위원회,정우에프씨㈜
김포시	농업회사법인 ㈜봉골농장	윤*광	3,406,400		정우에프씨㈜
	농업회사법인 주안 주식회사	송*진	5,875,600		정우에프씨㈜, ㈜싱그린에프에스
	도담농원	박*희		137,840	정우에프씨㈜
	써니농장	심*선	4,644,640		정우에프씨㈜
	유성농장	이*유	3,381,120		정우에프씨㈜
	태경농장	조*행	405,600		정우에프씨㈜
남양주시	그린농장	이*조	10,411,200		정우에프씨㈜
동두천시	장양농장	이*환	10,941,840		정우에프씨㈜, 코리아더커드
안성시	구칠농장	이*혁	2,154,160		정우에프씨㈜, 들녘
	농부마을	신*우	1,510,880		한송
	농업회사법인 선유팜㈜	정*철	2,016,160		㈜신우에프에스
	농업회사법인 조인㈜ 안성지점	김*강	9,508,240		정우에프씨㈜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명계농장	서*원	1,657,680		정우에프씨㈜, 위원회
	농업회사법인 ㈜양지 금광	김*주	1,452,560		㈜싱그린에프에스
	농업회사법인 텃골㈜	우*석	13,918,960		㈜신우에프에스
	농업회사법인 티지에프㈜	우*희	4,709,200	3,151,040	㈜신우에프에스
	두메축산	서*옥	4,378,880		㈜싱그린에프에스
	덕수농장	임*희	1,750,000		위원회
	서운농장	장*주	1,118,160		정우에프씨㈜
	수지농장	윤*영	782,560		정우에프씨㈜
	시헌농장	송*민	3,424,400	3,964,640	㈜싱그린에프에스

지역	농장명	대표	납부금액 1월~8월	납부금액 9월	수납기관
전국			1,758,619,000	531,213,360	
안성시	양촌농원1농장	최*순	449,920		정우에프씨㈜
	이나팜스	김*란	1,018,240		㈜한려식품
	해샘찬농장	김*찬	496,640		정우에프씨㈜
	NES농장2	최*필		12,198,080	정우에프씨㈜,위원회
양주시	꼬꼬농장	이*연	461,280		정우에프씨㈜
	도하농장	이*만	576,000		정우에프씨㈜
	선암농장	송*준	1,704,320		㈜싱그린에프에스
	쌍알농장	문*기	353,920		정우에프씨㈜
	에그드림	임*혁		776,160	㈜싱그린에프에스
	에그콜	황*옥	9,522,880		한송, 위원회
	에그트리	박*범	7,176,320		정우에프씨㈜, 위원회
	영흥농장	신*주	352,000		한송
	장수축산	장*주	1,307,120		정우에프씨㈜
	태양농장	김*복	6,947,040		정우에프씨㈜, ㈜싱그린에프에스
양평군	양동농장	이*규	1,231,120		㈜한려식품
	휘성농장	손*호	4,803,120		㈜싱그린에프에스
여주시	농업회사법인 상신농장(유)	김*홍	7,665,040		㈜신우에프에스
	대복농장	이*석	1,849,520		㈜싱그린에프에스
	삼흥농장	국*인	188,240		㈜싱그린에프에스
	서광농장	김*중	5,282,320		㈜싱그린에프에스
	선린농장	김*덕	3,320,000		㈜싱그린에프에스
	송운농장	이*선	361,200		㈜신우에프에스
	양지편농장	박*주	405,520		㈜신우에프에스
	에덴농장	손*일	369,520	208,320	정우에프씨㈜
	우솔농장	박*일	426,960		㈜신우에프에스
	은관농장	은*관	74,800		㈜싱그린에프에스
	햇살농장	황*영	191,040		정우에프씨㈜
	행복짓는농장	장*희	322,880		정우에프씨㈜
연천군	농업회사법인 안일농장㈜	안*기	3,990,640		정우에프씨㈜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산들농장	조*미		3,745,200	위원회, ㈜신우에프에스
	대광리농장	김*수	1,500,480		㈜한려식품
	미소농장	조*미	2,845,200		정우에프씨㈜
	서연농장	심*해	881,360	228,160	정우에프씨㈜
	유나네자연숲농장	김*현	78,480		정우에프씨㈜
	유월농장	조*희	2,314,320		정우에프씨㈜, ㈜싱그린에프에스
	유환농장	남궁*호	673,120		정우에프씨㈜
	이레농장	박*식	1,166,640		정우에프씨㈜
오산시	이나팜스	이*진	1,631,120		정우에프씨㈜, ㈜한려식품
용인시	농업회사법인 밀알 유한회사	임*라	298,080		정우에프씨㈜
	씨알유정란농장	유*순		879,600	㈜싱그린에프에스
	알찬유정란농장	박*용	138,640		정우에프씨㈜
	정원축산	정*윤	2,943,520		유진
이천시	농업회사법인 골드아이 유한회사	김*리	15,059,600		㈜싱그린에프에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자연애팜	정*윤	2,309,520		㈜싱그린에프에스
	상지농장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김*재	2,355,120		㈜싱그린에프에스
	설성양계	정*헌	6,368,160		㈜싱그린에프에스, 위원회
	부일농장	변*식		104,560	한송
	장릉농장	신*문	12,984,080		㈜싱그린에프에스
	현동농장	김*수	1,098,800		㈜한려식품
파주시	구구농장	이*우	2,645,200		정우에프씨㈜, 위원회
	덕일농장	이*수, 이*용	10,311,600		정우에프씨㈜, 한송, 위원회
	새말농장	이*재	403,040		정우에프씨㈜
	신한농장	신*우	1,946,000		정우에프씨㈜
평택시	농업회사법인 조인팜스㈜ 청북지점	권*수	14,321,520		정우에프씨㈜, ㈜싱그린에프에스
	농업회사법인 조인㈜ 청북지점	김*강, 한*권		6,012,880	㈜싱그린에프에스
	농업회사법인 히즈팜㈜ 고덕지점	한*진	3,110,920		위원회
	덕수농장	임*희	1,790,640		㈜싱그린에프에스
	제암농장	김*욱	118,800		정우에프씨㈜
	태성농장	이*갑	913,600		정우에프씨㈜
	호성축산	권*호	5,000,000		위원회
포천시	가온농장	정*수	7,086,320		한송
	계림농장	권*주	841,840		정우에프씨㈜
	농업회사법인 가농바이오㈜	유*흥	30,786,000	264,311,280	위원회, 정우에프씨㈜, 유진, 한송, 한려식품,㈜신우에프에스
	농업회사법인 삼우농장 주식회사	조*수	1,698,080		정우에프씨㈜
	농업회사법인 에그플러스㈜	김*환	2,000,000		정우에프씨㈜
	농업회사법인 최연축산㈜	최*덕	2,655,280		정우에프씨㈜
	대붕농장	김*중	5,051,920		㈜신우에프에스, 유진
	믿음농장 포천 A	유*숙		237,600	정우에프씨㈜
	미래농장	최*춘	3,774,240		정우에프씨㈜
	송이축산	이*덕	2,962,880		정우에프씨㈜
	송일농장	이*석	8,748,800		정우에프씨㈜
	성지농원	최*희, 김*선		1,345,280	정우에프씨㈜
	송일양계	이*근	2,305,600		정우에프씨㈜
	예산농장	김*구	5,211,840		정우에프씨㈜

지역	농장명	대표	납부금액 1월~8월	납부금액 9월	수납기관
전국			1,758,619,000	531,213,360	
포천시	원천농장	하*완	1,651,120		정우에프씨㈜
	영흥농장2	윤*일		425,440	정우에프씨㈜
	유림농장	박*권	798,000		정우에프씨㈜
	착한농장	성*훈	2,386,880		정우에프씨㈜
	칠곡농장	박*자	1,800,800		정우에프씨㈜
	포천일고등학교	황*현		425,360	정우에프씨㈜
	하늘농장	최*건	4,353,360		정우에프씨㈜
	협동농장	고*자	2,810,400		한송, 정우에프씨㈜
화성시	농업회사법인 ㈜양지뜰	김*주	7,088,240		㈜신우에프에스
	농업회사법인 파머스가든	양*남	21,055,760	6,456,800	정우에프씨㈜
	다산양계	박*준	4,970,240		정우에프씨㈜
	오늘농장	이*섭	468,880		정우에프씨㈜
	청석골농장	김*수	1,651,360	1,458,480	정우에프씨㈜
경상남도			223,644,480	50,885,440	
거창군	개선농원	김*도	10,637,840		㈜싱그린에프에스, 한송
	금곡양계장	유*연	3,602,560		㈜싱그린에프에스
	아림농장	박*연	11,488,000		㈜한려식품, 정우에프씨㈜, 유진, 한송, 들녘
	휘경농장	이*경		1,000,000	㈜신우에프에스
	환농장	이*휘		2,000,000	위원회
	오성농장	박*욱	4,132,400	3,198,800	한송
밀양시	구미농장	이*기	5,174,480	10,000,000	㈜싱그린에프에스
	구미2농장	이*현		6,100,000	위원회
	부광농원	최*형	1,998,000		㈜싱그린에프에스
	오영축산	김*조	2,953,920		㈜싱그린에프에스
	유풍농장	이*현	1,783,440		㈜싱그린에프에스
	한신종계장	서*효	196,080	352,960	㈜싱그린에프에스
산청군	더착한계란	공*빈	144,640		한송
	산청양계영농조합법인	이*희	4,342,080		㈜싱그린에프에스
	황매산농장	이*희	485,200		㈜싱그린에프에스
양산시	금정농장	이*진	3,783,440	11,867,200	㈜싱그린에프에스
	죽전농장	이*근		4,513,760	㈜한려식품
	삼보농장	김*일	194,400		㈜한려식품
의령군	건흥팜	김*숙	877,360		한송
	동천농장	우*원	1,009,840		한송
	의령농원	박*민	399,760		㈜한려식품
	자연농원	박*민	78,960		㈜한려식품
	정이식농장	정*식	1,413,760		㈜신우에프에스
	청람농원	홍*표	8,677,040		한송, 위원회
	황금알농장	오*	3,736,400		한송, 유진
진주시	금포영농조합법인	문*동	8,098,000		㈜싱그린에프에스, 위원회
	민희 영농조합법인	천*민	22,108,800		㈜싱그린에프에스, 위원회
	산골효자농장	박*정	239,760		㈜싱그린에프에스
	정아네 자연유정란	강*아	22,400		위원회
	해와달빛농장	윤*주	7,558,320		㈜싱그린에프에스
창녕군	대동축산	김*옥	4,938,720		㈜싱그린에프에스
	대영농장	문*영	4,147,120		㈜싱그린에프에스
	솔밭양계 영농조합법인	윤*식	9,424,880	3,996,000	㈜싱그린에프에스, 위원회
	에그파크	최*열	7,873,600		㈜싱그린에프에스
	우포양계 영농조합법인	윤*한	36,725,920	3,385,360	㈜싱그린에프에스, ㈜신우에프에스, ㈜한려식품
	케이비영농조합법인	최*정	4,367,360		㈜싱그린에프에스
	케이비팜	최*화	33,764,480		㈜싱그린에프에스, 위원회
하동군	청솔원농장	정*후	158,400		한송
함안군	부촌농장	허*우	2,748,720		㈜싱그린에프에스
	아라농원	송*성	4,696,240		㈜신우에프에스
	함안농원	박*흠		4,471,360	㈜싱그린에프에스
	희만농장	고*만	4,344,400		㈜싱그린에프에스
합천군	뿔당골 영농조합법인	이*민	5,051,120		㈜싱그린에프에스
	애향유정란	주*환	266,640		한송
경상북도			351,735,680	43,629,200	
군위군	해동양계 군위	임*문		1,412,800	위원회
경산시	신영와촌농장	김*섭	129,600		정우에프씨㈜
	청구농원	김*영	794,320		㈜싱그린에프에스
경주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명계농장	이*직	4,864,000	4,672,960	㈜한려식품
	농업회사법인 ㈜영축산	송*수	21,125,840		㈜싱그린에프에스, ㈜한려식품, 한송, 유진
	늘찬농장	전*완	1,810,800		㈜싱그린에프에스
	만석농장	김*환	6,804,960		㈜신우에프에스
	안성농장	권*택	3,677,200		㈜신우에프에스
김천시	김천소망농장	장*	3,221,280		㈜싱그린에프에스
	농업회사법인 ㈜산들란	이*영	12,804,480		㈜신우에프에스
	농업회사법인㈜에그드림	남*일	5,549,840		㈜신우에프에스
	동인농장	정*탁		545,600	㈜한려식품
	대영농원 김천2농장	우*원	3,837,040		㈜싱그린에프에스
	라온농장	민*기	4,208,000		㈜싱그린에프에스
	리라양계	최*희	3,021,520		㈜신우에프에스

지역	농장명	대표	납부금액 1월~8월	납부금액 9월	수납기관
전국			1,758,619,000	531,213,360	
김천시	문의축산	김*진	6,189,040		㈜싱그린에프에스
	미진농장	김*석		2,709,840	
	미명농원	성*진	2,578,720		한송
	산호농장	조*홈		8,716,720	㈜싱그린에프에스,㈜한려식품
	아름농장	이*연	14,403,440		㈜싱그린에프에스, 정우에프씨㈜, 위원회
	재진농장	오*진	7,567,520		㈜한려식품, 위원회
	청정에그팜	전*익	3,061,200		㈜신우에프에스
	희명농장	최*희	2,755,440		㈜신우에프에스
문경시	성실양계장	지*태	3,360,720		㈜싱그린에프에스
	파인트리애그팜	고*돈	434,880		정우에프씨㈜
상주시	농업회사법인 한국양계㈜ 상주	김*호	4,622,800		㈜신우에프에스
	대정팜	조*철		8,261,520	㈜싱그린에프에스
	천마산농장	박*호	152,720		정우에프씨㈜
성주군	분도축산	김*수	1,197,040	1,481,920	㈜싱그린에프에스
	오성농장	권*택	4,101,520		㈜싱그린에프에스
	진일농장	권*팔	2,958,320		㈜싱그린에프에스
	해동양계	임*문	2,496,320		㈜싱그린에프에스
안동시	농업회사법인 계명㈜	박*환	7,382,320		㈜싱그린에프에스
	농업회사법인 해밀팜㈜	정*혁	1,780,560	1,380,720	㈜신우에프에스
	풍산양계농장	권*우	1,191,040		㈜한려식품
영양군	농업회사법인 쿠쿠닭 주식회사	백*붕	118,800		한송
	산아초농장	김*범	1,000,080		정우에프씨㈜,한송,위원회
영주시	국일농장	진*국	6,689,520		㈜신우에프에스
	거성농장 영주	안*영		4,566,880	㈜싱그린에프에스
	대성2농장	고*국	1,227,600		정우에프씨㈜
	묵동농장	황*규	1,130,000		위원회
	믿음2농장	정*남	8,934,080		㈜싱그린에프에스
	소백양계 영농조합법인	권*종	10,022,720		㈜한려식품
	송백농원	김*성	3,413,920		㈜싱그린에프에스
	에그린4	권*종	4,638,080		㈜한려식품
	에그린5	권*종	1,891,920		㈜한려식품
	에그린6	권*종	1,747,680		㈜한려식품
	오상팜	황*원	468,080		정우에프씨㈜
	유석농원	김*중	2,718,640		한송
	은별농장	이*태	4,886,320		㈜싱그린에프에스
	봉산농장	김*성		1,324,080	정우에프씨㈜
	은혜농장	정*진	2,430,080		㈜싱그린에프에스
	정주농장	김*식	2,345,120		㈜신우에프에스
	협육농장	송*욱		3,051,440	한송
	한얼농장	전*표		1,040,000	위원회
	홍주LF	이*은	1,339,600	462,480	㈜신우에프에스
영천시	농업회사법인 성진부화장㈜	오*옥	8,024,560		㈜싱그린에프에스, 한송
	농업회사법인 ㈜윤송	한*협	12,253,840		㈜신우에프에스, 위원회
	대영농원	우*일	2,409,360		㈜신우에프에스
	대영농원	우*원	951,040	1,061,200	㈜싱그린에프에스
	대영농원 3농장	우*일	4,708,320		㈜싱그린에프에스
	대흥농장	박*용	50,376,080		㈜한려식품, 정우에프씨㈜, 유진
	송원농장	오*길	1,901,840		㈜싱그린에프에스
의성군	농업회사법인 운호농장 유한회사	한*혁	3,365,840		㈜싱그린에프에스
	농업회사법인 ㈜케이씨팜 봉양농장	김*철	6,033,920		㈜싱그린에프에스
	대영농원 4농장	우*원	14,146,720		㈜싱그린에프에스
	대영농원 의성3농장	우*원	11,621,120		㈜싱그린에프에스
	대영농원 의성5농장	우*일	12,112,880		㈜싱그린에프에스
	성일농장	성*일	46,800	5,200	위원회
	영농원	윤*한		2,000,000	위원회, ㈜신우에프에스
	신기농장	배*섭	701,680		㈜싱그린에프에스
	청용농장	조*훈	654,400		정우에프씨㈜
	털보농장	이*자	199,600		정우에프씨㈜
	토골농장	임*옥	629,920	258,080	정우에프씨㈜, ㈜싱그린에프에스
	행복놀이터 김농농장 의성지점	김*운	1,295,920		정우에프씨㈜
	호영농장	전*성	3,704,640		정우에프씨(주), 한송
청도군	청솔축산	서*수	1,920,080		㈜싱그린에프에스
칠곡군	골드축산	백*순	142,560		한송
	농업회사법인 대광팜스㈜	우*일	3,176,640		㈜싱그린에프에스
	한일양계	박*진	8,351,920		㈜싱그린에프에스
포항시	농업회사법인㈜새터자연란	서*윤	1,420,000		㈜싱그린에프에스
	성곡농장	전*욱		677,760	㈜한려식품
	성곡농장	전*열	611,840		위원회
	성지농장	금*수	3,089,440		㈜한려식품
	영포양계 영농조합법인	박*걸	2,000,000		위원회
	주명농장	함*석	300,000		위원회
	청하에그린	박*수	2,500,000		위원회
광주광역시			1,419,040	-	
광산구	근림농장	강*덕	1,419,040		㈜싱그린에프에스

지역	농장명	대표	납부금액 1월~8월	납부금액 9월	수납기관
전국			1,758,619,000	531,213,360	
대구광역시			52,070,320	-	
군위군	명품농장 농업회사법인㈜	이*고	20,162,160		㈜신우에프에스
군위군	복성양계정	곽*숙	3,796,960		㈜싱그린에프에스
군위군	십리골양계	홍*정	3,759,840		㈜한려식품
달성군	경북농장	최*목	6,201,600		정우에프씨㈜
달성군	현풍농장	이*훈	18,149,760		정우에프씨㈜, ㈜싱그린에프에스, ㈜한려식품
세종특별자치시			37,220,880	-	
부강면	광식농장	이*식	769,760		㈜싱그린에프에스, ㈜신우에프에스
전의면	농업회사법인 영신㈜	임*완	36,451,120		㈜싱그린에프에스
울산광역시			3,240,480	-	
울주군	옥동농장	박*열	285,120		한송
울주군	퓨란농장	박*철	587,200		㈜한려식품
울주군	한국농장농업회사법인㈜	임*수	2,200,560		㈜싱그린에프에스
울주군	현아농장	박*구	167,600		유진
인천광역시			5,119,200	1,082,960	
강화군	강화유정란농장	박*섭	59,280		정우에프씨㈜
강화군	경인농장 강화	임*희		1,082,960	㈜싱그린에프에스
강화군	경일농장	윤*미	662,320		㈜싱그린에프에스
강화군	농업회사법인(유)소원농장	최*헌	637,280		정우에프씨㈜, 위원회
강화군	부흥팜	고*진	2,340,400		정우에프씨㈜
계양군	계양농장	임*철	1,419,920		정우에프씨㈜
전라남도			112,148,080	13,039,880	
강진군	삼성농장	이*례	2,391,360		㈜한려식품
고흥군	영농조합법인 한나수목원	송*준		2,625,560	위원회, ㈜신우에프에스
곡성군	방송양계정	마*숙	874,000		㈜싱그린에프에스
나주시	공산양계장	박*열	4,531,200		한송, 위원회
나주시	나산농장	나*나	4,088,400		㈜싱그린에프에스
나주시	나주호농장	이*주	6,509,040		㈜싱그린에프에스
나주시	대성농장	최*기	2,740,080		㈜싱그린에프에스
나주시	대성3에그팜	최*기	1,207,280		한송
나주시	벧엘농장	김*식	1,573,040		한송
나주시	보금농장	봉*신	1,082,880		한송
나주시	석현에그팜	배*호	5,213,200		㈜싱그린에프에스
나주시	소망농장	전*국	245,600		한송
나주시	시녀울농장	남*현	1,045,600		한송
나주시	엄지농장	김*욱	1,257,680		㈜싱그린에프에스
나주시	옥산농원	김*길	6,323,920		㈜싱그린에프에스
나주시	장성양계장	이*임	2,157,600		㈜싱그린에프에스
나주시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해오름팜농장	임*두		823,600	한송
나주시	조은에그팜	조*광	3,382,400		한송
나주시	평화농장	이*만	2,866,320		한송
나주시	하늘농장	윤*성	3,409,520		㈜싱그린에프에스
나주시	형제농장	김*선	3,501,040		㈜싱그린에프에스
나주시	호랑에그팜	박*수	1,549,360		정우에프씨㈜
담양군	서남축산	문*택	229,600		㈜한려식품
담양군	㈜다란팜	송*주	340,800		위원회
무안군	그린영농조합법인	윤*수	4,407,200	1,872,400	㈜싱그린에프에스, 한송
무안군	도율농장	김*진	1,684,880		㈜싱그린에프에스
무안군	배로농장	나*화	2,400,960		한송
무안군	샤론농장	나*숙	1,220,320		㈜싱그린에프에스
무안군	에그린농장	김*언	1,440,000	2,195,440	위원회
무안군	우일농장	김*주	1,604,400		㈜한려식품
무안군	운남농장	박*철	1,081,280		㈜싱그린에프에스
무안군	한림농장	한*	2,481,600		㈜싱그린에프에스
영광군	어울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유*도	228,160		정우에프씨㈜
영암군	농업회사법인 조인팜스㈜ 용암지점	권*수	6,215,520		정우에프씨㈜
영암군	다미농장	김*아	1,893,840		㈜싱그린에프에스
영암군	또르래농장	최*경	1,720,160		한송
영암군	옥주농장	서*신	788,800	723,600	㈜한려식품
영암군	주안농장	안*수	1,344,000		㈜한려식품
장성군	농업회사법인 장성제일축산㈜	심*래	4,463,280		정우에프씨㈜
장성군	장성제일축산	심*래	5,818,960		㈜싱그린에프에스
함평군	구산농장 함평	설*수	1,753,280	1,490,240	㈜싱그린에프에스
함평군	녹색농부팜스	염*민	285,120		㈜싱그린에프에스
함평군	상하새벽농장	염*민	135,840		㈜싱그린에프에스
함평군	아침농장	윤*수		3,309,040	
함평군	양림양계	정*현	2,056,240		㈜싱그린에프에스
함평군	초동농장 영농조합법인	윤*수	5,877,280		㈜싱그린에프에스
함평군	후계자농장	설*찬	1,412,000		한송
해남군	도담농장	임*호	1,132,880		정우에프씨㈜
화순군	농업회사법인 네츄럴골드팜㈜	김*배	4,182,160		㈜한려식품
전라북도			97,301,960	9,187,840	
고창군	고수농장	염*훈	2,650,400		㈜신우에프에스
고창군	광산농장	김*남	1,276,320		한송

지역	농장명	대표	납부금액 1월~8월	납부금액 9월	수납기관
전국			1,758,619,000	531,213,360	
고창군	마리아농장	송*자	4,728,720		정우에프씨(주), ㈜한려식품
	바른농장계란	이*수	3,821,000		한송
	성산농장	정*규	1,334,320		한송
군산시	도란에그팜	박*균	4,990,480		㈜싱그린에프에스
	석화농장	최*배	944,000	1,282,480	㈜싱그린에프에스
김제시	나주2농장	염*자	1,882,000		한송
	덕우농장	김*태	677,920	737,760	㈜싱그린에프에스
	백훈농장	임*진	1,070,000		위원회
	번지농장	장*원	3,706,720		㈜싱그린에프에스
	사랑농장	정*언	2,598,320		㈜싱그린에프에스
	우리농장	정*언	2,536,960		한송
	은성축산	최*석	3,096,400		㈜싱그린에프에스
	하나농장	장*진	200,000		위원회
	환농장	홍*심		960,000	위원회
	해마루농장	김*식	3,597,840		㈜싱그린에프에스, 위원회
	현농장	김*	600,800		위원회
남원시	가나안축산	김*영	4,648,000		정우에프씨(주)
	강남농장	김*관	704,160		한송
	농업회사법인 가나안축산(유)	장*경	13,936,160		㈜한려식품, ㈜신우에프에스
	농업회사법인 ㈜풍년농장	이*만	3,741,520	3,808,640	㈜싱그린에프에스
	매일농장(덕과)	김*영	3,890,000		㈜한려식품
	알이조아	장*일	432,160	452,400	㈜싱그린에프에스
	알이조아3	장*일	395,360		한송
	와라농장	송*현	182,160		정우에프씨(주)
부안군	농업회사법인 한스팜㈜ 부안지점	한*권	3,359,120		㈜싱그린에프에스
순창군	장연양계	노*석	15,754,480		한송
익산시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삼안팜	심*선	3,788,800		㈜싱그린에프에스
	명승양계농장	강*수	2,468,160		㈜싱그린에프에스
	미래농장	소*옥	1,398,720		㈜싱그린에프에스
	수지농장	장*화	188,560		정우에프씨(주)
장수군	농업회사법인 한국양계TS㈜ 장수	김*환	2,585,120	1,946,560	㈜신우에프에스
정읍시	조안농장	임*택	117,280		정우에프씨(주)
제주특별자치도			18,713,360	3,828,000	
제주시	금남농장	이*용	2,000,000	1,960,000	위원회
	기성농장	홍*석	203,200		㈜한려식품
	기풍농장	이*중	544,000	68,000	위원회
	대종농장	강*양	326,400	320,000	㈜한려식품
	더조은농장	이*기	2,415,200		㈜한려식품
	만호상훈농장	채*훈	416,000	52,000	위원회
	목거리농장	홍*숙	2,836,720		㈜싱그린에프에스, 유진, 한송
	상명농장	강*호	675,280		정우에프씨(주), ㈜ 싱그린에프에스, ㈜한려식품
	성진농장	김*규	608,000	76,000	위원회
	영농조합법인 태연농장	고*완	150,160		㈜한려식품
	원일EM양계농장	최*일	247,360		㈜한려식품
	원일농장	김*일	672,000	84,000	위원회
	정민농장	한*규	704,000	88,000	위원회
	제주양계 영농조합법인	오*근	3,780,000	1,080,000	위원회
	제주초록영농조합법인	이*민	1,756,400		㈜한려식품
	한라농장	신*희	578,640		㈜싱그린에프에스
	한림농장	강*자	800,000	100,000	위원회
충청남도			203,888,640	59,132,840	
공주시	농업회사법인 ㈜동일피에스	조*준	1,150,400		정우에프씨(주)
	농업회사법인 한스팜네이처㈜	한*응	1,735,600		한송, 유진
금산군	부자양계 영농조합법인	김*철	15,695,280		㈜싱그린에프에스, ㈜신우에프에스, 위원회
	비비팜2농장	강*현	1,449,600		㈜한려식품
	장연양계 금산	노*석	9,283,360		㈜싱그린에프에스, 한송
논산시	농업회사법인 (유)금강엘에프	이*의	27,451,680		㈜싱그린에프에스
	농업회사법인 수목원농장 유한회사	장*호	10,040,080		㈜한려식품, 한송
	양촌농원	최*순	2,191,560		정우에프씨(주)
	한영농장	박*서	866,520		한송, ㈜싱그린에프에스, ㈜신우에프에스
당진시	농업회사법인 강남농장㈜	김*문	3,313,600		정우에프씨(주)
	농업회사법인 에이치에스축산 주식회사	정*윤		771,280	한송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한솔루트원	황*솔		1,764,960	한송
	농업회사법인 조인팜스㈜ 봉성지점	권*수	16,309,680		㈜싱그린에프에스
	농업회사법인 조인㈜ 봉성지점	김*강, 한*권		5,119,360	㈜싱그린에프에스
	대건농장	홍*학	254,720	1,335,600	정우에프씨(주)
	옥성농장	이*희	1,644,240		㈜신우에프에스
	정우농장	김*균 외 1명	16,755,200		정우에프씨㈜, 위원회
	청금농장	우*희	1,486,480	436,080	㈜신우에프에스
보령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녹산팜	김*태	6,124,160	3,349,680	㈜신우에프에스, ㈜싱그린에프에스
	명대농장	황*국	338,960		㈜신우에프에스
서산시	서산기쁨농장	홍*율	171,200	160,800	한송
	우리숲	황*국	561,840		한송
	팔봉농장	이*석	578,960		한송

지역	농장명	대표	납부금액 1월~8월	납부금액 9월	수납기관
전국			1,758,619,000	531,213,360	
아산시	그린농장	정*섭	139,440	300,880	정우에프씨㈜
	근해농장	이*근	178,240	182,160	정우에프씨㈜
	군자팜	지*근		25,148,000	위원회, ㈜싱그린에프에스
	농업회사법인 ㈜계림농장	홍*학	8,066,160		정우에프씨(주), 한송
아산시	디와이팜	지*근	6,344,480		㈜신우에프에스
	바람꽃농원	이*영	1,662,160		정우에프씨㈜
	삼봉농장	이*기	688,480		유진
	성윤농원	서*원	935,360		정우에프씨㈜
	수정농장	송*옥	356,400		정우에프씨㈜
	신창농장	김*경	6,132,160		㈜신우에프에스, ㈜한려식품, 위원회
	에버그린 둔포지점	한*진	1,789,120	2,128,320	㈜싱그린에프에스
	우림농원	이*영	2,407,680		정우에프씨㈜
	푸른초원농원	박*호	1,094,000		정우에프씨㈜
예산군	농업회사법인 덕연주식회사	김*수	11,434,080		㈜싱그린에프에스
	농업회사법인 히즈팜㈜ 예산농장	한*진	301,040	2,215,120	㈜싱그린에프에스
	장복농장	황*국		93,760	한송
	예산농장	김*식	3,007,120	2,904,720	㈜싱그린에프에스
천안시	구성농장	김*구	932,160		㈜한려식품
	능골농장	박*재	188,560		정우에프씨㈜
	대풍농장	김*길	1,030,000		㈜신우에프에스
	진원농장	한*식		9,228,360	위원회,㈜싱그린에프에스
	애플축산	김*기	452,400		정우에프씨㈜
	에그빌농장	김*석	4,973,840		㈜신우에프에스, 정우에프씨㈜
	오성농장	이*호	4,126,560		한송, 유진
	유니농장	이*화	1,582,960		정우에프씨㈜
	이든농장	유*정	696,000		㈜싱그린에프에스
	풍년농장	황*숙	3,575,120		한송, ㈜신우에프에스
	진우농장	송*호		1,486,080	㈜한려식품
	프리팜스	우*식	1,516,560		㈜신우에프에스
	한성농장	김*영	1,123,680		㈜한려식품
	호중농장	곽*중	636,800		정우에프씨㈜
청양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재유농원	이*영	438,240		들녘
	농업회사법인 코코스팜 주식회사	이*휴	7,160,720		㈜신우에프에스
	산마을양계장	정*만	10,912,960		㈜신우에프에스, 유진, 한송, ㈜한려식품
	재유농원	서*원	1,164,240		정우에프씨㈜
홍성군	진흥농장	장*훈		2,507,680	위원회, ㈜신우에프에스, 한송
	청오농장	임*혜	950,880		㈜싱그린에프에스, ㈜신우에프에스
	혜온농장	임*혜	487,920		정우에프씨㈜
충청북도			105,708,160	15,006,320	
괴산군	눈비산마을공동체농장	이*화	346,160	276,000	정우에프씨㈜
	흘미농장	김*호	1,049,200		정우에프씨㈜, 위원회
단양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다온팜	이*남	184,000		위원회
	찬호농장	허*국	256,640		정우에프씨㈜
보은군	농업회사법인 용암농장(유)	정*우	7,746,880	1,623,760	㈜싱그린에프에스
영동군	달구네	박*현	299,440		한송
옥천군	대성농장2	황*억	9,694,000		㈜신우에프에스
	대성농장3	김*자	7,564,800		㈜신우에프에스
	대성농장4	황*권	8,013,760		㈜신우에프에스, ㈜싱그린에프에스
	대성농장5	김*환	8,267,040		㈜신우에프에스, ㈜싱그린에프에스
	삼기농장	임*재	437,360		정우에프씨㈜
음성군	농업회사법 ㈜조하	임*택	3,405,680		정우에프씨㈜
	농업회사법인 ㈜조하 삼성지점	임*택	7,571,920		㈜싱그린에프에스
	농업회사법인 세양㈜ 음성농장	한*진	12,703,440		㈜싱그린에프에스
	농업회사법인 한국양계	김*호	1,991,440		㈜신우에프에스
	삼원농장	최*수	9,520,000		위원회
	서가팜	서*형	1,424,400		㈜싱그린에프에스, ㈜한려식품
	송계농장	이*태	4,514,640		한송, 정우에프씨㈜
	농업회사법인 조인㈜ 용계지점	김*강		3,933,600	정우에프씨㈜
	진영농장	이*순		1,000,800	한송
	열음농장	이*희	199,600		정우에프씨㈜
	벧엘농장	김*식	429,280		㈜싱그린에프에스
증평군	증평 영농조합법인	김*회		158,400	정우에프씨㈜
진천군	대국농장	유*종	202,000		정우에프씨㈜
	양촌농장	홍*혜	1,461,440		㈜싱그린에프에스, 정우에프씨㈜
	정우농장	임*혜	354,720		정우에프씨㈜
제천시	농업회사법인㈜해담	한*혁	609,120	1,168,000	㈜싱그린에프에스
	농업회사법인 히즈팜㈜ 제천지점	한*진		5,518,160	정우에프씨㈜
	선한부자농장	정*혁	239,280	134,640	한송
청주시	농업회사법인 청농팜㈜(이끌림농장)	이*은	628,960	688,400	정우에프씨㈜
충주시	나나농장	김*국	300,000	504,560	㈜싱그린에프에스
	농업회사법인 다미농장㈜	김*아	1,360,080		㈜싱그린에프에스
	영농조합법인 무지개농장	한*혁	13,213,840		㈜신우에프에스, ㈜싱그린에프에스
	오알농장	신*례	1,301,440		㈜싱그린에프에스
	우리팜	김*재	417,600		정우에프씨㈜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사)대한산란계협회 Korea Egg producer association

가축 질병 예방 및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한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

교육대상 이수·기한

교육 대상	교육 이수 기한	교육시간
축산업 허가자 가축사육업 허가자 및 종축업·부화업·정액 등 처리업자	**허가를 받은 날**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매 1년이 되는 날까지**	**6시간**
가축사육업 등록자	**등록한 날**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까지**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신규교육 수료일**로부터 **매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시간**

교육 수강방법

온라인 교육 무료	교육정보시스템(www.farmedu.kr) 접속·수강
집 합 교 육 유료	인근 축협 및 교육운영기관 개설 교육 참석

온라인 교육
수강 바로가기

온라인 교육 시 '교육운영기관'으로
"대한산란계협회"를 지정해주세요





과학-MJ 콤포스터

과학시스템(주)는 새로운 차원의 축분발효건조기를 **'과학-MJ 콤포스터'**를 공급한다고 한다.

녹슬지 않고 값비싼 304 스텐레스강 사용

벽판 내부에 3.75mm, 외부에 2.75mm 두께의 304 스테인리스강판을 사용하고, 축분 교반 날개에도 동일한 재질을 사용해 부식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열회수시스템을 기본으로 공급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해 재사용함으로써 전력 소비를 크게 줄이고 발효효율과 탈수효과를 높인다.

단조 일체형 라쳇 적용

용접부가 없는 단조 일체형 라쳇을 적용해 구동부의 고장요인을 극소화한다.

주요 부품 3년 보증

발효조 내외부, 구동 라쳇, 중심축 등 주요 부분에 대해 3년간 품질을 보증한다.

다양한 기종 공급

55㎥부터 280㎥까지 8종의 제품을 공급해 용도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공급함으로써 경제성을 높인다.

세계 시장 공급 실적

최근 9년간 세계 시장에 2,000대 이상을 공급했으며, 2025년에도 연간 200대 이상의 판매실적을 기록했다.

우수한 가격 경쟁력

뛰어난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대량생산을 통한 원가 절감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KEGG NEWS 2026.11

영주지부, 풍기인삼축제서 계란 1만여 개 기탁

영주지부(지부장 황장규)는 지난 10월 7일 '2026 영주 풍기인삼축제' 현장에서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계란을 기탁하고,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계란 소비홍보 활동을 펼쳤다.

영주지부는 이날 영주시에 250만 원 상당의 계란 1만여 개를 전달했다. 기탁된 계란은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무료 경로식당 등 30여 개소에 배부돼 어르신과 장애인 등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먹거리로 사용됐다.

올해 풍기인삼축제는 지난 10월 3일부터 11일까지 영주시 풍기읍 남원천과 풍기인삼공원 일원에서 열렸으며,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돼 약 51만 명이 축제장을 찾았다.

축제장에서는 계란자조금위원회도 '삼시세끼 계란, 푸드백신 계란'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계란 소비홍보에 나섰다. 부스에서는 계란빵과 핫바 등의 시식과 조리 체험, 퀴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생란과 구운란 등을 방문객들에게 제공하며 계란의 영양학적 우수성을 알렸다.

황장규 영주지부장은 "농가들이 정성으로 생산한 계란을 이웃과 나눌 수 있어 뜻깊다"며 "어려운 분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일이에프, 지역 어르신 위해 구운 계란 100판 기탁

함안군 산인면 소재 농업회사법인 ㈜한일이에프(대표 박형규)가 지역 어르신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구운 계란 100판을 기탁했다.

이번 나눔은 제 28회 산인면민 체육대회 및 제27회 경로위안 잔치를 맞아 마련됐으며, 한일이에프는 30구들이 구운 계란 100판을 산인면에 전달했다.

기탁된 계란은 노인의 날 행사와 연계해 마을별로 배부하고,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도 전달될 예정이다.

문설희 산인면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관심과 나눔을 실천해 주신 박형규 대표께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계란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웰빙영농조합법인 애월아빠들, 취약계층 위해 계란 1,000구 전달

제주웰빙영농조합법인 애월아빠들(공동대표 이욱기·김봉현)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계란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애월아빠들은 지난 19일 제주시 애월읍사무소에 무항생제 계란 1,000구를 전달했다. 기탁된 계란은 애월읍의 민관협력 주민돌봄 사업인 '애월고팡과 나눔냉장고'를 통해 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 주민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게는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살피며 계란을 전달할 계획이다.

애월아빠들은 지난 2023년부터 매월 무항생제 계란 1,000구를 꾸준히 기탁하며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KEGG NEWS 2026.11

9월 '사랑의 계란 나눔' 기부 진행



주식회사 팜스토리 서울사료(대표이사: 배수한, 이하 '서울사료')는 지난 9월 30일 계란 10,020개를 푸드뱅크를 통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였다.

9월 계란 기부 행사는 경북 봉화군 소재의 용운농장(대표 임광빈)에서 진행되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용운농장은 안정적인 산란 성적을 바탕으로 품질 좋은 계란을 생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기부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사료는 SPT사업부를 중심으로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회사의 지원으로, 2013년 5월부터 매월 전국을 순회하며 9월까지 총 145만 개를 기부하였다.

서울사료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산란계 사료 업계 1위 기업으로서, 국민 단백질 영양의 대표 식품인 계란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계란 소비 촉진을 통해 산란계 농가에 힘을 보태고자 앞으로도 계란 기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을철 환절기 사료 보강 서비스 실시

서울사료는 가을철 환절기에 대비하여 9~11월 '환절기 사료 영양 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환절기에는 급격한 일교차와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신체적 스트레스로 닭들이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계군의 스트레스 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료에 에너지,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과 생균제를 강화하고, 특히 질병 발생에 대응한 면역력 상승을 위해 항병력 강화 특수 첨가제도 보강하였다.

서울사료 관계자는 "각 농가에서도 계사 내 환경 관리로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철저한 차단 방역으로 외부 질병 유입을 막아야 한다"며 "더불어 서울사료에서는 전체 사업장의 방역 강화 및 자체 방역 시스템 상시 점검으로 안전한 사료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케민코리아,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주제로 'Intestinal Health Seminar' 개최

장 건강을 위한 병원체 관리· 면역 지원 ·마이크로바이옴 활용 전략 제시



케민코리아㈜는 최근 축산 및 사료업계 관계자 약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성 베네스트 연회장에서 Intestinal Health Seminar'를 개최하고, 동물의 장 건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최신 연구와 관리 전략을 공유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축산 업계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비롯해 병원체 관리와 면역 지원, 콕시듐증 대응 등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윤현호 PM이 가금산업의 주요 질병 중 하나인 콕시듐증의 최신 관리 방향을 발표했다. 갈릭산 기반의 천연 콕시듐 관리 솔루션과 N-아세틸 키토올리고당을 활용한 연구 결과가 공유됐으며, 원충 억제를 넘어 장 환경과 면역 반응까지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케민의 Grant R&D박사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발달과 동물 건강 및 생산성 간의 관계에 대해 소개했다. 최신 연구를 통해 동일한 영양 및 사양 조건에도 마이크로바이옴의 성숙 정도와 성장 성적 간에 연관성이 나타날 수 있음을 설명하며, 성장 초기 장내 미생물 생태계의 발달과 안정적인 장 환경 조성이 이후 건강과 생산성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 연사 Apichaya PM은 '장 건강과 성장'을 주제로 양돈과 양계에서 문제가 되는 E. coli, Salmonella, Clostridium perfringens 등 주요 장내 병원체 관리와 면역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프로바이오틱스 기반의 병원체 관리와 장내 미생물 균형 개선, 유글레나유래의 베타글루칸을 활용한 면역 지원 전략과 다양한 연구 및 현장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 병원체, 면역을 서로 연결된 장 건강 관리 요소로 바라보는 통합적 접근이 강조됐다.

이충한 케민코리아 지사장은 "장 건강은 단순한 질병 관리를 넘어 마이크로바이옴과 면역, 영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최신 연구와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국내 축산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KEGG NEWS 2026.11

농협사료, 3분기 경영분석회의 개최

- 4분기 목표 달성 및 내년도 사업 기반 마련 총력 -





농협사료(대표이사 최강필)는 지난 13일 강동구 소재 본사에서 임원 및 사무소장 등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3분기 경영분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의 대외 경영여건을 면밀히 진단하는 것으로 시작해, 3분기 종합경영 실적 분석 및 사업부문별 주요 성과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이어 2026년 목표 달성과 2027년 사업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4분기 핵심 전략이 논의되었다. 특히 현장 중심 영업전략 구상과 초프리미엄 신제품(진심비육) 홍보 강화, 관행을 타파하는 전사적 마인드 혁신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각 지사 간 소통을 확대하고 안전관리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끝으로, 최강필 대표이사는 "올 한해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 축산농가와 농협사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농협사료의 지속 성장을 위해 현장 중심의 영업전략을 철저히 구상하고 임직원의 마인드를 새롭게 다지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부모님 효도 팁:
건강 관리해 드리기(2)



평소 건강관리의 중요성

평소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국가건강검진을 빠짐없이 받아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만성질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장되는 예방접종을 하고, 손 씻기를 생활화하며,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마스크 착용을 잊지 않는다면 병원 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소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부모님께 알려드려 부모님의 건강한 삶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1) 규칙적인 생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수면은 취침과 기상 시간을 정하여 잠을 충분히 자도록 하고, 식사는 매 끼니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어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신체 활동을 유지하고, 체력에 맞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향상시키고, 질병에 대한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예방접종

연령이 증가할수록 면역 체계가 약해져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가을에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권장되고, 노인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폐렴 구균 백신도 접종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포진 백신과 다른 백신도 접종 여부를 의료진과 상담할 것을 권합니다.

3)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감염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철저한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입니다. 식사 전, 화장실 사용 후, 그리고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을 때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30초 이상 꼼꼼히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출할 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의료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여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이 더 커집니다.



자료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CDC))
국가건강정보포털(health.kcda.go.kr)

4) 건강관리를 위한 병원 방문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만성질환 관리는 평소 건강 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일반 건강검진과 암 검진은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이를 놓치지 않고 받도록 합니다. 만약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꾸준히 관리합니다. 또한, 평소와 다른 갑작스러운 통증, 호흡곤란, 지속적인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때는 바로 병원을 방문하여 의료진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서비스

국가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로 노년층의 건강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부모님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강과 관련된 서비스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1) 119 안심콜 서비스

119 안심콜 서비스는 사전에 등록한 사람이 119에 신고하면, 입력된 병력과 질환 등의 정보가 119 종합상황실 신고 접수화면에 나타나고, 출동하는 구급대원에게 전달되어 신속한 현장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 자녀, 사회복지사 등의 대리인도 가입할 수 있고, 119 신고 시 등록된 보호자의 연락처로 알림이 가므로 응급상황을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입은 119안전신고센터 누리집(www.119.go.kr)에 접속해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 병력, 복용 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을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19안전신고센터: https://www.119.go.kr

2)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이나 장애인 가정에 응급 호출기, 활동량 감지기, 화재 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만약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살려줘'라고 외치거나 불이 나면 119로 자동으로 연결되고, 일정 시간 동안 활동량이 없으면 안부 전화를 하는 인공지능 케어콜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지역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기관 안내: https://biz.dcare.go.kr/cm/servicePopup.do

3)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경우 인플루엔자와 폐렴구균 백신 접종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연령대별 접종 시기에, 폐렴구균 백신은 연중 접종이 가능합니다. 건강 상태가 좋은 날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의료기관에 접종 가능 여부를 문의한 후 방문하여 접종받으시면 됩니다. 예방접종과 관련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도우미: https://nip.kdca.go.kr/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2026 농업인을 위한 세금 이야기

그 밖의 세금



농어촌특별세 농업인을 지원하는 세금

주민세 개인과 법인이 지자체에 내는 세금

농어촌특별세란?

농업·농촌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입니다. (1994.7.1. ~ 2034.6.30.) 조세감면액, 증권거래금액, 취득세액 등에 부가하여 과세합니다.



조세 감면액 (비과세 예탁금 등) → **증권 거래금액** (주식 매도시) → **취득세액** (부동산 취득 등) → **개별 소비세액** (귀금속, 담배 등) → **농어촌 특별세 과세**

세율(2025)

조세감면액	10~20%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	20%
저축감면	10%
레저세액	20%
증권거래금액	0.15%
개별소비세액	10~30%
취득세액	10%(농지 취득 등 제외)

※ 국가·지자체·중소기업에 주었던 감면에 대한 농특세 등은 비과세합니다.

농업분야 농어촌특별세

농업인·농협·농업법인 조세 감면에 대한 농특세를 비과세합니다.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및 사업소를 둔 법인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 및 사업소를 둔 법인 ➡ 주민세 과세
  - **개인분** : 개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합니다.
  - **사업소분** :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부과합니다. (개인·법인)
  - **종업원분** : 종업원의 급여총액에 따라 부과합니다.

세율(2025)

구분	세율
개인분	1만원 이하(조례로 지정)
개인분	기본세액(5~20만원)+사업소연면적 1㎡당 250원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농업분야 주민세

농업인이 영농·영림·가축사육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기본세액제외) 및 종업원분은 면제합니다.(~'27년)

출처: 2026 농업인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이야기, 농림축산식품부

사양관리 QUIZ

세상에서 가장 쉬운 퀴즈,
정답은 이달 《월간산란계》
11월호에 있어요!

응모방법

아래 정답란에 정자로 답을
기재한 후 해당 페이지를
뜯어서 대한산란계협회에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상품 발송을 위해 성함과 주소,
연락처를 꼭 회신 부탁드립니다.

※ 기한: 매월 20일(우편물 협회 수령 기준)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연제1길 20-2, 2층**

지난달 당첨자

경북 포항시 최★기
충남 금산군 김★태
경남 양산시 최★성
경기 양평군 강★래
대구 군위군 박★동

1 **산란계 농장에서 소독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① 소독제 농도를 임의로 높인다.
② 오염물을 제거한 후 소독한다.
③ 소독 횟수를 늘리는 데 집중한다.

HINT. 산업 및 연구정보_특별방역기간 산란계 농장의 소독과 차단방역 관리

2 **가금 농장의 식중독 살모넬라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① 임상증상이 없는 계군은 검사를 생략한다.
② 백신 접종만으로 살모넬라 감염을 예방한다.
③ 차단방역과 백신 접종,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병행한다.

HINT. 질병 및 사양관리_식품안전 관점에서 다시 보는 가금 농장의 식중독 살모넬라

3 **2026~2027년 동절기 고병원성 AI 방역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알 운반차량은 원칙적으로 농장 내부 진입이 제한된다.
② 10만 수 이상 산란계 농장은 주 1회 이상 자체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③ 농장 내부로 진입하지 않는 차량은 거점소독시설 소독이 면제된다.

HINT. 질병 및 사양관리_2026~2027년 동절기 AI 방역대책, 무엇이 달라졌나

4 **일본의 AI 방역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병원성 AI 예방백신을 상시 접종한다.
②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보상에 반영한다.
③ 농가의 자율적인 방역관리를 강조한다.

HINT. 현장탐방_방역에서 위생관리까지, 일본 산란계 산업의 현장을 들여다보다②

5 **농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자등록을 한 농민은 세무서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농업용으로 구입한 모든 기자재는 환급받을 수 있다.
③ 환급받은 지자재는 용도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HINT. 현장탐방_산란계 농장에서 알면 유익한 세무정보

정답란

1. ☐ 2. ☐ 3. ☐ 4. ☐ 5. ☐

**정답을 모두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정된 다섯 분께
1인당 프리미엄 구운란 두 판씩을 보내드립니다.**

대한산란계협회 회원 가입 안내

www.kegg.or.kr

회원 구성

협회 회원은 정관을 찬동하는 자로서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된다.

회비 납부

1. 회원 정기회비(연간 1인당) : 20만원

- 축산업(산란계, 산란종계) 허가를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로서 협회 조직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개인(배우자·직계가족 포함. 이하 같음) 또는 법인

2. 준회원 정기회비(연간 1인당) : 정회원에 준함

- 축산업(산란계, 산란종계) 허가를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았거나 또는 대표자에게 고용된 임직원으로서 협회 조직에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법인

3. 특별회원 정기회비(연간 1인당) : 20만원

- 정회원과 준회원이 아닌 자로서 회원가입을 희망하거나 또는 협회의 요청에 따라 회원에 가입한 개인 또는 단체

회원가입 혜택

가. 《 **월간 산란계** 》 정기간행물 배부 회원 무료
나. 양계 시세정보(계란가격 정보) 제공 회원 무료
다. 세미나 및 산란계 관련 대회 등 행사 참가
라. 산란계협회 다이어리 및 달력 제공 회원 무료(연1회)
마. 국내외 양계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및 해외선진지 견학 기회 부여
바. 농장경영·기술관련 상담 및 지도 등 기타

회원가입 신청방법

가. 정회원

-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시·군)의 지부에 회원가입신청
- 지역(시·군)에 지부가 없을 경우 도지회에 가입

나. 준회원 및 특별회원

- 본회에 가입신청

원고 접수 안내

산란계와 관련된 제보사항, 보도, 기사자료 등을 보내주시면 전국의 산란농가 여러분께 양질의 보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원고·광고 접수해 주실 곳

E-mail
2343206@naver.com

산란계
Monthly Laying Hens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청주, 라00056

2026년 11월호
통권 47호

발행처	(사)대한산란계협회
발행인	안두영 회장
편집인	김경두 전무
취재	이성진 대리, 김금비 주임
제작·편집	㈜디자인여백플러스

우편번호 2816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1길 20-2, 2F
TEL : 043-234-3206
FAX : 043-234-3207